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영강점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월 2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07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승가위주의 종단운영

2일 밤 10시 천태종 서울 관문사 법당에서는 남궁도재 부주지스님을 비롯 근무원 신도회장과 간부 70여명이 참석해 간부법회를 갖고, '매월 정기법회 후 구별법회 진행, 2월 초 바자회 준비, 서초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추진' 등 새해 절 살림 계획을 결정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밤 10시 사찰의 살림살이 논의는 물론 철야정진을 겸해 열리는 간부법회는 천태종 산하 모든 사찰에서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94년 개혁이후 종단차원에서 스님과 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이 제도화 됐지만 강남 봉은사, 잠실 불공사, 광명시 금강정사 등 소수의 사찰에서 부분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종단살림 재가 참여해야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서 구성한다'는 조계종 종헌 제3장 8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단과 사찰 운영의 대부분이 스님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재가신도는 종단과 사찰의 종무원으로써 단순히 스님들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뿐이다.

종회의 재가신도 참여문제도 수시로 거론되고 있다. 천태종의 경우는 종회에 스님과 재가신도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 재가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을 제외한 조계종, 태고종, 관음종 등 대부분의 종단에서 재가신도의 종단운영 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주소다.

지난해 말 조계종 사태이후 재가단체를 중심으로 재가신도들이 종단개혁과 불교발전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님은 수행과 교화의 본분에 충실하고, 살림은 재가 전문가와 신도들이 맡아 하게 될때 사부대중의 진정한 불교공동체가 이뤄질 것이라는게 요즘 불교계의 여론이다. 새로 출범한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이같은 뜻이 최대한 수용되기를 사부대중은 기대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ejee@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교계복지관 운영 '우수 평가'

서울시 감사결과 **삼전 청담 구로복지관 서울시장 표창 · 우수 프로에도 뽑혀**

서울시내 불교계 복지관들은 특색있는 운영으로 복지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불교사회복지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 복지관 종합감사결과 주먹구구식 회계관리 등 숨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14일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복지관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삼전종합복지관 관장 각우(43) 스님과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강영삼(36) 사회복지사가 서울시장 표창을 받게 됐으며,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과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의 프로그램이 각각 수범사례에 선정됐다.

서울시장 표창 4건(개인 3명, 단체 1곳) 중 2건, 특색있는 프로그램 수범사례 5건중 2건을 불교계 복지관이 차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내 10여개 복지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관장 각우스님은 매달 지급되는 판공비에서 20만원을 후원금으로 쓰고 자비 1백만원과 급여의 일부를 복지관에 기탁, 저소득층 및 노숙자 사업에 활용하는 등 헌신적인 활동을 해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청담사회복지관의 강영삼 사회복지사는 97년부터 저소득 세대에 도배서비스·보일러 점검수리를 실시하고 노인 1천여명에게 무료 한방진료 서비스를 해오는 등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모범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내 인프어린이도서관 주최로 97년부터 '협동화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개발독서지도, 집단등이리활동, 작품발표 등으로 어린이들의 정서 및 협동심 함양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도 지난해 6월부터 두달에 한번 꼴로 '시골쥐와 서울쥐' 등 무료 인형극과 뮤지컬공연을 펼쳐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

사회복지재단 이용권국장은 "스님들이 관장을 맡아 운영이 투명하고 보살행의 실천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며 "이번의 감사결과가 불교사회복지계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고산스님 취임법회가 10일 조계사에서 2천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참가자들은 증단의 새로운 도약으로 세계정신을 이끌어 가기위한 불교위상을 세우겠다고 서원했다.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수행-정진 승가진면목 회복"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고산스님 취임법회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취임법회가 10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을 비롯 도천 원담 법전 도원 정천 녹원 탄성 보성 지종스님이 참석했다. 또 23개 교구본사 주지와 태고 천태 관음 보문종 등 각종단 대표, 신현웅문화부차관, 청와대불자회 김대동회장 동국대 송석구총장 등 각계 인사와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29번의 타종으로 시작된 취임법회에서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은 법어를 통해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니 찬란한 빛을 놓으며 총무원장 진산식을 하니 나는 새 기는 짐승이 무한한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며 "시비와 선악이 본래 공하고 마군과 제불이 원시동체라 종단분규는 몽중의 꿈이요 이해득실은 수포의 물거품"이라고 설했다.

이에앞서 고산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진정한 참회로 초발심을 회복하고 수행과 정진의 승가 진면목을 회복할 때"임을 강조하고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한 종단의 종무행정 방향과 한국사회와 세계사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불교로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관광부 신현웅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고산 총무원장께서 조계종단의 대자대비한 원융화합을 이루는 중심이 되고, 한국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큰 기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과 범불교연대회의 박광서 공동대표도 축사를 통해 고산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종단의 안정과 개혁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취임법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연대회의가 개최한 제2차 범불교도대회가 봉행됐다.<관련기사 4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범종교 남북교류협' 곧 발족

준비모임 갖고 상호 정보교환등 합의

남북종교교류단체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종교인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됐다.

불교를 비롯한 6개 종교 남북종교교류단체 대표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칭 '범종교단체 남북교류협력협의회' 발족 준비모임을 가졌다. 법타스님(광불협회장), 자현정사(광불협상임부회장), 이재정 신부(성공회대 총장), 박청수 교무(원불교 광양교구장) 등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협의회 구성목적 및 조직구성, 운영방향, 사업내용을 골자로 한 회칙(안)을 작성했다.

가칭 범종교단체 남북교류협력협의회 발족 준비모임은 각 종교별로 협의회 운영위원을 5명씩 추천키로 하고 불교 2명, 개신교 3명,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유교 등 4개 종교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 공동대표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종교단체간 북한 교류관련 정보교환 및 공유, 협력체제 구축, 인도적 북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방안 모색, 남북한 성지순례 및 종교자료 전시회 개최, 북한 종교시설 설치 및 복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고산 총무원장 취임 인터뷰 3면
성도절을 이웃과 함께 23면

포교용 소책자 5종 조계종 무료배포

조계종사태로 발행이 늦어졌던 청소년, 환자, 재소자, 군인, 문화재사찰 관람객 대상의 포교용 소책자 5종이 이달중 나온다. 32쪽 안팎의 소책자는 각 5천부씩(군포교 소책자는 1만부) 발행돼 학교 병원 군부대 등에 무료로 배포된다. (02-720-7064)

소책자 발간 사업을 벌이고 있는 포교연구실은 "그동안 종단 차원에서 특수 및 계층포교에 대한 자료제공이 빈약했었다"며 "비불자들이 편안하게 불교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포교연구실은 소책자 배포에 이어 '불교상담자료집' '재가불자수행지침서' 등 자료발간 사업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이 자료집과 지침서는 2월중 발행된다.

지난 해 10월 나온 실직자 대상의 소책자는 반응이 좋아 최근 재판 1만부를 인쇄해 배포하고 있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pia.com)

98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1998년 한 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98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제시해온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에는 '98년 불교사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돼 있어 더 없는 신행의 길잡이 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하시기를 권합니다.

△수록내용: 1998년 1년분(157호~204호)
△판 형: 신문 원형 그대로
△가 격: 1권 60,000원(우송시 5천원 추가)
※1월에 신청하신 현대불교신문 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온행입금: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국 민: 023-25-0007-617
농 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 의: 기획관리부(02)737-8881

생명의 玉
신비의 玉

天然의 健康寶石 岫岩玉(수암옥)

건강과 행운을 가까이에 수암玉의 신비로움과 고귀함을 느껴보세요.


옥 염주 세트 (가격:98,000)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산옥(신강성), 초산옥(호북,삼양), 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인데 그중 수암옥을 2300여년전부터 내려와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북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옥구룡'가 수암옥으로 판명되고 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팔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연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며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 있다


만옥 팔찌 세트 (가격:49,000)


옥 바둑돌 (가격:295,000)


수라옥 다기 (가격:158,000)


수라옥 반상기 (가격:188,000)

연옥은 인체에 필수 미량원소(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분등)들을 여러질과 같은 섬유질과 그리스탈의 미립집합체로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주성분(대한 광물 진흥 연구소)
-K₂O, CaO, MgO, Fe₂O, FeO, SO₃, SiO₂, Al₂O₃, Na₂O, MnO

연옥제품 착용시 적외선 체열 진단 사진


▲ 흑반지 미착용 ▲ 흑반지 착용

오른쪽의 손사진은 연옥 사용인 이홍주(고분자 연구실 55세) 원옥의 손사진은 연옥을 사용하지 않은 손. 김표(30세) 연령차이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의 현저한 차이를 사진으로 볼 수 있다.

한일 의료기 주식회사
HANIL MEDICAL CO., LTD.
HANIL
수암옥 사업부 (0342)735-2270-1
A/S소비자 상담실 (0342)741-0544, 080-060-4545

• 전국 대리점 총판 모집중

사 설

재가불자의 역할

종단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등 4부대중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그동안 우바새와 우바이, 즉 재가불자들은 종단외호라는 의무만 강요당했지 사실상 종단개혁과 발전에는 한 발짝 물러서 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94년 개혁때도 재가불자들이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했으면서도 정작 종단개혁의 실질적인 작업에는 제외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사찰운영위원회' 조직이다. 사찰운영위 구성은 종단개혁 작업중 가장 주목받았으나 실질적으로 개 사찰에서 이를 조직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사찰운영위를 만들자는 것은 사찰의 운영(재정을 포함해)을 주지 스님뿐 아니라 신도들도 함께 참여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스님들의 거부와 신도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유야무야 된 것이다.

조계종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앞장섰던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가 지난 8일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9대 도시를 돌며 '재가불자의 꿈 만들기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가불자들의 활동방향과 조직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한다. 재가연대는 연속 토론회와 병행해 폭력승려퇴출운동과 사찰재정 투명화 운동을 핵심 개혁과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 그동안 대체적으로 기복에 머물던 재가불자들이 불교개혁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

부처님께서는 재가불자로서 바르게 사는 도리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셨다. "세속에 살면서 집안을 잘 다스리고 목숨이 끝날 때까지 삼보에 귀의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며 오계를 잘 지키기를 서원하며, 부지런히 베풀어 공덕을 닦아나가야 하며, 절을 찾아가 법문을 듣고 그 법을 잘 실천해야 한다."〈잡아함경〉

이 말씀처럼 계행에 철저하고 수행정진에 힘쓰는 거룩한 스님들을 잘 공경하고 존중해야 함과 동시에 부처님말씀에서 이탈하는 스님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사명도 재가불자들의 것이다. 스님들이 수행과 교화의 본분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될 뿐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종단의 발전을 위한 주체적인 세력으로 결집될 수 있어야 한다.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는 불교가 이에 걸맞는 전문인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불교는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다변화되고 세분화되어가는 사회구조속에서 출가승만의 힘으로 포교역경 도제양성 등 종단의 여러 과제가 잘 완수될 수는 없다고 본다. 신심으로 무장된 전문화된 재가불자들의 조직이 보다 활성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님들도 스님들만이 종단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재가불자들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할 것이다.

마침 전국 신도회를 대표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3월에 새 회장을 선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중앙신도회는 출범도 난산이었고 출범후에도 내홍이 계속돼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어 아쉬움을 주었다.

조계종의 새 집행부가 중앙신도회에도 자율성과 책임, 권한을 주어야 한다.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재가불자들은 초기 대승불교의 주역이었던 장로불교를 되새겨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역할에 충실하자. 그래야만 한국불교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라는 네 바퀴가 균형을 맞춰 잘 굴러갈 것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모두에게

조계종 올 예산 긴축편성

기획실, 208억여원 종회에 제출

조계종은 금년 예산을 2백8억6천여만으로 편성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8%가량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실제 살림살이의 규모인 일반회계 예산은 오히려 11.6%를 축소 편성해 종단 운영의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총무원 기획실이 21일부터 열리는 제138회 임시중앙종회에 제출할 예산 계획서는 종무행정 거의 전분야를 긴축 운영하는 방향에서 작성됐다. 절감 기조 속에 편성된 조계종 올 일반회계 예산은 작년 147억원에 비해 17억1천만원 가량 줄어 든 1백3십억3천만원 규모. 여기에 매년 적립되고 있는 시설특별회계예산(청사건립, 중앙승가대이전, 신도교무금적립 예산 등)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2백8억6천만원을 조금 웃돈다.

총무원 기획실은 "시설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이어서 사실상의 일반 지출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종단의 살림살이 규모인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난의 영향에 따른 긴축 편성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산을 토대로 조계종은 각 기관별로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도 수립했다.

▷총무부: 2천년 승려분한신고를 위한 준비예산과 보존문서 정비, 중앙신도회 보조금 등이 2억5천 6백만원 규모로 신규편성 됐다. 총무부는 올해동안 사찰의 관리감독 강화, 법인과 산하단체, 신도회 관리지원 강화, 직할교구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직할교구 특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재무부: 종무기관의 재무회계기능 체계화를 중점 업무로 꼽고 있다.

▷문화부: 문화부 전체 예산은 17%정도 감소 됐다. 이는 불미전이 시행되지 않는 해인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 불교문화재조사사업단 설립과 건축문화의 해 관련 사업, 중앙불교문화원 설립등 야심찬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사회부: IMF 영향에 따른 사회 구호사업은 계속 추진하지만 일회적인 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 승가종합복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종책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앙종회: 3억6천5백여만원선에서 예산을 편성 작년대비 8%감소 했다. 교육분과위원회의 교육기관 운영실태조사와 포교분과위원회의 해외포교실태조사 사업 등이 눈에 띈다.

▷교육원: 32억2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돼 지난해 보다 5.6%가 줄었다. 중점사업으로는 교육지원및 평가를 위한 교육전문인력 관리 육성등의 교육 종책 수립과 조계종사 연구, 불교고문헌 실태조사 등.

▷포교원: 15억7백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20%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 직장직능 신행단체 조직화와 포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이 중점 사업으로 채택됐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일 신년교례회를 갖고 화합을 통한 불교발전을 다짐했다.

"불교발전에 한뜻 모으자"

종단협 신년교례회…30일 신년 사업계획 수립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일 하림각에서 신년교례회를 갖고 불교발전을 위한 화합과 정진을 다짐했다. 신년교례회에는 조계, 태고, 관음, 진각종 등 20여 종단 대표가 참석했다.

종단협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회장으로 정식 추대하고 30일 총회를 갖기로 했다. 종단협은 총회에서 논의될 금년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일반사업은 각종전문위원회 활성화, 북한동포지원사업, 불교사회복지정보 지원센터 개설사업, 각종 구호사업, 경제살리기 운동전개, 친목도모, 각종지원 등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해외교류사업으로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 설치및 일본대표단 초청, 한국불교수행체험 중국대표단 초청, 식목사업(한중일 3국 각국서 실시)등이 계획되고 있다.

임연태 기자

'종회의원 자격상실 확인' 소송

정화회의, 13일

정화개혁회의는 13일 월하스님과 정영스님(정화개혁회의 총무원장)을 원고로 중앙종회의원 81명이 98년11월14일자로 자격이 상실됐다는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정화개혁회의는 이에 앞서 9일 월하·정영·벽암스님 3인으로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청구소송을 냈으나 벽암스님이 법원에 원고가 아니라는 진정서를 냄에따라 13일 이 소송을 취하했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소송과 무관 이름 삭제" 벽암스님 서울지법에 진정

원로회의 부의장 벽암스님(신원사 조실)은 12일 서울지법에 진정서를 내고 정화개혁회의가 9일자로 소송한 종회의원 자격상실 확인소송과 관련해 "본인의 의사 없이 진행됐고,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 의사가 없으므로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님은 또 진정서에서 "본인은 지난해 12월5일 월하종정스님께 사임서를 이미 제출한바 있으며 신문지상에 공표도 하였다"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금강호법단 10일 '해단'

조계종 금강호법단이 10일 오후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작년 12월 15일 결성됐던 금강호법단은 이날 해단식에서 "불교의 새로운 터전을 닦아 중생의 복전이 되자"는 내용의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총단장 세영스님(중앙종회의원)과 각교구 지단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임연태 기자



문화부장관, 고산스님 예방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14일 오후 3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 "새롭게 태어나려는 조계종의 노력에 정부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산스님은 "민족정신 개발에 불교와 정부가 함께 나서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 가려는 불자와 국민의 노력이 절실할 수록 나라와 세계는 평안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종단개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자"

재가연대 전국순회 토론회

2월 공식 창립을 앞둔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가 8일과 9일 부산과 대구에서 진행한 지역순회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조계종의 지속적인 개혁에 재가불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번 조계종 사태에 재가불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참회와 자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부산불교청년연합회, 부산광역시신도회, 불심홍법원 등 부산지역 재가단체 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지역토론회에서 성재도부산불교교육원장은 "자신이 다니는 사찰과 스님에 대한 공경심은 있지만 종단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도 이번 사태의 한 요인이다"면서 "사찰신도회와 불교단체 등도 종단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나눔실천회 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재가단체 간부 30여명이 참석한 대구지역 토론회에서는 "대구지역 단체들의 독자적인 토론회를 통해 조계종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판단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가연대는 16일 대전에서 지역순회토론회를 열었으며, 29일에는 전주에서 30일에는 광주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정화회의 해체까지 활동유지"

범불교연대회의

종단 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연대회의는 10일 제3차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 결의사항인 정화개혁회의 해체와 조계종사태 주동자들의 중징계, 조계사의 완전 정상화 때까지 당분간 활동을 유지키로 결의했다.

연대회는 이후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가칭 새로운 사부대중 공동체운동 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 전개해 나가는 한편 연대회의의 개인 참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은자 기자

승가대 이사장에 고산스님

중앙승가대학은 12일 이사회을 열고, 월주스님 후임 이사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사회는 총장 지하스님의 사퇴서도 수리했다.

이은자 기자

성 명 서

정부는 불교탄압 및 훼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실로 수많은 정부의 종교편향정책과 이교도들의 훼불사건이 수시로 자행되어 왔다. 서울 본원정사 및 삼성암, 화계사, 범종사등 방화사건 영주 관음사 및 제주도 천불상등 훼불사건 이승만대통령의 대통령령발동, 및 군경이 사찰경내에 난입하였던 10.27법란 및 조계사사건등의 종교 편향정책이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화계사 관세음보살상 파괴 및 광덕사 천불전 전소사건이 발생 하였는데 그중에서 화계사 관세음보살상 파괴는 국가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중견간부직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강북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은 불기 2542년 12월 31일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참된 자유민주 정의복지사회가 이루어 질때까지 호법을 위하여 지혜롭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을 굳게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1. 대통령은 종교편향정책 및 불교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제까지 자행된 수많은 불교탄압 및 훼불정책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답변 및 대책을 강구하라.

2. 정부는 이교도들을 사주한 사찰방화와 불상파괴의 훼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민족을 멸망시킬 동족상쟁의 종교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말인가? 이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자멸행위는 세계평화를 가져와야할 종교가 전쟁의 원인되어 모두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

3. 우리는 정부관계부처장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행한 훼불행위의 그 책임을 묻는다.

유감스럽게도 국가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간부직원에 의하여 자행되어진 화계사 관음석불상 파괴행위자는 엄벌에 처함은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사법처리한 후 관계부처에서는 원상복구하고 사과하라.

4. 앞으로 국립공원은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모색하라.

위 항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강북불교사암연합회 및 전불교도는 총 궐기하여 이 목적이 관철될때까지 매진할 것이며 동 회는 국립공원이 불교탄압을 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여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해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불기 2543년 1월 15일

강북구 불교사암 연합회 회장 차 동 광 (도선사)

고 문 **정심사** 지원, 고 문 **보광사** 정일, 고 문 **운가사** 수혜, 자 문 **화계사** 성광, 자 문 **삼성암** 법보, 자 문 **본원정사** 원성, 부회장 **무량사** 무공, 부회장 **소림정사** 흉조, 총 무 **서원사** 서진, 총 무 **서원사** 행진, 감 사 **성도원** 금산, 위 원 **법종사** 동훈, 위 원 **보승사** 혜정, 위원 **용덕사** 경원, 위 원 **법륜사** 법성, 위 원 **광명사** 종준, 위 원 **보성사** 혜일, 위 원 **송주사** 확철, 위 원 **오봉정사** 용수, 위 원 **향운사** 법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안될일 없죠"

"축하를 하기 보다는 위로를 해 주세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법회 이후 쉴 틈 없는 일정으로 종무에 임하고 있는 고산스님은 "취임을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이렇게 받았다. 스님은 새벽예불과 참선, 염불지송, 대중공양 등 산사에서의 수행 자세를 총무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며 종무에 몰두하고 있다. 워낙 바쁘게 짜여진 일정과 아직 서울 공기에 덜 익숙한 탓에 입술까지 부르텄지만 방문객을 일일이 접견하고 맑은 법담도 들려준다. 새롭게 출발한 제29대 조계종 집행부. "조계종에 대한 국민과 불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고산스님의 각오다.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고산스님

대담: 최정희 편집국장



- 취임사에서 교단의 원만화합 실현과 청정승가 구현, 원융한 종단 살림을 위해 삼보를 호지하고 시봉하는 총무원의 위상정립 등을 강조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수행자로서 살아 가는 길이란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길을 잘 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종단의 대소사 일들이 모두 잘 수습될 겁니다. 그러나 수행의 본질에서 이탈하면 해결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에서는 논강에 열중하고 율원에서는 율장을 잘 공부하고 선원에서는 견성을 위해 노력하고 포교사는 포교현장에서 역경사는 번역의 현장에서 각자의 일에 충실하는데서 불교위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중심의 개혁 보다 수행과 전법의 여건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행자생활을 6개월만 해도 사미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존경받는 수행자의 위상을 갖추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살피는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3년 정도 행자생활을 한 뒤에 사미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 분야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보다 전문화할 수 있는 재교육과 연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사찰 운영의 혁신도 중요한 과제로 내 놓으셨는데요.

▲신라시대의 불교는 통일불교였고 고려시대에는 호국불교, 조선시대에는 구국불교였습니다. 현대사회의 불교는 실천불교 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과 둘 아니게 실천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사찰이 해내기 위한 운영의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찰 운영에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재가신도 참여 문제와 재정 투명화를 위한 사찰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원로 중진스님, 중앙종회등과 의논하겠습니다. 먼저 조계사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종단의 본산이 먼저 잘 하면 지방의 사찰들도 다 잘 할 것입니다.

- 스님께서는 포교불모지에 여러 사찰을 세워 포교의 시범을 보이셨는데요. 포교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3년전 부천 신앙촌 뒤에 석왕사를 세웠습니다. 부천은 신흥종교를 비롯한 각 종교의 본부가 밀집된 곳인데 거기서부터 포교가 시작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곳이든 중생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포교현장입니다. 유치원, 양로원, 초중등학교 등을 꾸준히 세워 삶의 현장에서 포교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법회조직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불교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교병원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역경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나 혼자 다 하겠다면 그건 오발탄이 되고 말겠지요. 차차 구상하고 검토하며 원로 중진 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 스님의 출가인연이 궁금합니다.

▲출가인연이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에 입산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인연보다 중요한 것은 출가를 해서 견성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목표를 올곧게 세우는 일입니다. 위로 법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행을 잘 닦아 나가는 것이 출가의 인연이고 목표일 뿐입니다.

- 반백년 이상 수행의 길을 걸으시면서 잊지 못할 스승과의 인연 그리고 가르침, 수행체험이 많으실텐데요.

▲은사스님은 동산스님입니다. 동산스님은 일생을 두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보이신 분입니다. 새벽 2시 30분에 기침하시고 세수와 염불지송을 하셨지요. 예불에는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으셨고 대중공양에도 그랬습니다. 어쩌다 편찮으셔도 대중공양에 참석해서 빈 바리대를 놓고 물만 조금 받아 마신 적도 더러 있었습니다. 늘 여러번 생각을 한 후에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스승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법당에서 108배를 하고, 예불 모시고, 원각경 보안장과 관세음보살 보문품, 발원문 등을 지송하고, 참선을 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계은사이신 석암스님께서는 "항상 남에게 속지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뿐아니라 나에게도 속지 않는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당대의 대강사셨던 고봉스님께서 나를 강사로 만드셨어요. 고봉스님은 늘 "남의 허물을 보기전에 내 허물을 먼저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귀하게 간직하는 가르침입니다. 1965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나는 청암사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초여름 어느날 참선을 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들어와 시 한편을 읊었습니다.

'견문여허공(見聞如虛空)이요 각지담여수(覺知湛如水)라 담연허공중(湛然虛空中)에 즉견본래인(卽見本來人)이로다.' 보고듣는 것은 허공과 같고 느껴 아는 것은 담담하여 흐르는 물 같다. 담담하고 허공과 같은 그 속에 내가 본래인을 보았도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만히 앉아서 미국의 한 도시가 눈에 확연히 보이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뉴욕이었어요. 또 일본, 부산, 대구의 광경도 눈에 드러났습니다. 청암사 아래 길로 한 노보살님이 머리에 공양물을 이고 오는 것이 보여서 한 스님을 보내 모시고 오게 하기도 했어요. 참 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고봉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님 저 견성했으니 인가해 주십이오." "그래, 경계를 일러봐라." 그래서 시를 읊고 눈에 무엇이든 보인다고 말했더니 "더 공부해라"라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또 정진하고 정진하다가 통도사 경봉스님을 찾아가 여쭈었더니 역시 "더 공부해라. 그건 식광경계(아뢰야식이 밝은 상태)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더군요. 내가 너무 성급하다는 걸 알고 계속 정진했습니다. 포교사로 활동도하고 조계사 주지소임도 보고 그러던 어느해 쌍계사에서 참선을 하다가 또 문득 마음이 열려 한 구절이 터져 나왔습니다.

'산하대지(山河大地)는 비로체(毘盧體)요 초목합운(草木合雲)은 석가행(釋迦行)이라 일월성숙(日月星宿)은 제불안(諸佛眼)이요 쌍계유수(雙溪流水)는 고산심(孤山心)이라' 산하대지가 모두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고 초목과 구름어우러 진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이라. 해와 달이 모두 부처님의 눈이고 쌍계사 계곡 흐르는 물은 고산의 마음이더라. 또 한번 기쁨의 춤을 추게 됐습니다. 경봉스님께 달려가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진척됐다"라 하시더군요.

쌍계사에는 육조존상을 모신 금당이 있고 그 동서로 각각 선실이 있는데 쌍계사 주지하면서 10년만에 그 두 선실을 복원했습니다. 어느해 서방장 선실에서 참선을 하다가 또 한번 한소식이 터졌습니다.

'심행(心行)은 일장몽(一場夢)이요 식심(息心)은 즉시교(卽是覺)라 몽교일여(夢覺一如) 중(中)에 심광(心光)이 조대천(照大千)이라.' (覺자는 여기서 '잠깰 교'로 읽는다)마음의 작용은 한바탕 꿈이요 이 마음을 쉬는 것은 꿈을 깬 것이다. 잠깨고 꿈꾸는 것이 한결 같은 가운데 이 마음의 광명이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도다.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나는 체질이 알레르기성이라 마취약 투입이 곤란합니다. 한번은 목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나 혼자 관음지송을 하며 마음을 보타락가산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의사는 감쪽같이 수술을 했고 나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 스님의 수행과 비교할 때 요즘의 행자 또는 젊은 스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앞에서도 말했듯 행자 교육기간은 좀 연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젊은 스님들도 각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본분사를 최대한 지켜 주길 바랍니다.

-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불교계의 복지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노후복지 문제도 적잖은 과제인데요.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은 그 자체가 중요한 포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지사업의 양과 질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스님들이 기도정진하며 노후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겠지요.

-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어떤 자세로 맞아야 하고 종단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1세기가 온다고 해서 무엇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종불이(始終不二)라는 말이 있듯 시간의 흐름은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다만 사회환경이 변화해가는 것이니 거기에 맞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적용하고 또 올곧게 따라 살면 그게 원융무애의 삶입니다.

- 이관의 살림살이와 사판의 살림살이는 차별이 있습니까.

▲불이(不二).

정리=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교육 포교 역경 복지등 할일 산적 원로중진스님 의견 수용 최선의 결과 도출"

- 1934년 1월 27일 경남 울주 生
- 45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은사로 득도
- 48년 사미계 수지
- 56년 비구계 수지
- 61년 대덕 법계품수, 직지사 강원대교과 졸업
- 72년 조계사 주지
- 74년 제4대 중앙종회의원
- 74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75년 은해사 주지
- 75년 총무원 총무부장
- 76년 부천 석왕사 창건
- 78년 제5대 중앙종회의원
- 79년 쌍계사 조실에 추대
- 94년 조계종 초대호계원장
- 95년 동국학원 이사
- 범어사, 해인사 등서 18안거성만
- 청암사, 범어사 강사 역임

동산·고봉·석암스님 등 스승 본받으려 노력
행자기간 조절·재정투명화·재교육에 역점

해·태·상·사·(주)

그린홈 매트

신년맞이 큰 세일 40%

국내 굴지의 수출 선도기업 해태상사(주)가 불자님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건강제품.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돌침대의 건강효과와 침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첨단 맥반석 코팅 방법으로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 다섯가지 장점

♣ 온화한 온열감
- 34M 특수 카본열선에서 제공하는 찜질효과는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 양질의 원적외선 방사
- 원적외선 방사율이 가장 우수한 천연 맥반석만 사용합니다.
- 천연 맥반석을 무공해 돌침대 형태의 특수 코팅 공법으로 제조하여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하십시요.
- 원적외선은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유해 전자파 차단
- 100% 동성분의 동직물로 전자파를 차단하고 조절기로 전자파를 뽑아내 유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합니다.
- 부모님, 임산부, 아기까지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편안한 건강매트
- 국내에서 가장 크고 두텁게 제작하여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합니다.(200×140×50, 2인용)
-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해 제품이 산뜻합니다.

♣ 경제성
-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신비의 약돌 맥반석을 사용하여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료가 매우적게 드는 경제적인 건강매트입니다.

사찰을 통한 단체구입 주문 (5장이상)을 받습니다.

- 단체 구입시 샘플을 원하시면 샘플을 보내 드립니다.
- 건강매트 수익금 중 일부는 불교 포교기금(노숙자 지원, 결식아동지원 등)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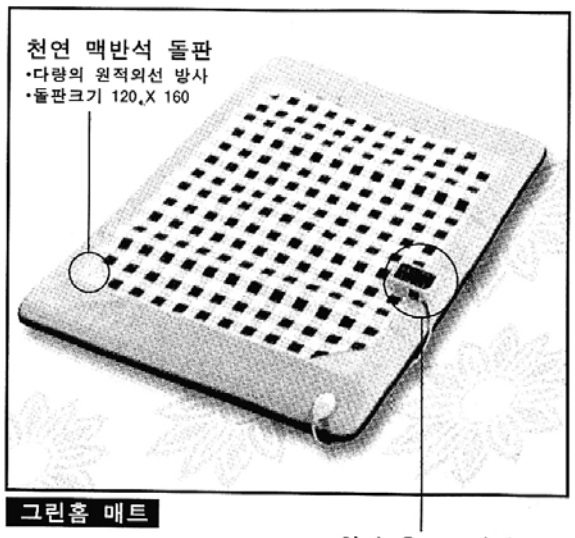
◐ 구입문의: 몰.부다피아 쇼핑몰 02)732-1522

◐ 특판가격: ~~₩660,000~~ ₩398,000

· 사용중 제품에 불만이 있으시면 1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합니다.
· A/S기간:1년 TEL. 02)613-8098

해태상사(주) 그린홈매트

제조원 : (주) MCI



교차로

부산교사불자회에서 법문



보성 송광사 조실은 19일 부산교사불자회 주최로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열린 제1회 대선사 초청특별대법회에서 법문했다.

한일 청소년 워크숍 참석



혜성 청담학원 명예이사장은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부사학원 고등학교 수련관에서 열리는 한일 청소년 친선 교류 워크숍에 참석한다.

제2 건국위원에



동광 도선사 주지는 8일 정부 제2 건국 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연꽃마을 신년 하례식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은 12일 오후 3시 서울 삼전동 연꽃마을 법당에서 신년하례 및 각 시절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청소년 문화의집 개소

범산 양정청소년회관 원장은 19일 회관 3층에 마련된 청소년 문화의집 개소식을 가졌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신년하례



심산 통도사부산포교원 주지는 17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99년 신임 신행단체장, 신도들과 함께 신년하례법회를 가졌다.

BBS에 1억원 출연



회정 진각종 통리원 총무부장은 14일 이사출연금 가운데 1억원을 불교방송 성낙승사장에게 전달했다.

총회서 문화강좌 개설 논의



송묵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장은 18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만해법당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문화강좌 개설등을 논의했다.

충북 교구종무원장 취임



성수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장은 15일 종무원에서 취임법회를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상록수사랑회 명예 이사장에

고은 시인은 14일 경기도 안산시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상록수문화사랑회 창립총회에서 명예이사장에 취임했다.

'헝가리의 동양문화' 영상 강연

김종규 민학회 회장(삼성출판사 회장)은 16일 오후 3시 한국출판문화회관에서 민학회 정기총회겸 '헝가리문화에서 찾아 본 동양'을 주제로 슬라이드 강연회를 갖는다.

중국 의상대사 행적 답사



이준 건국대 공업화학과 교수(교불련 부회장)는 15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 의상대사가 수행했던 발자취를 조사 연구한다.

공주 영상정보대 교수에



김태곤 불자가수는 공주영상정보대학에 신설되는 대중음악과에 교수로 초빙돼 3월부터 강의를 맡는다.

거조암 참배 철야나한기도

이영자 신수회 회장은 23일~24일 99년 첫 기도모임으로 정혜결사의 발상지이며 대표적인 나한도량인 거조암을 참배, 철야나한기도를 한다.

위덕대 체육특기자 합격



이동국 98프로축구 신인왕 선수가 13일 경주 위덕대 특차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최종 합격했다. 현재 해외전지훈련중인 이선수는 12일 아버지 길남씨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대학 진학의사를 밝혔다.

"동문화합 역점"

중앙승가대 동문회장 **원종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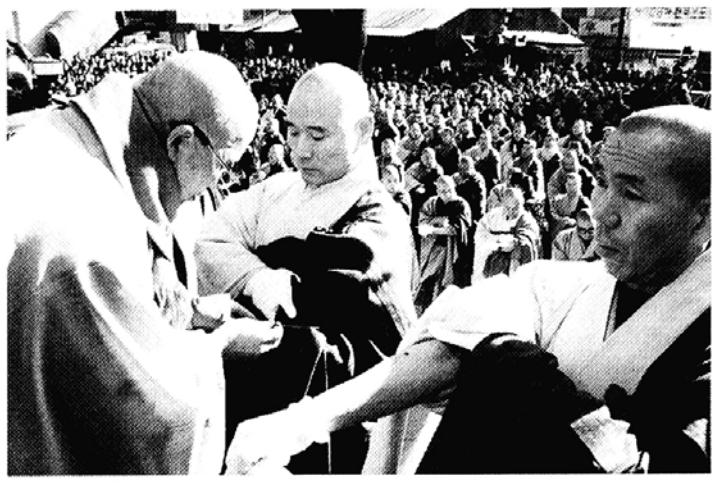
"여러 선배, 후배스님들과 힘을 합쳐 종단과 학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일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운영회의에서 회장에 선출된 원종스님의 다짐이다.

전 회장 효종스님의 자진사퇴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스님은 31명 전원의 찬성으로 새 회장에 선출됐다.

스님은 "빠른 시일내에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동문회원간의 대화와 화합을 위한 기구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포학사의 원만한 완공과 학교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동문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종단화합' 위한 참회의 연비



Focus

"지극한 마음을 다해 부처님 전에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범불교연대회의는 10일 오후 1시 참회와 개혁 정진을 위한 제2차 범불교대회를 열고, 참회의 연비의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취임식을 앞두고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천5백여명의 스님과 불자가 참가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진언을 한목소리로 외며, 청정승가 화합종단 구현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발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재무행정 법규·조직 개혁을"

영담스님



"94년 종단개혁 이후로 급속하게 팽창된 종단의 예산규모에 비하여 이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아직도 수공업적인 형식을 크게 탈피하지 못한 것이 종단 재무행정의 현주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스님(석왕사주지)이 동국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청구 논문에서 조계종 재무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논문의 제목은 '대한불교조계종 재무행정체제의 발전방향-중앙종무기관의 예산관리체제를 중심으로'.

스님은 논문에서 종단 재무행정의 문제점으로 예산회계법이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해 종단조직의 특징과 장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재무행정 조직과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이를 토대로 스님이 내놓은 개선방안은 재무관련 법규의 재검토와 정비, 예산관련 조직과 관리체계의 강화, 예산운영방식의 개선, 재정의 공개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영담·지공스님 석사논문

"지장신앙은 사회복지 모델"

지공스님



"지장신앙은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을 갖춘 불교적인 사회복지사상이다".

대구 지장선원장 지공스님의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지장신앙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상〉은 지장신앙이 인간의 생활속에서 삶의 지침이 되고, 그들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근본이념과 유사한 상관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이 인간존중사상과 평등사상 및 국가책임사상이라면, 지장신앙의 기본사상은 자비사상과 중생구제의 본원사상 및 회향사상(자신의 공덕이나 재물, 능력을 중생에게 베푸는 것)으로 각각 일맥상통한다는 것. 스님은 지장신앙에 나타나는 불교사회복지사상으로 자비사상, 보시사상, 복전(福田)사상, 연기사상(사회를 共生共業의 장으로 보는), 생명존중사상, 보살사상, 보은사상, 공덕사상, 회향사상 등을 들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문화원건립 만등불사 동참을"

방한한 하와이 대원사 **도현스님**



하와이 대원사 한인문화원 건립과 관련 서울사무소(소장 나귀만)와 업무협의를 위한 12일 귀국한 도현스님(대원사 주지). 스님은 하와이 대원사 한인문화원 완공을 위해 올해 초파일무렵 만등불사를 봉행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하와이 대원사불사의 산증인인 나귀만(연화건축공예)씨와 한인문화원불사가 원만성취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도현스님은 "한인문화원 건립에 고국의 불자들이 화주가 돼 작은 정성으로 한 등(1만원)씩만 밝혀준다면 해외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불사동참을 당부했다.

만등불사 동참은 서울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02)733-7858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치병환자 심리치료 할터"

보훈병원 법당마련한 **지문스님**



"더 열심히 정진하여 부처님의 정법으로 환자들이 쾌유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보훈병원 법당개원 5주년을 맞아 69평의 법당을 마련한 지문스님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려운곳에 사회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은 당연했다"며 "그동안 도움주신 자원봉사 보살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간병인교육 실습차 보훈병원을 방문하여 94년 7월 10평의 간이법당을 마련한뒤 5년간 일주일에 두 번씩 직원불자회 법회와 환자를 위한 기도법회를 가져왔다.

스님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심리치료를 병행한 기도와 대화모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02)2225-0361
김원우 기자

"자비-사랑조화 종교화합 최선"

육군군종감 취임 **이치영**법사



"군종장교는 장병들에게 파사현정의 가르침을 전해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시키는 막중한 소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을 조화시켜 군장병들의 정신전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9일 임기 2년의 육군군종감으로 취임한 이치영법사는 군내 종교간 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법사님들이 긍지를 가지고 신나게 일하는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사의 군종감 취임은 불교에서는 김덕수법사에 이어 두 번째.

현재 해군군종감(강남석법사)도 불교에서 맡고 있다.

이치영 신임 육군군종감은 67년 진경스님을 은사로 마곡사에서 득도한 이후 74년 군법사로 입관, 사단 군종참모, 육군교육사령부 군종실장, 23대 군승단장을 역임했다.

법명은 마곡(麻谷).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유익한 포교프로그램 개발"

천불동 새회장 **이경재**씨



"천리안불교동호회를 통신포교에 앞서가는 사이버도량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천불동 시삽에 선출된 이경재씨(40, 간디학교교사).

이씨는 갈수록 컴퓨터 가상공간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재미있고, 실속있는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단순한 동호회가 아닌 사이버 도량으로서의 천불동의 정체성 다지에 힘쓰겠다는 이씨는 게시판 기능을 강화하고, 매월 1회 지역법회와 격월제의 전국모임도 성실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씨는 "천불동을 매개체로 일반인 포교에도 주력해 실상사에서 수계법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1999학년도 제8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 한국불교법사대학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란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며
일체중생 모두가 해탈의 대자유와
구경법신을 이루기 위해
불교 3보의 이상적 가치를 생활속에
구현하려고 마하연의 정법을
섭수정법하는 대승의 보살로서
불교 종교인의 신앙요건과 법사품수
의례의 과정을 여법히 갖춘
대승행자인 불교지도자임을 말합니다.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1월 5일~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3층)
☎ (02) 720-1836 · 737-5305
733-1959 · Fax : (02) 737-5305

전통있는 불교포교의 명문 학당

99년도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학 과	교육기간	교육일시	입학자격	특 전
제9기 포교사 과정	99.3.~ 2000. 3(1년)	매주 목, 금 오후 7시~9시	고졸이상의 남,여	수료생은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고시를 거쳐)
제11기 포교사과정 통신반		매월 강의테이프 16개 2날에 한번 출석강의		
제3기 경전연구과정	99.3~ 2001. 2(2년)	매주 수 오후 7시~9시	본교 포교사과정 수료한자 및 동등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본대학 학칙에 의거 자격증 수여
제13기 교리반	99.3~ 8(6개월)	매주 목,금 오후 2시~4시	불교를 알고 싶은 입문자	수료자는 포교사 과정에 우선 입학 할 수 있음
제5기 수화반		매주 목 오후 7시~9시	수화를 알고 싶은 남,여	수화 통역사 자격 시험에 추천

2. 교과목 및 강사

1) 포교사과정 및 통신반은 권위있는 교수진으로 대승경전, 불교사, 근본불교사상, 포교론, 불교미술, 불교사회복지, 불교의식 등을 체계적으로 쉽게 교수함
2) 경전연구과정은 대강백 각성스님을 모시고 육조단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원전을 강의함.
3) 교리반은 입문자를 위하여 불교사상을 쉽게 교수함.
4) 수화반은 농아인을 위한 손발이 되도록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기능을 습득케 함.

3. 원서접수 및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첨부. **2월 27일까지 접수함.**
▶기타 상세한 것은 본교 교학처로 문의 바람(신입생 모집 요강 참조)

4. 전형방법

서류 심사

부산불교교육대학 614-031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390-34 8/2 화엄회관 2층(구진구청 뒷편)
전화 051)818-8659, 807-7351

교사불자회 신심 '재무장'

전국교사련등 수련회 · 큰스님초청법회 열어

겨울방학을 맞아 교사불자들이 수련회와 큰스님 초청법회로 신심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교사의 신행교육은 학생회 창립과 청소년포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16일부터 18일까지 1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 백양사에서 겨울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회는 토진스님의 '좌선의' 이영일선생의 '깨달음의 이정표' 강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사불자연합회는 신행발표회에 이어 회향식에서 창립1주년 기념법회도 함께 봉행했다.

임완숙회장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참선으로 신심을 증진하고 참나를 찾는데 주력했으며 암자순례로 마음을 추스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천태종 교원불자회(회장 박연생)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삼광사에서 1백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제1회 동계수련법회를 가졌다.

박연생회장은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각 부문별 학생포교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불자들로 구성된 천태종 교원불자회는 매년 한차례 수련회를 개최키로 했다.



◇천태종 교원불자회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삼광사에서 제1회 동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부산교사불자회(회장 양원식)는 19일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을 초청하여 제1회 대선사초청법회를 갖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열리는 이번 법회는 관음사와 부산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가 후원하며 부산시내 전체교원을 초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보성스님(송광사 방장)의 법문을 비롯하여 관음사주지 지현스님의 법문과 발우공양 신행담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 천미희 기자 (wwkim@buddhapia.com)

활기 되찾는 직장직능단체

대경연등회 · 부산운불등 창립 잇달아

신년들어 직장·직능단체 창립이 줄을 잇고 있다. 경제한파로 어려웠던 98년 상황을 벗어나 올해는 직장 직능단체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아니냐는 반가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새정치국민회의 대구경북연등회가 창립되는 것을 비롯하여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부산지회, 대전 비룡산악회, 불국사운전불자회가 최근들어 창립했다.

대구경북연등회는 최근 준비모임을 갖고 준비위원장에 이용택 경주관관개발공사 사장을 위촉했다. 연등회 이상곤사무국장은 "대구경북연등회는 지역불교발전에 이바지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부산지회(회장 조흥인)도 10일 동명불원에서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상임법사에 장산스님 이사장에 김진석씨를 추대했다. 8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한 운불련 부산지회는 한국불교자원봉사회와 무료급식활동을 펼치고 교리공부를 통한 개인신행증진에 노력키로 했다.

또 대전 비룡산악회가 10일 창립법회를 갖고 출범했다. 대전시 용전동 용전주유소에 사무실을 마련한 비룡산악회는 초대회장에 이제상씨를 선출했다.

이어 최근 경주 불국사운전불자회(회장 안종대)도 경주 불교사회교육원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안종대회장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불법홍포에 앞장서고 경주를 찾는 불자들의 친절한 손과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보훈병원법당 점안법회

보훈병원 법당(상임법사 지문) 창립 5주년기념 및 점안법회가 14일 보훈병원내 종합재활센터 1층에서 개최됐다.

광주운불 총재 천운스님 ·

광주불교운전자회(회장 김용문)는 13일 향림사에서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운스님 총재추대식을 개최했다.

우리 모임에선

이날 추대식에서 천운스님은 "운전불자회원은 부처님 법의 포교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가정에서도 부부화목과 효의 실천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정법회장 류지순씨

대구개인택시정법회 회장 이취임법회가 14일 정법회 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8대 회장에 류지순씨가 취임했다.

불교산악인련 신년하례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는 22일 오후2시 장충동 대현실업 회의실에서 신년하례식을 연다.

이날 신년하례식에서는 99년 사단법인 설립계획과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달기 행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무욕은 대욕인가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③

■10월20일 선방의 생태

선방의 구성원은 극히 복합적이다. 실제적인 이질성과 내용적인 다양성이 매우 뚜렷하다.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16세의 홍안으로부터 고희의 노안(老顔)에까지 이른다. 세대적으로 격(隔)이 3대에 이른다. 물론 세수와 법랍(스님이 된 뒤로부터 치는 나이)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다음에 출신 고장을 살펴보면 8도 출신들이 제각기 제고장의 독특한 방언을 잊지 않고 수구초심(首丘初心: 고향을 잊지 않음)에 가끔 젖는다. 대부분의 북방 출신들은 노·장년층이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사회적인 학력에서는 교문을 밟아보지 못했는가 하면, 대학원 출신까지 있다. 불교적인 학력(강원)에서는 〈초발심자경문〉도 이수치 않았는가 하면 대교(大敎)를 마치고 경장(經藏)에 통달한 대가도 있다.

다음으로 출신 문벌로 보면 재상가(宰相家)의 자제가 있는가 하면 비복(婢僕)의 자제도 있다. 물론 선방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도 문제될 바 아니지만 그래도 견성하지 못한 중생들인지라 유유상종은 어쩔수 없어 휴게시간에는 끼리끼리 자리를 같이 함을 볼 수 있다. 내분이나 갈등이 우려되지만 출가인들이어서 그 점은 오히려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출신성분이 다른 모임이긴 하지만 전체가 무시되고 개인이 위주가 된다는 점이다. 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처음도 자아(自我)요, 마지막도 자아다. 수단도 자아요, 목적도 자아다. 견성하지 못하고서 대아(大我)를 말함은 미망이요, 위선일 뿐이다.

철저한 자기본위의 생활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극히 비정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비정한 자기본위의 생활에 틈이 생기거나 흠결이 생기면 수도란 끝장을 알리면서 선객은 태타(怠惰)에 사로잡힌 무위도식배가 되고 만다. 자기자신에게 철저하게 비정할수록 견성의 길은 열려지는 것이다. 전후 좌우 상고하찰(上顧下察)해 보아도 견성은 끝내 혼돈된 자아로부터 출발하여 조화된 자아에서 멈춰질 수밖에 없다. 견성은 끝내 자아의 분방한 연역(演繹)에서 적료(寂寥)한 자아로 귀납되어야 한다. 비정속에서 비정을 씹으면서도 끝내 비정을 낳지 않으려는 몸부림, 생명을 걸고 생명을 찾으려는 비정한 영혼의 편력(모험)이 바로 선객들의 상태다.

진실로 이타(利他)적이기 위해서는 진실로 이기적이어야 할 뿐이다. 모순의 극한에는 조화가 있기 때문일까.

■10월25일 선방의 규범

선방에 전래되는 생활규범이 있으니 그것은 두량 족난 복팔분(頭涼 足煖 腹八分: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배는 滿腹에서 2분이 모자라는 8분)이다. 의식주의 간소



그림 · 이준석

자신에게 비정할수록 견성길 열려
선객에게 밥·옷·잠 '3부족' 불문율

름지기 '삼부족(三不足)'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있다. 식부족의부족 수부족(食不足 衣不足 睡不足)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추태는 갖가지 욕망의 추구에서 비롯되는데 욕망에서 해방은 되지 못했으나 외면만이라도 하고 있다는것 때문에 세속의 70노파가 산문의 홍안납자(紅顔衲子)에게 먼저 합장하고 고개 숙이는가 보다.

그러나 잘 따지고 보면 납자는 철저하게 욕망의 포로가 되어 전전긍긍한다. 세속인들이야 감히 엄두도 못낼뿐더러 생사문제까지 의탁해버린 부처가 되겠다는 대욕(大慾)에 사로잡혀 심산유곡을 배회하면서 면벽불(面壁佛)이 되어 스스로가 정신과 육체에서 고혈(膏血)을 착취하는 고행을 자행하는 것이다. 무욕(無慾)은 대욕(大慾)때문일까.

선객은 스스로가 인간은 끝내 견성하지 않으면 안될 고집(苦集)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고(苦)의 땅 위에 고의 집을 짓고 고로써 울타리를 치고 고의 옷을 입고 고를 먹고 고의 멍에를 쓰고 고에 포용된 채 고의 조임을 받아가면서도 고를 넘어서려는 의지만을 붙들고 살아간다. 만약 이 의지를 놓친다면 그때는 생의 모독자가 되고 배반자가 된채 암흑의 종말을 고할 뿐 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운명적으로 붙들 수 밖에 없다.

선객은 숙명의 소산이 아니라 운명의 소조(所造)이다. 숙명은 자기 이전에 던져진 의지와 주어진 질서여서 생래적으로 어쩔수 없는 선천적인 사실이지만 운명은 자기자신의 의지와 자유로이 선택한 후천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숙명은 필연이지만 운명은 당위요, 숙명이 불변이라면 운명은 가변이요, 숙명이 한계성이라면 운명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내가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고 거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숙명의 소산이다. 그러나 내가 자라서 갑부가 된 것은 운명의 소조이다. 내가 내 품속을 기어다니는 이나 벼룩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숙명의 소치이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불교에 귀의하고 정진하여 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운명의 소이에서다.

현재의 나는 숙명의 객체이지만 운명의 주체이다. 숙명은 자기 부재(不在)의 과거가 관장했지만 운명은 자기 실재(實在)의 현재가 그리고 자신이 관장하는 것이어서 운명을 창조하고 개조할 수 있는 소지는 운명(殞命) 직전까지 무한히 열려져 있다. 숙명의 필연성을 인식하면 운명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된다.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숙명적인 것을 피하려고 괴로와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며 운명적인 것은 붙잡고 사랑해야 할 뿐이다. 고집(苦集)의 표상같은 누더기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선객이야 말로 견성의 문턱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끝내 운명은 타기될 것이 아니라 파지(把持)되어야 함은 선객의 금욕생활이 극한에 이를수록 절감되는 상황때문이다.

선방에는 이불이 없다. 좌선할 때 깔고 앉는 방석으로 발만 덮고 잠을 잔다. 그래서 선객의 요품(要品)중의 하나가 바로 방석이다. 이주할 때에는 바랑에 넣어가지고 다닌다.

선방의 하루 급식량은 주식이 일인당 세홉이다. 아침에는 조죽(朝粥)이라 하여 죽을 먹고, 점심에는 오공(午供)이라 하여 쌀밥을 먹고, 저녁에는 약석(藥石)이라 하여 잡곡밥을 약간 먹는다. 부식은 채소류가 위주고 가끔 특식으로 콩을 원료로 한 두부와 김, 미역이 보름달을 보듯 맛볼 수 있다.

선객이 일년에 소비하는 물적인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주식비: 3홉×365일= 1,095홉
1,095홉×15원= 16,425원
*부식 및 잡곡은 자급자족
*피복비: 승복 광목 20마×50원= 1,000원
내복 1,500원
신발 고무신 2족×120원= 240원

합계 2만원이면 족하다. 그래서 선객은 모한 생활을 표현한 극치이다.

1999년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에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로 지정이 되어 불교 교역자의 의전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각 종단과 관계없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실기 강의

학 년	강의내용	모집인원	요일/시간	교수진
1 학년	상주권공과	50명	월,수 오후 3~5시	오 송강 스님
2 학년	각배과	50명	목 오후 3~5시	조 인각 스님
3 학년	영산과	50명	금 오후 3~5시	박 송암 큰스님

※특수과 : 목탁, 태징, 요령, 북치는법, 바라, 나비춤, 법고춤등
단, 상주권공과 이상을 수료한 자 (화요일 오후 3~5시 / 교수:한동희스님)

◈이론 강의 : 불교의식이론, 치문(화요일 오후 1시~2시 30분/교수 : 심만준 스님)

2. 응시자격 :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1)입학원서 (2)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4)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2월 5일 ~ 3월 2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범음대학 교무처 (02)392-3234(범음대 직통) (02)392-3007, 3008
6. 합격자 발표 : 1999년 3월 4일 발표 개별 통지
7. 입학일 : 1999년 3월 8일 오후 2시 (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 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 및 정회원 (전수생이상)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전화 392-3234(직통) / 392-3007, 3008 FAX 393-9450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ㅡ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이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일은 변호사가 검찰 법원 경찰 관계자들에게 알선 사례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전형적인 법조비리사건이다.

법조계의 오랜 비리관행과 그물망식으로 뻗어있는 비리구조는 우리의 법질서 의식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법조계가 오히려 가장 부패한 집단 중의 하나라는 사실 앞에서 어떤 국민이 법을 준수하고 법의 잣대를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다.

법은 마땅히 공정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도 바로 이런 이치다. 법과 관련한 경전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법(法) 준수

법답지 않은것 따르지 말라

▨다만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부디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온 나라 안에 법 아닌 것이 행하지 않게 하라. 〈유행경〉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아난다, 너는 밧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가지고 바른 일을 서로 의논하여 몸소 지킨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느냐. 밧지국의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한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밧지국 사람들이 법을 받들어 삼가해야 할 것을 알고 예의를 어기지 않는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이 일곱 가지 법을 실행한다면 어떠한 적도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유행경〉

▨대왕이시여, 왕 중의 왕을 전륜왕이라 합니다. 이 법왕의 통치는 칼과 몽둥이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법에 의지하여 덕을 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므로 모든 악으로부터 항복을 받습니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중아함경〉

▨많은 도리를 배웠어도 방일해서 바른 행위를 좇지 않는다면, 목동이 남의 소를 세는 것 같을 뿐이다. 〈출요경〉

▨수행해 먼저 자신을 바로잡은 다음에라야 남을 바로잡을 수 있다. 〈법구경〉

▨부처님께서 마투라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하여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으로서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호하고 살펴라.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물어본 뒤에 깊이 생각하여 당연히 행해야 할 것은 행하고, 버려야 할 것은 마땅히 버려야 하느니라. 또 나라의 옛법을 함부로 고치지 말라. 정법으로만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치우치거나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나라안에 법 아닌 것이 행해지지 못하게 하라. 〈장아함경〉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아사세왕이 부모를 해치고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임금이 정치와 교화를 바른 도리로서 하지 않으면 대신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이요, 대신들이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왕의 태자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태자가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신하와 관리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증일아함경〉

제 언

포교사제도 강화해야



김진홍
포교사
경찰포교회장

포교사라 함은 '포교를 담당하는 승려 및 재가자'를 말하며, 포교의 목적은 '불타의 교법을 널리 홍포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구현하여 불국토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출가 스님들은 수행정진, 종단과 사찰운영 및 포교를 겸하고 있어 포교에 대한 집중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어 재가 포교사의 필요성은 절실한 형편이다.

더욱이 전문화되고, 정예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각 분야의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재가불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포교사를 양성하고, 기존 포교사에 대한 연수교육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체제의 지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나서는 포교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독교와 비교해 보더라도 스님은 2만9천여명인데 비하여 목사는 10만여명으로 거의가 모두 선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스님들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경찰포교의 예를 든다면, 경승은 5백80여명인데 비하여 경목은 1천2백여명이고 또 그 지원세력인 교경협의회 회원 2천8백여명이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불교쪽은 그렇지 못하다. 어렵게 개설한 법당도 문이 닫혀 있는 곳도 있다.

또한 군법당은 육·해·공군 합쳐서 7백여동이나 군승은 1백17명밖에 안되어 포교사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허약하기 그지없는 청소년, 일반 직장, 교도소, 사회복지, 농어촌, 관광객 안내 등의 포교와 사찰 신도관리 등에 대하여도 포교사들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종단에서는 포교활동 강화를 위한 역량있는 포교사단 조직강화는 물론 포교사의 교육, 포교자료 및 정보자료의 적극 지원체제 유지로 명실공히 출·재가포교사가 양 축이 되어, 사회 구석구석 골고루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진리를 널리 홍포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이 앞당겨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조계종사태로 상처를 입은 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빠르게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님들까지 줄서기 문중보다 수행 우선

처음 강원에서 공부할 때는 새우깡도 먹지 못했다. 어쩌다 좋아하는 자장면이라도 먹으려면 고기를 빼고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전설이 되어버린 걸까.

조계종에 들어와 살다보니 문중이라는 현실속에서 돈많고 힘있는 은사를 모시고 살아야만 스님노릇하기 편안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놓고 할 수 있다.

선방에 방부들이려 해도 '줄'이 필요하고, 조그만 암자라도 얻어 살려면 결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이야말로 말법이요, 말법비구가 아니겠는가.

대승이 무엇인가. 고기먹고 술마시는 것이 대승인가. 대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것은 바로 위로는 보리도를 이루고 아래로는 중생을 보살피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스님들께 당부한다. "속가의 논리를 버리고 부처님의 계율대로 살아갑시다."

탄야〈스님, tanya@choillian.net〉

독자의 소리

'스님' 호칭 사회적 약속 스스로 존엄성 지켜야

가끔 일간신문 독자란에 스님 호칭에 대한 의견이 실린다. 스님은 존칭이니 '중' 또는 '승려'로 표기하거나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며, 사회적인 현상이다.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엔 존칭을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스님이 존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라고 부르니 일상화되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억지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발상은 자연스런 현상을 거스르는 것이다.

스님들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중'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나오는지 안타깝다. 불자들 스스로 불교와 스님들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혹 비관이 비난 일색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필요하다.

이진우〈서울 상계동〉

호텔서 교계 신년행사 과소비추방에 역행

각종 단체들의 신년모임이 연이어 열리는 시절이 왔다. 이름난 호텔과 음식점들이 북적일 때다. 물론 교계 단체들도 이 북적임에 한 몫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교계신문에 보도된 스님들의 신년하례식 사진을 보면서, '이래선 안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진에는 휘황찬란한 호텔 조명을 받은 스님의 가사가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 모습은 4·50년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며 수행 정진한 스님들의 모습과 크게 비교된다. 스님들의 도력이 높아 IMF조차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지금 나라와 가정의 살림살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계는 과소비를 추방하고 호화사치 풍조를 막기 위해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스님들은 그 실천의 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박윤경〈서울 관악구〉

다른사람 피해 없도록 돈요구 기치료사 고소

지난 해 12월 23일자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란에서, "기치료사라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영가의 병이라며 귀가 잘 들리게 해준다고 1백만원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줬습니다. 돈이 없어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라는 내용을 보았다.

내가 보기에 기치료사라는 사람은 분명 사기꾼인 것 같다. 따라서 그 기치료사를 고소하도록 권하고 싶다. 그 사람이 귀를 듣게 해줄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한다.

만약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기치료사는 계속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사기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봉사이고 자비정신의 실천이다.

조유순〈미국 뉴욕 거주〉

목탁소리

다시 기로에 선 '중신회'

정 성 운
〈취재 1부 차장대우〉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다시 관심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 새 회장 선출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회칙에 따라 3월이면 회장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당연히 대의원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 그러나 회장 선출만이 능사가 아니다.

97년 3월 임기 2년의 초대회장을 뽑으면서 출범한 중앙신도회가 '회장 사퇴' '회장직무대행 적법성 논란' 등 내홍의 아픔을 딛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느라,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느냐는 기로에 선 것이다.

중앙신도회가 출범하면서 교구본사와 말사 신도회 구성 등 조직사업에 역점을 두려 했으나, 송재건 당시 회장의 돌연한 사태와 이후 회장직무대행 적법성 논란으로 야기된 내홍을 겪으며 추진하지 못했다. 이사 임명에 총무원과 회장단의 의견이 맞지 않아 3개월이나 걸린 예도 있었다. 신도교무금을 중앙신도회 기금으로 써야 한다는 중앙신도회의 요구에 총무원이 거절하며 양측에 깊은 골이 패이기도 했다.

현재 선암사를 제외한 24개 교구본사마다 교구신도회장은 있다. 그러나 신도대중에 총의에 의해 선출된 곳은 없다. 주지스님의 입명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다보니 "1년에 몇차례 있는 사중행사에 얼굴내밀기 정도가 회장의 역할"이라는 말도 나온다. 말사 신도회 구성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종단에 등록된 신도단체도 회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으나, 중앙신도회에 참여한 신도단체는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새 회장 선출과 함께 중앙신도회의 뿌리인 사찰신도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또 각종 직장·직능단체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swjung@buddhapia.com)

현대불교 를 읽고

'한국불교 이것부터…' 시의적절한 캠페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시리즈에 관심이 많다. 50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매주 점검하겠다는 기획의도가 시의적절하다. 또 주제를 선정하며 사부대중을 참여시킴으로써 관심을 집중시킨 것도 좋았다.

13일자 '사찰재정 비공개'의 내용 가운데 "주지스님만이 사찰수입의 규모를 안다"는 한 스님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사찰재정이 공개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포교, 교육, 사회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다. 모든 일에는 돈이 뒤따른다. 돈이 모아지고, 모인 돈이 목적하는 사업에 쓰여져야 기대하는 성과를 바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좋은 기획임에도 지면이 너무 작아 불자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만큼 대안까지 제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재정운영 현황을 지적하고, 재정을 공개 운영하는 곳의 예를 들었다.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은 누구든 동의한다. 이제는 대안의 제시에 중점을 둬야 한다. 지면의 확대를 바란다. 오영근〈서울 사당3동〉

'화천장날엔 안굶는다' 자비 실천 감동 기사

'화천장날엔 안굶는다'는 기사를 읽었다. 밥 한끼 나누는 게 무슨 대수일까마는 말처럼 쉽지 않다. 장날마다 스님들이 노인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변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뜻이 있어도 1개 사찰 단위에서는 재정적으로 넉넉치 못하고, 일을 이끌 사람도 많지 않다. 각 지역의 사암연합회가 최소한 하나씩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올해는 실천해보자. 현대불교신문이 지방 곳곳의 스님들 소식을 전하는 것도 반가웠다. 김상명〈강원도 속초〉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 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4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남수영(동국대교수) ·계환스님(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휘옥(동국대교수) ·박 종(불성개발연구원장) ·권탄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암도스님(교육원장) ·권기종(동국대교수) ·혜원스님(동국대교수) ·윤열수(동국대교수)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최봉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8년 12월 15일~ 99년 2월 5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9년 2월 6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한국불교교육대학 신입생 편입생모집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 자신과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본 대학은 초 종단적인 7년제 종교교육대학으로 20여년간 수백여명
포교사 법사와 승려를 양성한 실력과 전통으로 다음과 같이 학생을 모집 합니다.

● 모 집 과 정 ●

과 정	수업년한	졸 업 후 특 징
대 학	2 개년	포교사 품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추천
대 학 원	2 개년	법사 품수, 출가 희망자는 대학과 연관된 종단 승려로 득도
삼장법사	2 개년	삼장교법사 품수, 국내외 포교원 사암등 개설시 주지, 원장으로 임명

· 본 대학 교양대학과정은 6개월코스로 수시입학 접수함.

● 입학자격과 절차 ●

해당과정에 실력 있는 불자는 성별 나이 구분없이 누구나 입학 할 수 있음.
편입생은 타 불교대학에서 해당 년한을 수학한 자.
1) 본대학 소정 입학원서 및 심사카드(사진 4매 첨부) 각 1통.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편입생은 타 불교대학 수학 증명서 1통
입학절차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가까운 분은 본 대학에 직접 접수가능

● 원서접수와 교육제도 ●

· 원서접수는 1999년 2월 10일까지. 서류 심사후 합격자는개별통지 함.
· 1학기(6개월)당 교재비 12만원 학비 부담. 특강, 스쿨링 통신 교재 교육.
· 지역 학생을 위해 서울 대구 부산 등 3개 분교에서 특강 교육을 함.
· 부산분교 석림정사에서 매월 2째 4째 일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정기적으로 특강이 있음으로 입학전이라도 수시 특강 받을 수 있음.

한국불교교육대학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66-146 전화 02) 821-0541,2 FAX 02)821-0543
부산분교, 釋林精舍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1동 705번지 전화 051) 581-4111,582-4110
■ 석림정사 오는길 ▶ 부곡시장 하차→ 부곡1동 사무소앞→ 부곡여중앞→ 보덕사뒤

절터 123곳
불상 87구
석탑 71기
⋮

경주남산 문화재 465건중 42건만 관리

국립문화재연구소 첫 조사

순례길 정비·성보안내판 설치 급선무

경주 남산에는 모두 1백23개소의 절터를 비롯해 87구의 불상, 71기의 석탑 등 총 4백65건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정문화재 42건만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나머지 4백20여건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남산 문화재 순례길을 5개로 나눠 정비할 것과 자세한 성보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한 경주남산의 불교유적에 대한 종합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최근 발간된 〈경주남산의 불교유적Ⅲ-동남산 사지조사보고서〉는 〈경주남산의 불교유적Ⅰ-탑 및 탑재조사보고서〉(92년),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Ⅱ-서남산 사지조사보고서〉(97년)와 함께 광복이후 처음으로 간행된 경주남산 불적에 대한 종합 조사보고서의 완결판. 남산에 산재해 있는 절터와 불상 석탑 등을 총괄적으로 다룬 이 보고서 세 편이 완결됨으로써 남산 불적의 연구 보존 및 복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남산의 불교유적Ⅲ〉은 87년부터 89년까지 3년에 걸쳐 정밀조사된 경주 동남산 소재 절터 38개소와 서남산 불교유적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았던 서남산 북쪽 절터 6개소를 포함한 21개 계곡 44개 절터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산에 남아있는 절터는 서남산에 비해 적지만 부처골의 감실여래좌상, 미륵골의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봉화골의 칠불암 등 남산을 대표하는 불상들이 있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보고서는 동남산지역 조사내용 외에도 불상, 탑재 및 절터에서 출토된 와전류 등 절터관련 유물에 대한 설명과 절터의 내력을 알려주는 민간설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각 절터와 건물 탑 등에 대한 도면과 도판을 수록하고 있는데다가 석탑 추정복원도도 싣고 있어 향후 복원정비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조유전문화재연구소장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보고 남산이 방치·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자료가 단위 문화재의 보수·정비는 물론 향후 남산 보존의 기본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경주 남산의 불적은 123개소의 절터를 비롯 총 465건에 이르나 지정문화재 42건만이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주 남산의 탑골 제1사지 사방불암.


◇김익홍


◇박찬수


◇허길룡


◇전연호


◇박현수


◇김광열

불자미술인 6명 인천 가톨릭대서 강의

불교전통 미술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해 온 6명의 장인들이 대학강단에 서게돼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3월부터 인천 가톨릭대학(총장 최기복) 전통종교미술학과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게 된 허길룡(목조각) 박찬수(인간문화재·목조각) 김광열(석조각) 박현수(단청) 김익홍(불교미술론, 도금) 전연호(불화)씨. 이들은 불교미술대전, 전승공예대전 등을 통해 기량을 인정 받았으며 동국불교미술인회 등의 활동하고 있다. 인천 가톨릭대학은 지난해 신설한 전통종교미술학과의 실기시간을 이 분야 권위자에게 맡긴다는 방침아래 불교계의 대표적 예인들을 전격 초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실기에 중점을 두게 될 이들의 강의는 주당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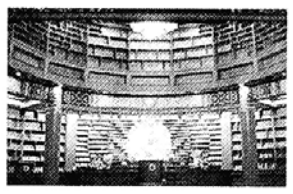
허길룡씨는 "이론보다는 실기에 중점을 두며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가톨릭계 대학이란 점을 감안, 불교미술에 대한 편협된 관념을 교정시키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동국대 대각전 '명가명인상' 수상

동국대(총장 송석구) 90주년 기념문화관 대각전 법당〈사진〉이 11일 월간 〈인데리어〉가 제정한 제2회 '명가 명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5개의 후보작품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각전 법당은 전통사찰의 분위기를 살리며 우리나라 고유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낸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다.



인터뷰 "불교미술은 포교의 좋은 방편"

동국불교미술인회 신임회장 이진형씨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21세기 한국문화를 이끌어갈 불교문화의 발전과 불교미술의 중흥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국불교미술인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진형씨(불교조각원 대표)는 올해 동국불교미술인회가 앞장을 서 경제난으로 침체되어 있는 불교미술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올 봄 부처님오신날 봉축회원전으로 '부처님일대기'를 테마로 잡았으며 가을에는 불교미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진형회장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으로 팀을 구성, 전국 지방교양대학에서 실기위주로 순회 불교미술 강좌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국불교미술인회와 회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해 사이버 갤러리를 통한 불교미술 홍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새해 첫달 전시회 초대장

청청스님 달마전 20~26일 경인미술관



대각사 청청스님이 20일부터 26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제1회 달마도 및 기(氣) 글씨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신라 김생의 필법을 연구해온 청청스님이 그동안 쓴 '기(氣)' 글씨〈사진〉와 달마도 총 80여점이 전시된다.

"옛말에 기산심해(氣山心海)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운은 산같이 마음은 바다같이란 뜻으로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중요함을 뜻하지요. 이번 전시회에 나온 氣 글씨를 보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피폐해진 정신으로 삶의 의미를 잃은 현대인 세계인들에게 기를 넣어주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님의 작품 설명도 곁들여 진다. (02)733-4448

박찬갑씨 조각전 31일까지 박영덕화랑



박찬갑씨(한국불교미술인협회장)의 조각개인전 '아리랑-해는 동에서 뜬다'〈사진〉가 31일까지 강남 박영덕화랑에서 열린다. 불교적 사유가 밑받침된 마음 탐구 시리즈에 몰두해오며 덴마크 등 외국에서의 우리 예술 알리기에도 힘써온 작가의 한층 원숙해진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이번 조각전에서는 땅 하늘 인간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 삶의 원천을 찾아보고자 하는 조각 3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극도로 절제된 선과 상징만으로 인간의 간절한 기원을 표현하고 있다. 박찬갑씨는 지난해 아르헨티나 국제조각공쿠르와 페루 국제조각 심포지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성자씨 개인전 31일까지 예술의전당



원로불자 화가 이성자씨(81)의 개인전이 31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50여년간 프랑스에 머물며 동양적 사유를 담아낸 독특한 예술세계를 보여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이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영원한 진리를 상징하는 원(圓)을 변형시킨 기하학적 도형의 유화작품, 도자기, 대형 목판화 등 총 1백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극지로 가는 길' 연작시리즈는 시베리아의 만년설을 배경으로 원융회통을 전제로 한 분리와 통합을 의미하는 원의 다양한 모습과 궁극의 만남을 표현해 눈길을 끈다.

"연해주 보리소프카 절터 발해초기 불교유적이다" 한-러공동 발굴 조사

"연해주 보리소프카 절터는 발해문화에서 차지하는 고구려의 비중을 확인시켜주는 발해 초기의 유적으로 러시아 학계의 발해 불교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와 러시아 고고민족학연구소(소장 데레비안코)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해주 발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메드베데프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리소프카 절터가 발해 초기 유적이라는 증거는 출토된 막새기와에서 드러난다. 이 가운데 심장모양의 볼록한 연꽃문양이 있고 거기에서 두개의 나선형 무늬가 이어지는 것은 보리소프카만의 독창적인 기와이고 다른 절터 출토물과 비슷한 형식의 기와들도 고식을 띠고 있다. 또 연해주의 여러 절터 가운데 보리소프카 만이 귀면와 파편이 나타나는 것도 초기 유적의 증거라고 들고 있다.

보리소프카 절터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71년으로 1972년 발굴조사 후 26년만에 발표된 유일무이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보고서 제작을 위한 절터의 발굴과 원고 집필은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분소 고고민족학연구소에서 맡았고 고구려연구회에서는 발굴보조비와 원고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4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60명 ■통신4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중국어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40명 ■통신20명		

2.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하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문교체결
95.11 본교하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1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방송대학 입학 가능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1월 28일까지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
약학·한의대

21세기를 준비하는 자격증

정통 한의학(중의)·약학·침구학 면허를 중국 현지에서 취득

▶ 중국 최고 국립한의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안정성, 수익성, 장래성에서 최고의 전문직
▶ 부설 :중국어 어학원 (전세계 각 국인 교육중)
▶ 군입대 연기 가능

- 지원자격 : 고교이상 동등 학력자(40세 미만) 전문대 이상자 전공불문
- 모집인원 : 20명 이내
- 전형방법 : 고교(내신성적), 전문대·대학(2.5이상)

남경중의약대학 TEL 25-6798168, 6798171
한국연락상담처 TEL 02-511-2026~8

해외신간



명암

'고(苦)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한 〈명암(The Light Inside the Dark : Zen, Soul, and the Spiritual Life)〉이 출간됐다. 저자 존 타란트와 스티븐 미첼은 서문에서 "깊은 슬픔에 싸여 있더라도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에게 미소를 보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어둠의 급습' '명상과 수행' 등 신화적 플롯으로 구성됐다. 존 타란트는 미국 불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작가. Harpercollins 刊. ISBN: 006017 2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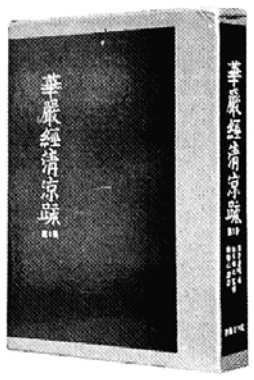
집 밖에서 집 안에서

일상적인 운동으로도 정신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한 〈집 밖에서 집 안에서(Working Out, Working Within : The Tao of Inner Fitness Through Sports and Exercise)〉가 출간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시에 '선(禪)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심리학자 제리 린치박사는 체력 단련 중에도 자신의 숨결과 생각에 집중한다면 정신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Putnam Pub Group 刊. ISBN: 0874779138

'화엄경청량소' 첫 번역 출간

80화엄경 대표적 주석서…1권 세주묘엄품 나와



"비록 텅 비고 텅 비어 자취가 끊어졌으나 진리의 하늘에는 뭇 별들이 찬연히 빛나고, 맑고 맑아서 말을 붙일 수 없으나 가르침의 바다에는 그 물결 호한(浩瀚·한없이 넓은 모양)하기 이를 데 없네." 청량국사가 〈화엄경〉을 해설하면서 남긴 이 한마디. 경전은 또한 아름다운 문학임을, 감동의 바다임을 일깨운다.

청량 징관스님(738~839)이 〈화엄경〉을 해설해 놓은 〈청량소〉는 섬세하고 아름답다. 선이 굵고 호쾌하다는 통현장자의 〈합론〉과 함께 80권 〈화엄경〉의 대표적 주석서로 일컬어지는 〈청량소〉는 교가(敎家·경론에 준거해 수행하는 집단)에서 널리 읽힐 만큼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왔다.

그런 〈청량소〉가 처음으로 번역돼 나왔다. 은해사 승가대학원에서 수학중인 반산스님이 2년간의 노력 끝에 〈화엄경청량소〉라는 이름으로 〈청량소〉를 우리말로 되살려냈다. 한 학인이 〈화엄경〉을 대하는 수행자로서의 노력과 열정이 돋보이는 책이다. 무비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이 감수했다.

이 책은 봉은사에 소장된 목판 80권 〈화엄경소초회본〉을 원본으로 하고, 원본 현토는 화엄학 연구소 각성스님의 현토본을 참고했다. 화엄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학인은 물론 일반불자들에게도 '화엄세계'를 이해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청량소〉는 〈대방광불화엄경소〉의 다른 이름으로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논술하고, 그 문의(文意)를 해석한 책이다. 이번에 출간된 〈화엄경청량소〉 제1권은 〈화엄경〉의 서품인 '세주묘엄품'을 번역한 것.

이 책은 〈청량소〉의 '소(疏)'를 모두 번역하고 '초문(鈔文)'은 역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골라 실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봉선사 능엄학림의 월운스님이 현재 집필중인 〈화엄경과도(科圖)〉를 준용해 각종 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번역은 직역을 위주로 하되 현대적 감각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해당부분에 대한 역자의 상세한 견해를 덧붙여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10개 과목으로 나눈 목차를 두어 읽는 이들의 편의도 도모했다. 값 2만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0년계획 20권 완간
원력세운 반산스님



"〈화엄경〉을 너무 선(禪)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에서 탈피해 세세하면서도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화엄경〉에 매달린지 어느새 10년. 이미 화엄의 큰 광맥을 캐는 한 사람의 광부가 되어버린 반산스님. 〈청량소〉를 번역해야겠다는 생각은 부처님의 혜명을 선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원장스님(무비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반산스님은 이번에 출간된 '세주묘엄품'을 제1권으로 해서, '십지품' '여래현상품' '여래명호품' 등을 차례로 번역, 20년 계획으로 모두 20권의 〈화엄경청량소〉를 완간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놓았다. 이를 위해 스님은 후원회를 결성키로 하고,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0563)336-1762

우주의 원리 인연법에서 해답찾자

법운스님 '불교와 과학'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연구해 왔지만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우주창조의 원리. 불교는 과연 이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

법운스님(광명 청룡사 주지)이 펴낸 〈불교와 과학〉(불교춘추사 刊)은 우주창조의 원리가 불교의 연기법임을 밝힌 책이다. 우주에 관한 현대과학의 지식을 동원해 지구를 비롯한 천체들을 설명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불교의 근본원리에 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우선 불교의 근본교리를 과학과 접합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법운스님의 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독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또 우주창조의 원리에는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있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내용도 신선하다.

스님은 〈장아함경〉과 〈세기경〉에 나오는 '모든 존재하는 물체들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없으며, 소멸하는 원인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생기고 없어진다'는 연기의 법칙이 우주의 원리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즉 모든 존재의 현상이 생겨나고(成) 유지되고(住) 무너지고(滅) 없어지는(空) 네 가지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이 바로 우주창조의 원리임을 말한다. 또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의 삼법인이야말로 우주만물이 생성되는 사리를 밝힌 것이며, 상주불멸의 근본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값 8천원.

한명우 기자

'십우도' 통해 서구신학 반성

김승철교수 '해체적 글쓰기와 다원주의로 신학하기'



〈해체적 글쓰기와 다원주의로 신학하기〉(시공사 刊)는 불교의 '십우도'를 종교다원주의 완성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기독교의 배타성과 서구신학 논리의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동양신학의 '위기'를 지적하고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저자 김승철 교수(부산 경성대 신학과)는 십우도의 가르침인 무집착과 참자유가 바로 종교 다원주의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김교수는 종교 다원주의의 완성과정을 십우도의 10단계에 맞춰 설명한다. '심우'는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떠남이요, '득우(得牛)'는 자신의 체계를 고수하려는 전통의 모습으로 비유한다. 그러나 '기우귀가(騎牛歸家)' 단계에서는 옛 전통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고, '반본환원(返本還原)'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한 반성은 화엄사상에서 찾는다. 듣는 이의 태도를 존중하는(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불경은 '생각도 이론도 끊어진'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한다. 값 8천원.

한명우 기자

'화엄법구백선' 번역

정광고 경환철 교장 법공양



조계종 종립 광주 정광고등학교 경환철 교장(62)이 최근 〈화엄법구백선〉(불교출판 선우 刊)을 번역 출간했다. 〈화엄법구백선〉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에서 1백개의 법구를 뽑아 실은 책. 중국 항주 영은사 서점에서 구입한 이 책에 번역과 주석을 붙였다.

경교장은 동진의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가 번역한 60화엄과 '보현행원품'에서도 1백개의 법구를 가려 뽑아 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법보시용. (062)226-5161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3	불자의 기본예절	일 타	효 림
4	겨울부채	이 현 주	생활성서사
5	화두 짓는 법	토방 권집부	토 방
6	산은 산 물은 물	정 찬 주	민 음 사
7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 현 종	대원미디어
8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9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사성	장 승
10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운외	불교시대사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차 한잔을 마시며… — 정승석 지음

수필읽듯 쉽게 배우는 교리-용어



불교교리는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에서 진실을 발췌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어렵다면 그것은 특정한 용어가 담고 있는 경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일 뿐이다.

정승석 교수(동국대 불교학부)의 〈차 한잔을 마시며 나누는 불교교리〉는 '풀어 쓴 불교 이야기 책'. 대승과 소승, 불성과 깨달음, 계율과 설법 등 교리와 사상 등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것들을 수필형식으로 담았다.

제목 그대로 차 한잔을 나누며 대화하는 듯한 편안한 느낌의 입문서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용어나 교리는 별도로 설명해 놓았다. 〈민족사, 7천5백원〉

깨달음으로 가는 일곱 단계 — 오쇼 지음

우파니샤드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



우파니샤드는 고대 인도의 철학서다. 여기에는 우주의 본체와 개인의 본질이 일체라고 하는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이 담겨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일곱 단계〉는 우파니샤드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설명한 '구도자들을 위한 깨달음으로 가는 안내분'과 같은 책이다. 선사들의 일화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경전이라는 난해함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다. 주로 명상을 통한 수행법을 강조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했다. 책 말미에는 수행자들의 갖가지 질문에 대한 오쇼의 답변을 첨부해 수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황금꽃, 1만2천5백원〉

신심명 — 문재현 엮음

승찬스님의 선사상 폭넓게 설명



'신심이란 둘 아닌 경지이며, 둘 아닌 경지가 신심이다.' 중국 선종 3조인 승찬스님의 게송 〈신심명〉의 한 구절이다. 〈신심명〉은 선리(禪利)의 극치를 노래한 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뜻이 오묘하고 깊어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문재현 법사(대한불교정맥전승회장)가 주해를 달아 해석해 놓은 〈신심명〉은 승찬스님이 읊조린 선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원문과 그에 대한 해석을 싣고, 뜻을 폭넓게 설명한 주해를 달았다. 또 '법문' 코너를 마련해 게송의 원뜻에 맞는 문법사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불법과 삶의 이치에 대한 세계를 열어 보인다. 〈바로보인, 1만원〉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7,000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곁처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Ⅰ. 새벽예불 Ⅱ. 오분향례 Ⅲ. 부처님이시여, 크나큰 은혜를
Ⅳ. 거룩한 사대보살 Ⅴ. 영산회상의 주인들
Ⅵ.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Ⅶ. 자타일시성불도

신국판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해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인도철학회 홈페이지 단장

인도철학자료실 신설

인도철학회(회장 정태혁)가 최근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인도철학 자료실'을 신설, 산스크리트와 힌디어 문자 '데바나가리(Devanagari)'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을 서비스한다.

자료실에서는 편집자 제공 자료, 인도철학·인도학, 불교·불교학, 인도알기, 요가·선, 일본어·중국어로 보기 등이 제공된다. △편집자 제공자료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산스크리트 문자 변환 방식 등을 서비스하고, 마하바라타 원전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인도철학·인도학은 인도 주요 고전의 산스크리트 필사본을 원본상태로 제공하며,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인도철학과 불교학 관련 자료를 열람하도록 했다. △불교·불교학에서는 대장경과 근래의 불교학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불교학의 주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곳을 소개하고 링크해 놓았다. 이밖에 △인도알기는 인도 관련 종합정보를 또 △요가·선에서는 요가 전문잡지·책 등을 제공한다.

http://bora.dacom.co.kr/~jungss/ksipmain.htm

경허·만공사상 연구-생활선 실천체계 정립

한국불교선학연구원 '개원'

수덕사, 22일 서울 논현동에 원장에 이은윤씨…도심선방도 운영

한국불교 선풍 진작을 위한 연구와 생활선 실천체계를 정립해 나갈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이 문을 연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법장)는 22일 서울 논현동 삼윤빌딩 8층에서 한국불교선학연구원(韓國佛敎禪學硏究院) 개원기념법회를 갖고, 도심 선방 무불선원(無佛禪院)을 함께 개원한다.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은 경허(鏡虛·1849~1912)·만공(滿空·1871~1946) 스님의 선사상을 선양하고, 선의 대중화와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을 우리의 기존 사유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활구(活句)임을 이해시킴으로써 일상의 생활철학, 인생철학이 되도록 하자는 것. 법장스님은 "21세기를 앞두고 불교가 문명사적으로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때인 만큼 생활선으로의 체계확립은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은윤씨(중앙일보 종교전문대기자)를 원장으로, 선사상·문학·예술·정치·경제·과학·교육계 등 43명의 대학교수를 연구위원을 위촉한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은 선풍진작과 인재양성을 위한 학술·출판·장학·포교 의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첫 사업으로 5월28일 '경허선사 87주기 추모 제1회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경허의 선사상과 역사적 위치'를 주제로 △경허의 선사상(김지견·前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경허의 선정관(禪淨觀)(현각스님·동국대 교수) △경허의 결사(結社)(최병헌·서울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이밖에 학술분야 사업으로 연 4회 월례발표회와 〈경허법어〉〈만공법어〉 등 선어록 강독모임을 매월 진행할 계획이다.

출판사업으로는 학술논집 〈덕숭선학논집〉과 경허·만공 법어, 선어록의 한글 번역 및 영역출판 등 〈덕숭선학총서〉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학사업은 '덕숭학술상'을 제정하여 선학연구에 업적을 세운 소장학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학술연구비 지원 연구논문을 공모해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함께 문을 연 무불선원은 '불법의 육화(肉化)'와 '선의 대중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도심 속 선방'으로 참선 실수(實修)와 함께 '선학 아카데미' '선학 월례강좌' '선문화 강좌' 등을 개설한다.

한국불교선학연구원 개원으로 고승들이 주석했던 사찰을 중심으로 스님들의 불교사상을 선양하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학술연구단체(표 참조)들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로 개원 12주년을 맞는 송광사 보조사상연구원은 90년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돈·점 논쟁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지눌사상의 집중적 탐구'를 통해 지눌스님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분황사 원효학연구원과 은해사 일연학연구원도 신라와 고려시대를 대표하며 한국불교사상의 큰 맥을 형성하는 원효스님과 일연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고 있다. 또 지난해 개원한 대각사상연구원에서는 백용성 스님의 사상과 독립운동을 집중연구 하며 한국 근대불교 사상을, 성철선사상연구원은 성철스님의 선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선불교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교계 고승사상선양 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	02-733-5335
원효학연구원(원장 김영태)	0561-42-9922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	02-265-5215
일연학연구원(원장 법타)	0563-35-3318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	02-581-3137
한국불교선학연구원(원장 이은윤)	02-541-0002

'대각사상' 창간호

98년 3월 개원, 용성스님의 사상을 연구해 온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스님)이 대각사상의 체계적 연구와 불교포교의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한 학술지 〈대각사상〉 창간호를 펴냈다.

이번 창간호에는 '백용성스님과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지난해 열렸던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백용성의 독립운동(김광식·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 등 5편의 논문과 기고논문 △스리랑카의 독립운동과 불교계의 역할(송위지·한국외국어대) 등이 수록돼 있다.

"선은 더이상 불교의 전유물 아니다"

물리학자 박영재교수 '불교와 문화' 겨울호에 발표

자기를 찾자는 선수행이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호응을 넓혀가는 가운데 서강대 박영재 교수(물리학과)가 서강대 수도자대학원에서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와 문화〉 겨울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현대인의 수행법-간화선과 위빠사나를 비교한다' 제목의 글에서 박교수는 "선 수행은 인류가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밝혔다.

97년 3월 수도자대학원에 선택과목으로 선강좌를 개설, 2년동안 가톨릭 수사·수녀·평신도들에게 '선불교 사상'과 '선어록 강독'을 강의하며 선 실수(實修)를 병행해 큰 호응을 받아온 박교수는 "사실 어떤 수행 체계를 따르든지 간에 수행자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참나'를 철저히 자각(自覺)하게 하는 일이 수행의 시급한 문제라면 그 수행법이 바로 평상심시도의 정신을 확립한 조사선의 수행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교의 '일체중생개유불성(一切衆生皆有佛性)'이란 가르침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언급한 '그리스도 교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란 가르침은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가르침을 수행자들이 각자의 신앙체계 안에서 선수행을 통해 바르게 체득하기만 한다면 이 체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온 인류가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수도자대학원에서 선강좌를 수강한 수사·수녀들의 소감문도 언급하며 "한 수녀는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부담감과 위축감이 선 수행을 통해 안정감으로 바뀌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등 대체로 선 수행이 삶의 여유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부처님과 역대 선사(禪師)의 삶을 꿰뚫어 보며 하루하루 꾸준히 매진한다면 성인들이 사셨던 똑같은 세계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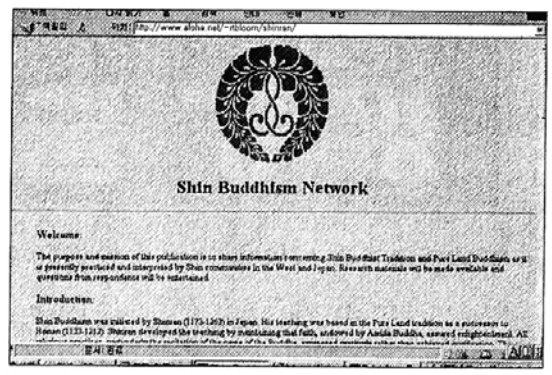
'21세기 한국사회와 종교' 세미나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원장 김몽은)은 21일 오후 4시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제2차 세미나 및 신년 간담회를 갖는다.

'21세기 한국 사회와 종교문화'를 주제로 6대 종교 대표자 주제발표와 함께 길희성 교수(서강대)가 '21세기 한국 종교문화의 전망과 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정병조(동국대) 김경재(한신대) 교수등이 발제에 나서며, 토론자로 진월스님(동국대)이 참석한다. (02)3474-9131



해설 어리석은 자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안하고 성급하게 결과만 바란다. 1층과 2층 없이 3층이 있을 수 없듯이, 제구실을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우수 불교학술 사이트

달마링, 트리사이클-금강경등 6개 선정

불교학 정보 체계적 제공 접속자들 만족

사이트의 정보의 등급을 판단하는 '달마 링(Dharma Ring)'이 최근 접속 이용자수를 기준을 불교사이트중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체계적인 불교학 정보를 제공해 주는 우수 사이트로 불교학 가상도서관, 불교실천윤리학지, 신부디즘네트워크, 트리싸이클, 버클리불교학, 금강경 등을 선정·발표했다.

인터넷 우수 사이트 5%에 선발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불교학 가상 도서관(ANU Buddhist Studies WWW Virtual Library) 사이트에서는 체계화된 불교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에서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불교학 일반 외에도 티벳불교와 선불교가 별도의 홈페이지로 제공된다.

불교와 윤리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전자잡지로 인정받는 불교실천윤리학지(Journal of Buddhist Ethics) 사이트에서는 석학들의 소고와 논문 등을 접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전자출판되는 불교윤리에 관한 자료들과 세계 여러 석학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포럼, 해외사이트의 연계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오는 10월에는 서구 불교에 있어서의 환경윤리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불교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비영리 불교단체들도 있다. 신부디즘 네트워크(Shin Buddhism Network) 사이트는 정토종 관련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서로 교환하는 네트워크로 일본에서 제공한다. 인터넷에 개설된 불교홈페이지들의 전자게시판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연동서비스가 특징.

버클리불학연구소 사이트에는 △불경·비문 연구 △불교서적(버클리대 刊) △불교관련회의 자료 △관련 사이트 링크 △불교연구소(버클리大) 등이 있다. '불경·비문연구'는 국제인도학회에서 제공하는 원시경전의 전산본과 CD 타이틀(中國房山石經碑刻集成)에 관한 정보를 각각 알려준다. 또 미국에서 인도·중국·일본불교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고 있다.

불교종합 정보지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트리싸이클(Tricycle) 사이트는 교리·신행 관련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트리싸이클 편집진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어 쌍방향 교신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발간된 트리싸이클 모든 호의 글과 사진이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한다.

금강경(Diamond Sutra) 사이트는 〈금강경〉 등 불교경전들을 원문으로 제공하는 곳. 이곳에서 제공하는 경전들은 한문·범어·빨리어본 등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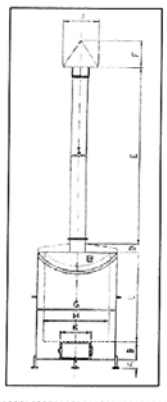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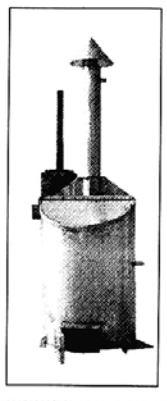
불교학 가상 도서관 http://coombs.anu.edu.au/
불교실천윤리학지 http://www.psu.edu/jbe/
신부디즘 네트워크 http://www.mew.com/shin/
버클리연구소 http://garnet.berkeley.edu/~yaoming/
트리싸이클 http://www.tricycle.com
금강경 http://nhuru.net/tiksrc/9606/sources/diamond.htm

사찰 쓰레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은 매연, 완전연소로 소각하십시오.

대용 하향식 소각로

대용 하향식 연소방법 소각로란?





1)과학적 설계로 제작된 상부에서 하부로 연소되므로 동시에 많은 양을 투입하고 소각하여도 오나전 연소되어 매연이 적다.
2)밀폐된 상태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화재나 안전사고가 없다.
3)연소중 관리가 필요없고 이동이 용이하다.
4)소각로의 재질이 스텐레스(SUS) 316(표준형)으로 제작되어 영구적이다.
(특별 재질 주문 제작 가능. SUS 309, 310, 304, STEEL)
5)특히 산야등 산불의 위험이 있는 관광사찰

※ 실용신안, 의장등록 출원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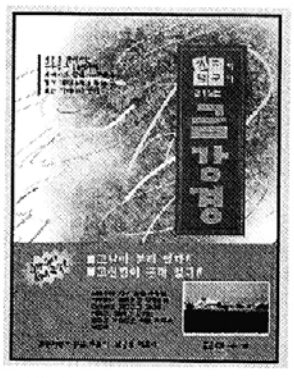
모델명	재 질	금 액
DY-1	SUS316	₩1,250,000
DY-2	SUS316	₩ 850,000
주문형		

제조원: 대용 엔지니어링
서울 강서구 공항동 664-13

판매·문의 02)3673-2680 / 745-8503(실상선원)

● 초등 학생도 읽는 초유의 〈금강경〉 해설서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이 책에는
❶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❷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❸뜻을 세우고 소원을 이루는 최상의 과학적인 기도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를 모두 구현하는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한마디로 금강경 해설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명적인 해설서이다. 다양한 실생활의 실례를 넣어 경의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 것도 특이하지만, 3분 대승정종분을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하는 해석, 4분의 무주상보시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보시로 보는 관점은 기존의 해설서에서 보지 못했던 시원하면서도 독창성이 넘쳐 흐르는 내용이다. - 서울신문사 관리부장 박상희 -

● 생활속에 금강경 실천 겨울수련회 ●

■ 일시 : '99년 1월 22일(금) 20시 - 1월 25일(월) 06시 (3박 4일)
■ 장소 : 『바른법연구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 대상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책을 읽고 내용에 공감한 독자
■ 인원 : 30명 ■ 회비 : 5만원
■ 신청마감 : 수련회 3일전까지
■ 주요프로그램 :
①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위한 〈금강경〉 독송
② 잠해탈을 위한 1일 3시간 수련 실천
③ 업보해탈을 위한 과학적인 소원성취 기도법 및 체험담 소개
④ 니시 가쯔조 건강법 실천 (절식생활, 냉온욕, 풍욕, 건강체조법)
⑤ 묵언 정진 생활화
⑥ 사찰 기본상식 및 교양강좌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바람
■ 문 의 처 : (0344)966-5877, 963-2872
■ 팩 스 : (02)324-3866

"아무리 훌륭한 법도 몸뚱이착으로 깨달은 것이면 바른법이 아니요, 평범한 듯 하여도 몸뚱이착 여의고 깨달은 것이면 바른법이다."

바른법연구원

깨달음 익어가는 점수 중시

잡아함경 〈하〉

경전 속의 禪 사상 3

계학 · 정학 딛고 반야지혜 생겨

사마타 선입견 전제 위빠사나 있는 그대로 통찰

글쓴이



김 정 빈
〈작가〉

이것이 바로 위빠사나의 입장이기도 하다. 사마타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법은 공통점과 더불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순수직관과 관련하여 비교하면 사마타 수행이 자신과 세계를 어떤 선입견을 전제로 바라보는데 비해(비록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일지라도 선입견은 어디까지나 선입견) 위빠사나 수행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예를들어 무아관(無我觀)을 닦는 사마타 수행자라면 자신의 심신(心身), 즉 오온(五蘊)이 '나(我, Atta, Atman)'처럼 보일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나가 아니다', '내 것도 아니다', '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잡아함경 570 梨耶達多經 2). 그러나 위빠사나 수행자는 오온을 보이는 그대로 볼 뿐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끼워넣지 않는다. 도리어 부처님이라는 권위, 그 권위에 짓눌리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통찰해야만 올바른 위빠사나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빠사나는 그 극치에 이르러 교외별전, 불입문자를 극도로 강조하는 선과 통할 수밖에 없다.

위빠사나 수행법을 통해 '그대로의 봄'을 철저하게 밀고 나가면 성성적적(惺惺寂寂)한 삼매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침내 반야(般若), 즉 지혜가 생겨난다. 그것은 수행자가 정정(正定, 팔정도의 여덟 번째)을 거쳐 정견(正見, 팔정도의 첫 번째)을 체증(體證)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따라서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을 추구하는 선과 아무 전제없이 '있는 그대로의 오온'을 통찰하고자 하는 위빠사나가 성취하는 궁극적인 경지가 매우 비슷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는 약간의 상이도 없지 않다.

첫째, 위빠사나는 삼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수행법으로서 계라는 1층과 정이라는 2층을 딛고 구축된 3층으로서의 수행법이다. 그에 비해 선은 계와 정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바꿔말해서 선은 3층만을 독립시켜 유난히 강조하는데 비해(선사들은 유독 明眼, 즉 正見을 강조한다) 위빠사나는 1층과 2층의 건실한 기초를 그에 합당한 정도만큼 인정하며, 그것 없이는 3층이 구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빠사나 수행법에서는 깨달음을 성취해 나아가는 과정이 중시된다. 그것은 '중생이 아니면 부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중생 속에서 점차 깨달음이 익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보다 유연한 태도이지만, 선에서는 이같은 태도를 점수(漸修)로 치부하여 평가절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선이 중생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본래청정심(本來淸淨心)을 전제하는데 비해 위빠사나에서는 그런 전제가 없다는 점, 화두를 의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의식의 힘을 강화하는 통찰(알아차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위빠사나는 선과 다르다. 따라서 위빠사나, 즉 잡아함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阿羅漢)과 화두선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한 선사(禪師)의 체험이 반드시 같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또한 쉽지않다.

잡아함경에는 선이 숨쉬고 있다. 다만 그 선은 돈오(頓悟)적이라기 보다는 점수(漸修)적인 선이며, 활발발(活潑潑)한 남성적인 선이라기 보다는 고요하고 맑은 여성적인 선이다. 그러면서도 위빠사나는 화두선의 극치인 순수직관을 포기하지 않는다. 낮게는 계 · 정이라는 1 · 2층과 상응하고, 높게는 순수직관을 3층까지 닿아 있는 선이 위빠사나 선이다. 3층에 이르러 위빠사나는 개념의 세계, 속제(俗諦)의 세계, 사구(死句)의 세계를 뛰어넘어 활구선(活句禪)을 성취한다. 그 때에 이르면 위빠사나 또한 돈오를 성취할 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속(俗)과 진(眞)이 연장선상(延長線上)에 있기 때문에 위빠사나의 지혜는 이(理)와 더불어 사(事)까지도 포함한다. 조계사 사태는 이적(理的)인 지혜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적(事的)인 지혜의 부족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사융통한 아함의 선사상을 재삼재사 음미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2

믿음

믿음이 없으면 정신적 통찰이라는 식물이 싹틀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씨앗(種)'이라고 부른다.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치있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다. 이것은 불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적용되며 공산주의와 같은 현대사상의 한 조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믿음'은 증명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지성적, 의지적, 감정적, 사회적인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졌다.

지성적으로 믿음은 이해할 수 있고 사실적인 증거로는 증명되지 않는 교리들에 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을 초월해야 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로써 기꺼이 우리의 지식의 틈을 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성적인 태도로서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주로 의심과 당황이다.

모든 종교에서 어떤 가설 혹은 가정들은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거나 경전이나 스승의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잠정적으론 믿음은 단지 예비단계, 임시적인 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정신적 자각은 믿음이 믿고자 하고 알고자 했던 것을 알게 한다. 지혜의 덕이 실재의 진실한 본성에 대해서 폭넓은 통찰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때까지는 교리상의 많은 문제들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감각이나 이성이나 세속적인 것만 갖고는 교리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4가지이다. 업(業·Karma)과 윤회에 대한 믿음, 연기(緣起), 무아(無我), 공(空)에 대한 믿음, 세 가지 '귀의처' 즉 불(佛·Buddha), 법(法·Dharma), 승(僧·Samgha)에 대한 믿음, 수행의 효력 즉 모든 고통이 사라진 궁극적인 단계로서의 열반(Nirvana)에 대한 믿음 등이다.

자기완성 추구의 씨앗

윤회 · 연기 · 삼보 · 열반을 믿자

현대와 같은 회의적인 시대에서 우리는 믿음의 지성적인 면에 대해서 훨씬 많이 숙고하게 된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한 말의 산스크리트어인 'Sraddha'는 어원적으로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라틴어 'cor'와 유사하다. 그만큼 신앙은 지성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더 중요시한다. 이에 대해 라다크리슈난(Radhakrishnan) 교수는 "믿음이란 주어진 관념에 마음의 힘을 집중함으로써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지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단호하고 용기있는 의지의 행동을 내포한다. 믿음은 일을 처리하는 단호한 결단력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확신을 결합시킨 것과 같다.

강건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적과 대치해 있거나 병이 나서 굶주림으로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워줄 사람에 비유될 수 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둑을 따라가면서 공포에 떨 것이다.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소심하고 겁쟁이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비열하고 타산적인 성향을 갖는다. 믿음은 빨리어 'adhimokkha(확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확신은 어떤 대상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확하게 선택한 후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데 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결단력 없는 어린아이처럼 주저하는 것과 반대된다.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미혹의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우주는 왜 무에서 탄생했나 ②

■ 양자론의 우주탄생 해명

우주의 온도는 공간의 팽창과 더불어 내려간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된다. 그것이 우주 탄생에서 약 30만 년 후의 사건으로 빅뱅 시대의 말기에 해당한다. 그 후는 원자가 모여 천체가 되는 '천체의 시대'가 된다.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되었을 때를 '우주의 맑게 갬'이라고 부른다. 그 빛이 그 시대의 우주에서 현재의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우주는 길이로 하면 1000배 정도 팽창하고 있다. 따라서 빛의 파장도 늘어나고, 결국 에너지가 즐고 절대온도 3K 정도인 극저온의 약하기만 한 전파가 된다. 이 전파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965년 전파 망원경에 의하여 발견되어 빅 뱅 이론의 관측상의 최대 증거가 되고 있다.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宇宙背景輻射)'라 부르고 있다.

빅 뱅 이론이 옳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우주는 더욱 수축하여 결국 공간의 모든 점 사이의 거리가 0이 되고 만다. 즉 공간이 짜부라져 버리는 순간에 다다른다.

물론 거기까지의 관측상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믿고 공간의 운동을 따라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주 탄생의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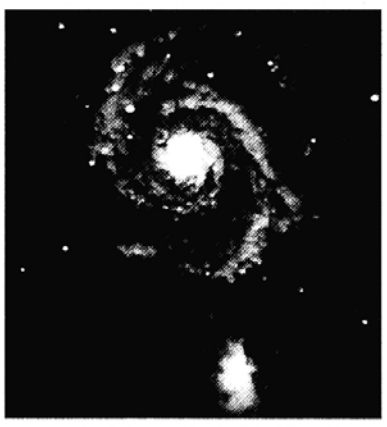
여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거시(巨視, macro)'와 '미시(微視, micro)'라는 20세기 물리학의 새로운 측면이다. 20세기에 들어와 물질은 원자나 전자라는 미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미시적 입자의 움직임은 거시적 물체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양자론(量子論, Quantum Theory)'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팽창 우주론에서도 중대한 문제였다.

현재의 우주는 분명히 거시적이지만 우주 탄생의 순간에는 공간이 미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자는 '입자'이지만, '파'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결국 전자라는 미시의 입자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체와는 다른 새로운 입자상(像)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20세기의 새로운 물리학인 양자론(양자 역학)이다. 양자 역학에서 파장이 길수록 그 전자의 에너지는 작다고 알려져 있다. 전자의 에너지는 그것 이상 감소할 수 없는 '최소값'이었다. 결국 최대 파장의 파로 표시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그 이상 에너지를 줄일 수 없다. 이것이 원자가 짜부라들지 않는 이유이다.

불확정성 원리 · 0점 진동설 無 상태의 우주 팽창 설명

사실 미시 입자에 대한 문제는 양자 역학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전자기파(電磁氣波), 그리고 그 일종의 빛이 사실은 파가 아니라 '광자(光子, photon)'라는 입자 집단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광전효과(光電效果)'라 불리는 현상이다. 그러나 광자에는 전자의 양자 역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場)의 양자론'이라는 한 단계 더 발전한 양자론이 등장하였다.

우주가 팽창해 가는 모습을 비탈길을 구르는 공에 비유해 보자. 비탈길 정상의 위치가 공간이 완전히 짜부라져 있는 상태에 대응한다. 결국 공간도 시간도 없는 '무(無)'의 상태이다. 그리고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많이 팽창한 우주에 대응한다고 생각된다.



◇와상 은하계로써는 처음으로 발견된 월풀은하계.

공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꾸만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결국 짜부라진 상태에서 발생한 우주 공간은 점점 팽창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은 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일까? 비탈길 정상에 가만히 있으면 우주는 어떤 일도 발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양자론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제까지 공을 사용한 설명은 보통의 운동의 이미지, 즉 양자론 이전의 이미지였다. 따라서 공이 비탈길의 정상에 가만히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양자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양자론에는 불확정성 원리, 또는 0점 진동이라는 것이 있다. 무엇인가가 완전히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처럼 보여도 실은 전자기장의 0점 진동이 숨어 있는 것이다. 정상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 상태도 반드시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약간이라도 밀리면 비탈길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므로 공은 굴러 떨어진다. 결국 무의 상태도 요동하고 있고, 거기서 우주는 발생할 수밖에 없게된다. 〈계속〉

월간 〈과학 Newton〉서 발췌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용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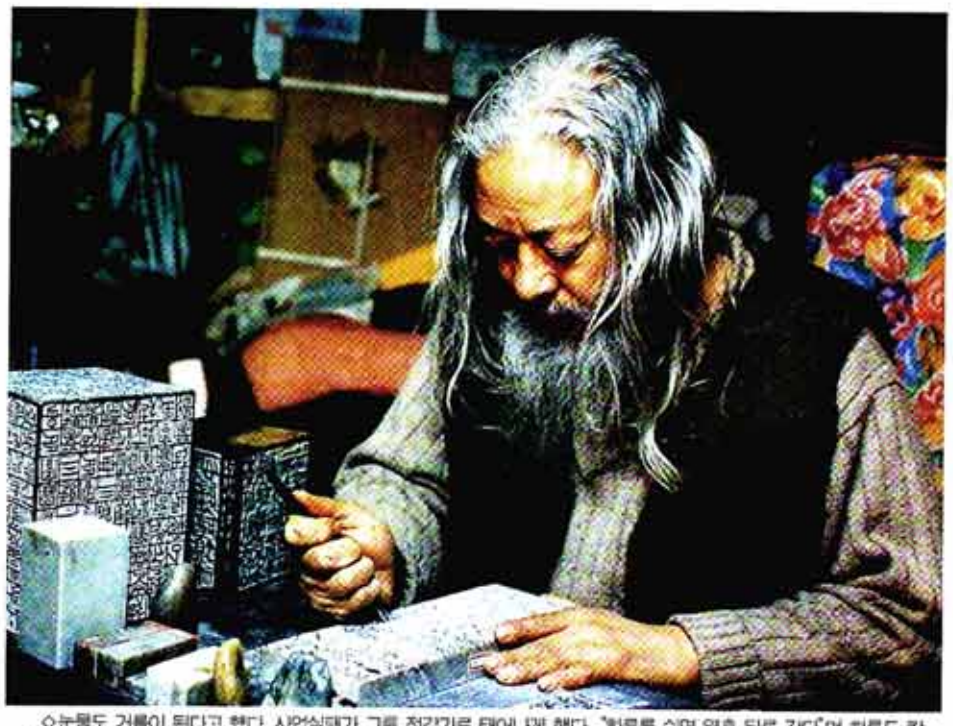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자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자나깨나 '돌에 생명넣기' 골몰

산문밖의 禪 전각 30년 玄老 최규일씨



◇눈물도 거름이 된다고 했다. 사업실패가 그를 전각가로 태어나게 했다. "하루를 쉬면 열흘 뒤로 간다"며 하루도 칼을 놓지 않는 전각가 최규일. 지난해 12월 구안나화랑 초대전에 이어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광주·인천 신세계백화점 초대전을 열고 있다.

올해 환갑이다. 인생의 절반을 돌과 칼을 벗삼아 살았다. 전각가 현로 최규일(玄老 崔圭一. 전에는 현암(玄岩)이란 호로 통했다.)

지금은 복개돼 옛 모습을 감췄지만, 기자가 정릉천변 지하 작업실을 찾았을 때 그는 대뜸 정신병을 얘기한다.

"일에 깊이 병들지 않으면 안되지. 자기 일에 정신병이 걸려야 하지. 나는 자면서도 일해요. 머리 속엔 온통 새기는 것 뿐. 사람 얼굴을 봐도 전각으로 보이지."

칼 놓고 부근 다방에 있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 요강으로 대신하고 있다. 몸치장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보니 머리를 길렀고 수염에도 손대지 않았다. 그런 그를 두고 남들은 기인이다, 도인이다 한다. 하지만 일에 빠진 결과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그저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작품한다고 생각하면 계을러지기 때문이다"는 것이 이유이다.

애초부터 전각을 했던 것은 아니다. 열 다섯 살부터 막일판에 나섰다. 마차를 끄는 마부였다. 자동차의 물결에 밀려 마차가 사라지자 벽돌을 만들어 파는 건재상을 했다. 이내 실패했다. 세상이 무서워졌고 싫었다.

10년 걸려 일도일각법 체득
1110개 돌에 금강경 장엄
"일 병에 걸려야 게으르지 않아"

여기저기 떠돌다 어느 절간을 찾았다. 전각가 최규일로 다시 태어나게 한 남해 화방사. 폐사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기울어진 전각과 웃자란 잡초 사이 유독 절마당에 널려 있는 주춧돌과 기왓장이 눈에 띄었다. '발에 채이도록 널려 있지만 돌만큼 오래도록 남는 것은 없다. 내 흔적을 돌에 새기면 먼 훗날에도 누군가 나를 볼 수 있겠지.'

"그 생각에 녹아들었어, 그리고 달려들었어."

스승도 없었다. 오로지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매달렸다. 눈물도 거름이 된다고 했듯이, 삶의 실패가 주는 힘이었다. 일도일각법(一刀一刻法)을 체득하는 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한 칼에 한 획을 그었다. '으드득', 돌 떨어져나가는 소리가 머리털을 솟구치게 했다. 그의 일도일각은 기존의 전각처럼 칼로 다듬은 매끄러운 선이 아닌, 돌이 떨어져나간 선에다 조형을 심는 것이다. 선과 선 사이엔 물결이 일고 산이 솟았다. 한 획 한 획이 물결을 돋고 산을 넘는다.

물고기와 닭과 개구리가 돌 속에서 노닌다. 사물놀이하는 장면도 곁쳐진다. 오랜 드로잉 습작이 형상의 자재로움을 뒷받침하고 있다. 누드크로키와 전각을 함께 펼쳐놓는 과격도 마다하지 않는다.

기존 전각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게 어디 선이야. 쥐가 뜯어먹은 자국이지." "왜 칼을 붓처럼 쓰지 않느냐." 칼을 쓰는 것도 붓과 같이 하라는 이론을 강조하는 질타였다.



◇전각과 누드크로키. 탄탄한 드로잉 실력이 전각의 조형미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의 생각은 달랐다. "칼은 칼, 붓은 붓이다. 예술가의 병은 매너리즘이다." "이론도 몸으로 확인할 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 이론이라고 해서 모두 추종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의 이론은 몸이다. "하루를 쉬면 열흘 뒤로 간다." 예리한 칼을 쓰는 일은 더욱 그렇다. "나는 칼을 갈지 않아요. 매일 쓰니 무뎌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전각계에 한바탕 바람을 몰고 왔고, 아직도 바람이 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 곁에 몰리고 있다. 85년 첫 전시회 이래 개인전만 열서번에 이른다. 최근에는 프랑스 구안나화랑 초대전도 열었다. 이 전시회에 사교계의 거물이면서도 좀체로 얼굴을 내밀지 않는 샤넬 향수의 사장까지 참석했다 해서 화제가 됐다. 88년에는 독일 공영TV가 그의 작품세계를 소개했다. 외국 사람들이 먼저 그의 작품에 눈길을 보낸 것이다. 1, 2월중에는 공주(1. 15~29)와 인천(1. 28~2. 11)의 신세계백화점 초대전이 있다. 지난 연말에는 청에 못이겨 '성불합시다' '산빛 보며 눈을 씻네'라는 이름을 붙여 달력에 아예 그의 전각 작품을 담았다.

그의 손길이 닿으면 돌은 더이상 차디찬 존재가 아니다. 우리들 가슴에 새긴 뜨거움으로 다가온다. 그렇다. 그의 전각은 글자를 파는 일이 아니다. 그에게 전각은 파는 것이 아니고 새기는 일이다.

"금강경 사구게를 읽으면 뭐가 저려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읽긴 해도 실천은 안해요. 사구게의 일상만 알아도 세상이 이토록 험하지는 않을텐데…."

유독 경전을 많이 새긴다. 금강경 전각에 꼬박 5년의 시간과 혼을 담았다. 사방 6cm의 1천1백10개의 옥돌을 금강경으로 장엄했다. 전각된 밀면만 사방 66m. 부처님이 설한 금구(金口)가 랄(暖)을 하는 알대 장관, 법열(法悅)이 넘쳐나고 있다.

내친 김에 지난 해 1월부터 6개월 동안은 반야심경을 10벌 각경(刻經)했다. 천수경, 화엄경 그리고 두보, 이백, 정약용, 허난설헌의 시, 우리의 정신을 밝혀주는 글들도 새겼다. 생살을 저며내듯 돌을 뜯어내며 사람들에게 새겨주고픈 마음도 담은 것이다.

이즈음엔 한산시(寒山詩)를 새긴다. 한산시가 바로 금강경 사구게로 읽히기 때문이다.

人間寒山道 寒山路不通 夏天水未釋 日出露晞霧
似我無主張 與君心不同 君心若似我 還得到其中

사람이 있어 한산길을 묻는구나,
그러나 한산에는 길이 통하지 않네.
한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고
해는 떠올라도 안개만 자욱하네.
나 같으면 어떻게고 갈 수 있지만
내마음 그대 마음 같지가 않네.
만일 그대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면
어느덧 그 산 속에 이르리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 혹은 진성(眞性)에 이르는 길을 묻는다. 하지만 그것은 대답해 줄 수도 없고 또한 답도 없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음만 같다면야 답해 주지 않아도 그 길에 도달할 수 있으리.-김달진)

글=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구안나화랑 초대전에 전시했던 '사물놀이'(직경 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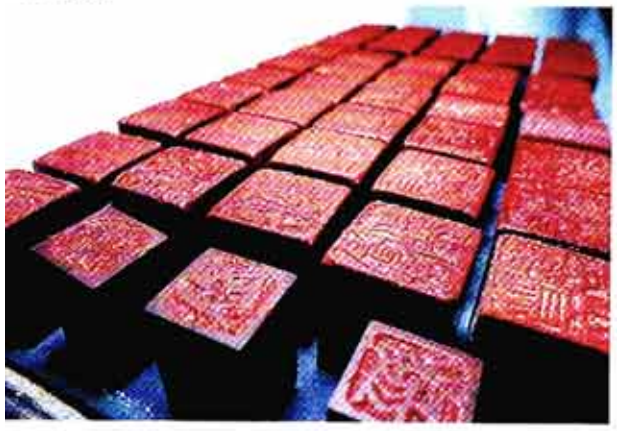
▲화엄경약찬게(華嚴經略纂偈).



▶무량수복(無量壽福).



◇법성해인도(法性海印圖)



▼사방 6cm, 1110개의 돌에 새긴 금강경.

초월적 존재…상서로움 상징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24

상상동물

용 극락조 금시조 봉황 천마 해태 현무….

이같은 동물들은 실제에는 없는 상상속의 동물들이다. 이들은 두가지 이상 여러 동물의 기능이 합해진 뛰어난 능력을 지닌 초월적인 존재로 불화나 성화에 그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상상동물인 용은 낙타의 머리에 사슴의 뿔, 토끼 눈, 암소의 귀, 뱀의 목, 개구리 배, 잉어의 비늘, 호랑이의 발바닥으로 이뤄졌으며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비와 바람을 일으킨다고 여겨져 왔다.

극락조는 사람의 두상과 새의 몸, 용의 꼬리가 달린 아름다운 새로 극락에 깃들인다고 하며 봉황은 닭의 부리, 제비의 턱, 뱀의 목, 거북의 등, 용의 무늬, 물고기의 꼬리 모양을 갖춘 신성한 새로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왼쪽 그림은 직지사 벽화 '금시조를 탄 문수동자'이다. 금시조는 인도신화에 나오는 새로 '가루라'라고 하는데 몸 전체가 금색으로 되어 있으며 양쪽 날개를 펼치면 336만리나 되고 용을 잡아먹고 사는 용맹스러운 새라고 한다.

오른쪽 그림은 글리리 예배당에 소장되어 있는 라파엘로 작의 '천마를 탄 하나님'이다. 천마는 말에다 새들처럼 날개를 달아주어 더욱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게 한 상상속의 동물이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 '금시조를 탄 문수동자'. 직지사 소장. 1760년경.



◇라파엘로作 '천마를 탄 하나님'. 글리리 예배당 소장. 1511년.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④

有時號曰牟尼珠 濟益貧窮故
유시호왈모니주 제익빈궁고
有時名曰無繫鎖 關閉六情故
유시명왈무유쇄 관폐육정고
乃至名 泥牛 木馬 心源 心印
내지명 니우 목마 심원 심인
心鏡 心月 心珠 種種異名 不可具錄
심경 심월 심주 종종이명 불가구록
若達眞心 諸名盡曉 昧此眞心
약달진심 제명진효 매차진심
諸名皆滯 故於眞心 切宜子細
제명개체 고이진심 절의자세

때로 모니주(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여의주)라 한 것은 빈궁한 자를 구제하고 이익되게 하기 때문이요, 때로 무유쇄(얽쇠 없는 자물쇠)라 하는 것은 여섯 가지의 정욕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밖에 니우(진흙 소), 목마(나무 말), 심원(마음의 근원), 심인(마음의 도장), 심경(마음의 거울), 심월(마음의 달), 심주(마음의 구슬) 등 갖가지 다른 이름이 있으니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만약 진심에 통달한다면 온갖 이름을 다 알 수 있지만, 진심에 어두우면 모든 이름에 대해 막히고 만다. 그러므로 부디 진심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부동불요 담연상주 환작구일주인옹
名曰威音那畔人 又名空劫前自己
명왈위음나반인 우명공겁전자기
一種平懷 無纖豪瑕翳
일종평회 무섬호하예
一切山河大地 草木叢林
일체산하대지 초목총림
萬象森羅 染淨諸法 皆從中出
만상삼라 염정제법 개종중출

물었다. "진심이라는 이름은 이미 알았다. 그 본체는 어떠한가."

대답했다. "〈방광반야경〉에 '반야는 형상이 없으므로 생멸하는 모습이 없다' 하였고, 〈기신론〉에는 '진여 자체는 모든 범부나 성문, 연각, 보살, 제불에 있어서 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으며, 전생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후생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끝내 항상 변함이 없이 그 본성은 스스로 만족하며 일체의 공덕을 갖추었다' 하였다.

이 경과 논에 의하면 진심의 본체는 인과를 초월하고 고금에 일관되어 있으며, 범부와 성현의 차별이 없으며, 모든 대립관계가 없는 것이 마치 허공이 어디에나 두루한 것과 같다. 그 묘체는 고요하여 온갖 실없는 말들이 끊어져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면서 항상 고요히 머문다. 그러므로 옛날의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위음나반인이라고도 하고 또 공겁전의 자기라고도 한다. 한결같이 마음이 공평하여 털끝만한 티의 가리움도 없어 모든 산하 대지와 초목, 총림과 삼라만상과, 더러운 것이나 깨끗한 것 등의 모든 법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치 허공이 어디에나 두루하듯
진심의 본체는 인과를 초월한다

3. 진심의 묘체(眞心妙體)

或曰眞心已知名字 其體如何耶
혹왈진심이지명자 기체여하야
曰放光般若經云 般若無所有相
왈방광반야경운 반야무소유상
無生滅相 起信論云 眞如自體者
무생멸상 기신론운 진여자체자
一切凡夫聲聞緣覺菩薩諸佛
일체범부성문연각보살제불
無有增減 非前際生 非後際滅
무유증멸 비전제생 비후제멸
必竟當恒 從本已來
필경당항 종본이래
性自滿足一切功德
성자만족일체공덕
據此經論 眞心本體 超出因果
거차경론 진심본체 초출인과
通貫古今 不立凡聖 無諸對待
통관고금 불입범성 무제대대
如太虛空 徧一切處 妙體凝寂
여태허공 편일체처 묘체응적
絶諸戲論 不生不滅 非有非無
절제희론 불생불멸 비유비무
不動不搖 湛然常住 喚作舊日主人翁

故圓覺經云 善男子 無上法王
고원각경운 선남자 무상법황
有大陀羅尼門 名爲圓覺
유대다라니문 명위원각
流出一切淸淨 眞如菩提涅槃
유출일체청정 진여보리열반
及波羅蜜 敎授菩薩
급바라밀 교수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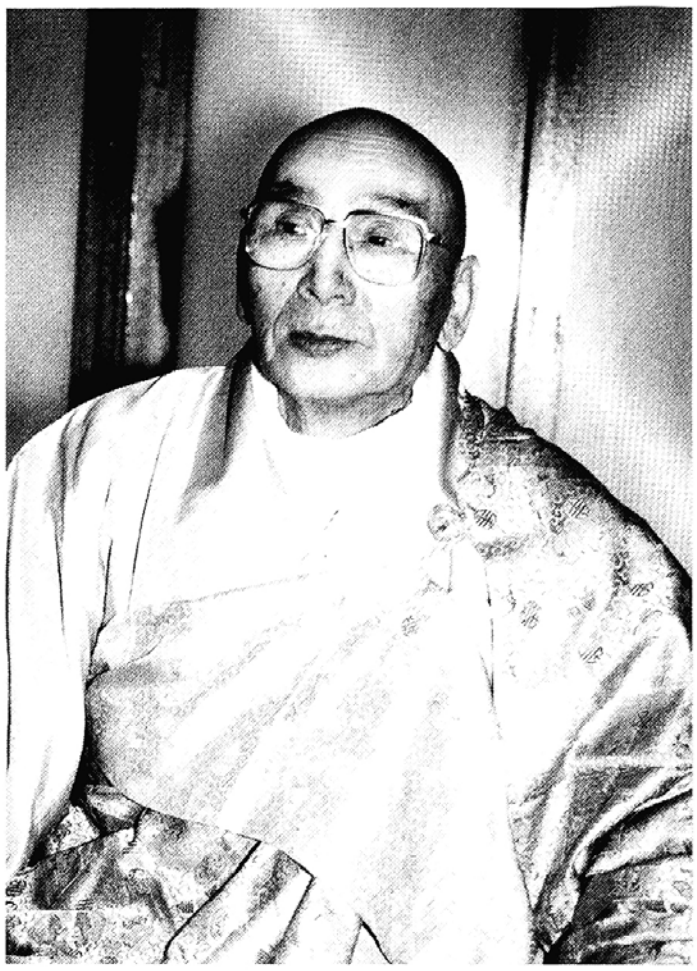
그러므로 〈원각경〉에 '선남자야, 비교할 수 없는 법왕에게는 큰 다라니문이 있으니 그것을 원각이라 한다. 그 원각은 일체의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또 바라밀 등을 유출하여 보살을 가르친다' 하였다.

김원각〈시인〉

전통선 중흥 서암스님 특별법회 지상통계

"마음의 눈 바로 뜨면

서암스님 〈前 조계종 종정〉



선학원(원장 성해스님)은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에서 전 조계종 종정 서암(85)스님을 초청, 제6회 한국불교 전통선중흥 영산대설법회상을 열었다.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를 위한 천일기도 전국선원장·조실·방장 큰스님 특별초청법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법회에는 조계종 사태의 여파에도 불구,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 법당을 가득 메웠다.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 불교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 처방임을 설파한 서암 스님의 사자후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생각이 흐르지 않는 본래의 자기 자리, 전광석화처럼 빛나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여래, 본성,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 평등해서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상념을 초탈해서 본래 여여하게 있는 자리입니다. 삼도육계(三道 六界)와 우주 만물이 창출된 뿌리입니다. 이 마음 밖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니 심외무물(心外無物)이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그 마음자리는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다 하여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이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아까 잠깐동안 묵탁 치고 조용히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깊은 바다와도 같은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그 자리는 영원해서 무한한 시간을 통해서 그 자리가 없는 때가 없고 무한한 공간을 통해서 역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바로 그 자리요, 그 자리가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이런 태굉스런 근본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사느니 죽느니 괴로우니 말을 붙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주인공은 자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우주와 통하는 내가 둘이 아니요 전 생명이 하나인 자리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투쟁이 끊어집니다. 상대가 끊어진 절대적인 이 자리를 알 때 세계는 그대로 평화로워집니다. 형단(形段)이 없는 그 자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그야말로 생사시비(生死是非)를 초월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언제부터 병이 들었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이상스런 습관이 들었습니다. 어지러움은 전부 무명에서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착각에서 모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고 죽는 것도 착각에서 일어나니 전부 잘못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명에서 십이연기가 벌어집니다. 조사 스님들이 죽음 앞에서 태연했던 것도 실로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서산스님이나 사명스님이 적진에 들어가 두려움 없이 행동하신 것도 다 이 생사의 도리를 깨달으신 까닭입니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 환상을 일으켜 고생하는 것입니다. '환병(幻病)에 환약(幻藥)'이라, 없는 병을 보고 없는 약을 쓰는 것이 부처님의 팔만사천 약입니다. 없는 환병이 중생의 팔만사천 병이니까요. 모든 중생이 병이 없으면 부처님의 말씀도 한 마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마음의 힘을 계발하지 못하고, 몇푼어치 안되는 현대문명에 현혹되고 몸과 마음이 약해져 온갖 병 속에서 쩔쩔 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위대한 인간의 힘을 등지고 점점 옹졸하게 조그마한 마음을 쓰며 사는 것이 요즘의 우리들입니다.

약력
- 1914년 경북 영주 生
- 1935년 화산스님 은사로 출가
- 심원사 강원 강사
- 조계종 총무원장
- 봉암사 조실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 조계종 제9대 종정
- 現 봉화 무위정사 주석

"환상 일으켜 고생을 하니
없는 병에 없는 약 쓰는것이
부처님의 팔만사천 약입니다"

불교는 한 마디로 자기를 알라, 자기를 아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불교입니다. 경전을 읽는다, 염불을 한다, 주력을 한다 하는 것이 다 그 자기자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밖의 힘에 의존하고 쩔쩔 매는데 부처님은 절대 그런 것은 없다고 딱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약 내 제자 중에 비록 진리라고 말해지는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건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이 밀어내도 밀리지 않는 확고한 이념체계와 신앙이 있고 그게 믿음이 되어야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참선이란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모든 것은 부처가 근본입니다. '부처는 바로 마음(佛則心)'입니다. 이 마음의 근본을 모르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됩니다.

자기의 근본 생명력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위대한 힘을 가정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 따라가고 구원을 청하는 흐리멍덩한 생활이 오늘날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생명은 각자가 조물주요, 창조주입니다.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 하늘 위에도 내 인생을 간섭할 존재가 따로 없고 땅 밑에도 내 인생을 간섭할 어느 위대한 신이나 그런 힘은 없습니다. 만약 자기를 여의고 그런 힘을 찾는다면 영원히 사도를 헤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희유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지요.

불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한계도 없는 이 마음을 한 번 쓸 때는 모든 원수도 포용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자비무적(慈悲無敵)이라, 절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광겁다생(廣劫多生)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불쌍해요. 그리고 내 동포 형제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한 끼 굶고 앉아 있어도 기쁘게 사는 인생이 있는데, 이런 탄탄대로를 등지고 옹졸하게 가시밭 속으로 들어가 사는 게 중생심입니다.

황토흙벽돌기계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사용간편 5분교육후 생산
  여성, 노약자등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이외규격은 별도주문생산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편리한 생산, 저렴한 가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 황토관련 전문회사

지역 총판 대리점 모집
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 충남, 충북, 대전
3) 경남, 경북, 울산, 부산, 대구 4)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위와 같이 광역단체로 총판대리점주를 4분만 모십니다.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34-0223 / 팩스 : 0671)34-1237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바닥 난방에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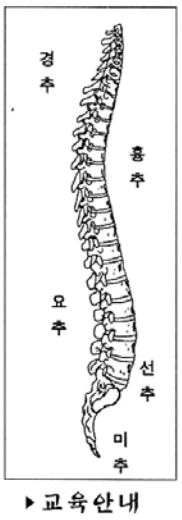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영업부 : 0343)445-6090
·FAX : 0343)445-3370

명예퇴직창업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안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을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사범기공사,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 부여

스님·법사·포교원운영자·물리치료사·침구사·대체의학연구자

▸ 교 육 내 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 교 육 안 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협회에 비치됨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855-6461/859-4156, 02)522-1122, 011)522-1122

연대불고

지사·지국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김해지사	0891-43-5599
안산지사	0345-411-4580
대전지사	042-625-1080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김주지국	0416-55-0020
진주지사	0591-747-0106
청주지사	0415-63-3873
춘천지사	0361-241-0633
포항지국	0562-252-7749
예산지국	0458-33-6097
고성지국	0558-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진통선 중흥 서암스님 특별법회 지상중계

세상이 부처님 품안"

불교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종교
한계도 없는 마음 한번 잘쓰면
원수도 포용하고 사랑합니다



◇10일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열린 특별법회에서 서암스님은 "개인의 수행이 사회를 맑히는 에너지원"이라고 설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에 흘러가는 그 진리에 순응하며 살라고 했지요. 그 진리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있게 하는 생명의 진리이고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서도 그 속에서 좋기도 하고 언짢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밤새 온갖 꿈을 꾼다 하여도 깨고 나면 한바탕의 그림자임이 분명하지요. 이렇게 꿈 속의 모습이 모두 그림자인 줄 알고 좋고 나쁘던 경계는 사라졌지만 꿈을 꾸던 그 주인공은 내내 근원이 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물건은 물 한 방울도 없앨 수 없는 것이 만법의 이치입니다. 오늘날에는 철학이나 과학도 '물질불변론(질량불변의 법칙)'이라 하여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돌이 먼지보다 작은 가루로 부수어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되었다 해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모양과 위치만 바꾸어 우주 공간에 떠 있다가 언젠가는 또 인연따라 모이고 또다시 흩어졌다가 모여집니다.

하찮은 이런 물질도 없어지지 않는데 어찌 소소(昭昭)하게 울고 웃고 온갖 것을 관단하는 이 역력한 주인공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귀신이라도 되어 헤매고, 자기 업에 따라 새나 짐승이 되기도 하고, 지옥 천당의 육도 중생에 들락날락 할지언정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생멸하는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허깨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반성하고 그 마음의 위대한 힘을 찾아내는 것이 한 마디로 선입니다. 우리가 바른 이치를 깨우쳐 꿈을 깰 때 시방삼세의 모든 우주가 나요, 내 몸과 둘이 아닌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알면 자타(自他)가 없고 피아(彼我)가 없고, 선악의 시비가 일어나는 갈등이 없어집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주 전체가 똑같은 부처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면 전부 부처님의 품안에 살고, 마음의 눈을 감으면 부처님이 앞에 서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련하고 고약한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난 것이라 동정하고 그를 위해 바로 이 그것이 공부입니다. 나쁜 습만 제거하면 저절로 빛나는 자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자기를 보게 되면 참으로 편하고 좋습니다. 참선을 한 시간 하는 것이 백년 사는 것보다 좋다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찾아 분명히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심에 끄달리지 말고 해야 할 일, 안해야 할 일을 잘 살펴 항상 자기 중심, 자기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은 뭘 하든지 자기 인격이 수양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 빛나는 정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언젠가는 성불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시간 익히고 두 시간 익히고 자꾸 익히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흐뭇한 자기 인생관이 경험됩니다. 오뉴월 한더위에 땀을 흘리며 앉아서 정진할 때도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훤히 보입니다. 노력한 시간만큼 자기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지요.

어떤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와도 꿋꿋이 행동하지 않아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말 말이 행동 행동이 남을 도와주는 행동밖에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오늘 법문하는 이곳 선학원은 경허, 만공, 만해, 용성 스님 등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유서깊은 곳입니다.

일제하 당시 미나미 지로 총독이 한국불교를 속화시켜 도인(道人)의 출현을 막고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31본산회의를 열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때 회의석상에서 마곡사 대표로 나온 만공스님이 총독의 의도를 미리 알고 벽력같이 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만공스님의 일갈에 혼비백산해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어 만공스님은 "전직 테라우찌 총독이 한국의 스님들을 괴롭혀 아귀지옥에서 무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 먼저 그를 구출하시오"라며 일본의 음모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유마거사와 같은 참 도인의 사자후는 천지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혼돈도 이 어른들의 정신을 본받아 다시 등불을 밝힌다면 일거에 물리칠 수 있고 새로운 불교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불교운동은 마음의 평정을 구하는 각성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 국토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웃에는 정신이 빠진 사람들이 헤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구해 줄 것입니까. 불교의 자비사상이 아니고는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불교가 성할 때는 나라가 성하고, 불교가 쇠하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오늘날도 불자들이 앞장서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린다면 하루아침에 평화로운 정토를 건설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논두렁 밑에 잠시 앉아서 한 생각을 내면 그 사람이 스님이고 그 곳이 절이며 그것이 불교입니다. 천백억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가르친 단군 조상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마거사가 중생의 병을 대신 앓듯이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정진한다면 불국정토가 바로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다생에 익힌 나쁜 습의 뿌리 제거하면 빛나는 자기와 만나 이타행 저절로 돼요"

글을 깨치지 못하면 귀신이라도 되어 헤매고, 자기 업에 따라 새나 짐승이 되기도 하고, 지옥 천당의 육도 중생에 들락날락 할지언정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생멸하는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허깨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끌어 줄지언정, 철이 덜든 그런 중생을 상대로 원수를 삼거나 해치지는 말아요. 누가 내 얼굴에 똥을 칠해도 씩 웃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공부이고 참선이며 염불이자 기도입니다.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묘한 이치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전부 하나로 통합니다. 천경만론(千經萬論)이 모르고 보면 말이 다 다르지만 알고 보면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과법, 윤회법, 인연법인 불교를 공부하는 이는 모든 것을 자기가 해소하고 책임질 줄 아는 인생관을 갖게 되고 일거수 일투족마다 세월을 허송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불교 공부가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생에 익힌 나쁜 습을 뿌리 뽑는 이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겨 삶이 여유로와집니다.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어렵지만 자꾸 정진을 하면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공부를 해보면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과학도 부처님 법 문턱에 다다른 것 같지만, 아직 부처님처럼 자기 생명에 몰입해서 둘이 아닌 세계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닌데 칼을 들고 목을 자르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근본 진리를 알려고 하면 잠을 자든 일어나든 자기를 응시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 빛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가 의식하며 행동하지 않아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말 말이 행동 행동이 남을 도와주는 행동밖에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오늘 법문하는 이곳 선학원은 경허, 만공, 만해, 용성 스님 등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유서깊은 곳입니다.

일제하 당시 미나미 지로 총독이 한국불교를 속화시켜 도인(道人)의 출현을 막고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31본산회의를 열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때 회의석상에서 마곡사 대표로 나온 만공스님이 총독의 의도를 미리 알고 벽력같이 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만공스님의 일갈에 혼비백산해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어 만공스님은 "전직 테라우찌 총독이 한국의 스님들을 괴롭혀 아귀지옥에서 무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 먼저 그를 구출하시오"라며 일본의 음모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유마거사와 같은 참 도인의 사자후는 천지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혼돈도 이 어른들의 정신을 본받아 다시 등불을 밝힌다면 일거에 물리칠 수 있고 새로운 불교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불교운동은 마음의 평정을 구하는 각성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 국토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웃에는 정신이 빠진 사람들이 헤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구해 줄 것입니까. 불교의 자비사상이 아니고는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불교가 성할 때는 나라가 성하고, 불교가 쇠하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오늘날도 불자들이 앞장서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린다면 하루아침에 평화로운 정토를 건설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논두렁 밑에 잠시 앉아서 한 생각을 내면 그 사람이 스님이고 그 곳이 절이며 그것이 불교입니다. 천백억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가르친 단군 조상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마거사가 중생의 병을 대신 앓듯이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정진한다면 불국정토가 바로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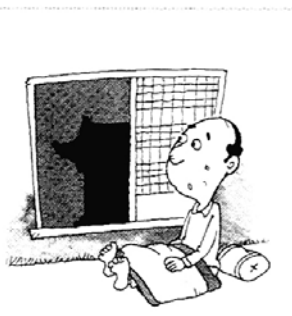


이현덕 〈전자신문 뉴미디어 국장〉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운게 세월이라고 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지만 세월의 나이테가 더할 수록 내 모습은 볼품없고, 초라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세월은 항상 내편이려니 생각하면 어리석다. 하지만 나도 얼마 전까지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97년 6월 5일 토요일 오후, 퇴근후 밖에 나갔던 나는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졌다.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 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나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보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해 다시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제발 목숨만 구해 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아내에게 의료진은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사 의식을 회복해도 정상인 생활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력 덕분이었을까. 나는 24시간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의료진은 "기적에 가깝다"며 수개월의 요양을 권했다.

회사의 배려로 병가를 받은 나는 가까운 분의 소개로 해인사 길상암에서 그해 여름 요양생활을 했다. 아내와 함께 찾은 길상암은 어릴적 어머님 치마폭처럼 포근하고 낯설지 않았다.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것 처럼 아늑한 느낌이었다. 당시 주지인 명진스님은 "모든 게 인연이니 마음편하게 지내라"며 방 하나를 내주셨다. 스님은 80년대 초 해인사 주지를 역임한 후 길상암에서 염불과 함께 자비행을 실천해 온 당대 최고의 염불승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절생활은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속세생활이 지치면 "조용한 절에 가서 며칠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가끔 듣는다. 하지만 이는 서울에 가보지도 않고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다"며 우기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선 하루 세차례씩 예불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새벽 4시와 낮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6시에 예불을 드렸다. 공양도 새벽 5시, 낮 11시 30분, 저녁 5시에 했다.

절 식구들은 밤 9시면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이튿날 새벽 3시 30분이면 에누리 없이 일어났다. 하지만 나에게는 밤 9시는 퇴근해 TV종합뉴스를 볼 시간이고, 새벽 5시면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시간이다. 첫날밤 낯선 환경에 잠을 못이루고, 늦게까지 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는가 했는데 도량석 치는 소리가 들렸다. 허둥대며 여명속에 일어나 몽롱한 상태로 새벽 예불에 참석했다. 아침공양은 밀려오는 졸음을 못이겨 먹는 시늉만 내고 방으로 돌아와 잠에 골아 떨어졌다.

절 생활은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의 장이였다. 오랫동안 맛보지 못한 자연과 벗할 수 있어 좋았다. 휘영청 밝은 달이 솟아오르면 아내와 요사채 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집안 이야기도 했다. 산사의 바람과 풍경소리는 명리(名利)에 찌든 내 영혼을 정갈하게 씻어 주었다. 공양후 스님이 주시는 차를 마시며 듣는 법문은 내 삶의 큰 양식으로 차곡차곡 마음속에 저장되어 갔다.

스님께서는 "부처님 말씀이 수없이 많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 말씀하셨다. 죽고 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며 생과 사가 같다는 것이었다. 오직 윤회할 뿐이라고 하셨다. 전생의 인연따라 내가 태어난 것이며 그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닦아 영원한 해탈인의 경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스님의 엄격한 수행자세와 자비행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항상 정진하는 모습이었고, 예불시간에 늦거나 빠지는 일을 보지 못했다. 그 바람에 나도 예불에 한번도 불참한 적이 없다. 칼날위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곧은 수행자가 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사선님어 길상암서 새 세상 체험
'불생불멸' 새기며 매일 3회 예불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관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관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관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관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불법승 삼보 주처…예배·수행·전법 공간



◇사찰의 중심에 있는 대웅전. 모셔지는 주불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



◇해인사 장경각은 수다라장·법보전·동서간고 등 4동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수다라장은 짧은 서까래와 긴 처마서까래를 걸친 촘처마집의 우진각건물로 내부의 경판을 보호하고자 통풍과 온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 외벽에 물박이 살창을 두었다.



◇불상을 보호하고 장엄하기 위해 불상 머리위에 설치된 닫집. 화려한 보궁형태로 장식돼 있다.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23

집

집은 단순히 가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터' '보호처' '안식처'라는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삶의 근거, 목숨의 뿌리, 안락함의 보루로서 삶의 둥지를 의미한다.

불보살의 존상을 봉안하고 스님들이 수행하는 집, 모든 불자의 예배·수행·전법의 중심이 되는 곳이 사찰이다. 사찰의 각 전각은 교리에 의거해 지어졌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구현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사찰 건축은 수미산(須彌山)이라 불리우는 우주구조의 불교적 상징체계를 본따 상단, 중단, 하단 등 3단으로 나뉘어진다. '상단'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무색계 4천의 세계를, 불이문에서 대웅전 경계(불당 및 강당과 선방 포함)에 이르는 '중단'은 색계 18천의 세계를, 요사채를 포함한 하단은 사천왕문을 중심으로 한 욕계 6천의 세계를 각각 상징하고 있다.

사찰의 중심을 이루는 불당은 그곳에 주존으로 모신 불보살의 명칭에 따라 대웅전 아미타전 대적광전 관음전 등의 이름이 붙는다. 따라서 불당은 대승불교 차원에서 다양하게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불당이 가람의 중심적인 건축물이 되고 더불어 승원과 탑이 조성되면서 사원 건축의 기술이 날로 향상되고 규모도 확대되어 왔다.

집(우주)의 중심은 기둥과 대들보로 지탱된다. 대들보가 빠지면 서까래를 걸칠 수 없다. 대들보는 지붕을 상징한다. 불교에서는 대로교사를 대들보에 비유하기도 한다. 또한 집에 문패가 붙듯 불보살이 거처하시는 각 전각에도 현판이 붙는데, 그 현판은 어떤 불보살이 상주하시는지 알려준다.

■대웅전

대웅보전이라고도 하며 항상 사찰의 중심에 위치한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에 두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로 봉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웅보전이라고 할 때는 주불로 석가모니불,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시며, 각 여래상의 좌우에는 제각기 협시보살을 봉안하기도 한다. 또한 삼세불과 삼신불을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 삼세불로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보살(미래)과 갈라보살(과거)이 협시하게 되며, 다시 그 좌우에 부처님의 제자인 가섭과 아난의 상을 모시기도 한다. 삼신불은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으로 구별하며, 일반적으로 법신은 비로자나불, 보신은 아미타불과 약사여래, 화신은 석가모니불을 지칭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웅전에 봉안하고 있는 삼신불은 선종의 삼신설을 따라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을 봉안하는 것인 통례로 되어 있다.

대웅전의 중심에 불상을 안치하고 있는 불단을 수미단(須彌壇)이라고 하는데, 이는 불교의 세계관에서 그 중심에 위치한 수미산 꼭대기에 부처님이 앉아 자비와 지혜의 빛을 발하고 부처님이 있음을 상징한다.

■장경판전(대장전)

불경이나 그것을 인쇄하기 위한 목판을 보존하고 있는 전각으로 사찰에 따라 대장전 혹은 판전, 법보전 등으로 불리운다.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국보 52호)에는 세계 문화유산인 고려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다.

■대적광전

대적광전은 화엄전, 비로전, 대광명전으로도 불리우며 진리 그 자체로서 우주의 본체인 진여 실상 등의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중심으로 보신 보사나불, 화신 석가모니불을 모셨다. 이같은 삼신불사상은 부처님의 위대한 인격을 그 본질 및 현상, 기능의 세 측면에서 각기 나누어 본 것으로, 법신 보신 화신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원융무애한 관계이다. 대적광전에는 후불탱화 역시 삼신불탱화를 모신다.

주존불 명칭따라 불당 이름도 다양
불교적 우주관 상징 3단계 배치

■극락보전(아미타전)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시며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는 아미타부처님과 그 협시보살들을 모신 법당이다. 미타전, 아미타전, 무량수전, 수광전이라고도 한다. 일부 사찰의 경우 극락전이 사찰의 주된 전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건물 중 두 번째로 오래된 부석사 무량수전이 이에 해당된다. 극락보전에는 아미타부처님과 그분의 협시보살로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혹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진다.

■관음전·나한전

원통전으로도 불리는 관음전은 항상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관찰해 온갖 고통에서 구제해 주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이다. 협시로서 남순동자 해상용왕 등의 존상을 모시며, 그 뒤에 성관음도 백의관음도 천수관음도 11면관음도 수월관음도 혹은 아미타후불탱화를 봉안하고 있다.

나한전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여 좌우에 석가모니의 제자 가운데 아라한과를 얻은 성자를 봉안한다. 보통 5백인의 아라한을 오신 오백나한전과 16대 아라한상을 모신 응진전으로 대별된다.

■삼성각

칠성과 독성(나반존자) 및 산신을 모셔놓은 전각. 세 분을 한 곳에 모셨을 때는 삼성각이라고 하고 나누어 모셨을 때는 각각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이라고 이름한다. 삼성각은 불교에 우리 나라 고유의 토속신앙이 융화돼 나타난 형태다.

■닫집·불감(佛龕)

닫집은 부처님을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불상의 머리위에 설치되는 것으로 '천개 또는 보개'라고도 한다. 부처님이 계신 수미단의 상부를 장엄하는 것이므로 화려한 보궁의 형태로 장식되며, 내원궁, 적멸보궁 등의 현판이 붙는다.

불감은 불상을 모시는 조그마한 집을 말한다. 좌우에 여닫는 문이 있으며 그 문을 닫으면 완통형의 함이 되는데 주자라고도 한다. 스님들이 만행할 때 모시고 다니며 예경하기도 하였으며 스님들의 개인적인 원불로 모셔지기도 하였다. 이동식 불전인 셈이다.

■요사채·해우소

요사채는 스님들이 거처하는 집으로 불사를 관리하고 강당, 선당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의 의식주를 뒷받침해 주는 생활공간이며 휴식처다.

대중 요사에는 큰 방(대중방이라고 함)을 비롯, 대소의 스님방과 공양주 및 불목방, 부엌, 헛간, 곳간 등이 들어서고 별채로 된 객실과 반빗간(취사전용부엌) 또는 한댓부뚜막 및 식당, 고루, 수각 등이 어우러져 한 동을 이루기도 한다. 이 요사들은 다른 건물들의 뒤편에 있으므로 후원(後院)이라고도 한다.

해우소(解憂所)는 뒷간을 일컫는 말로 자연으로부터 나온 음식물을 먹고 배설된 인분을 자연스레 대지에 되돌리는 자연순환의 연결고리를 고려해 지어진 건물이다.

문경 김용사, 순천 선암사, 홍천 수타사, 삼척 영은사, 오대사 중대 사자암, 영월 보덕암의 해우소는 오금 보기 드문 사찰 해우소의 원형을 지녔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불교교리에 의거해 지어진 사찰 전각들은 나름대로의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위 지형과 산세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속리산 법주사 전경.



◇해남 대흥사 담의 길상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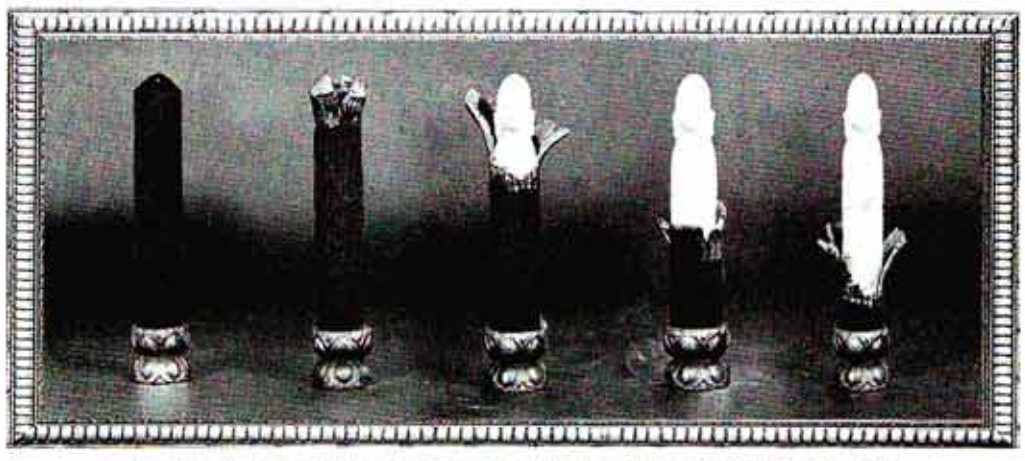


◇금동삼존불감(국보 제73호). 높이 18㎝. 고려초기 작. 간송미술관 소장.

의장 19350
등록 28434
특허 48510

국내 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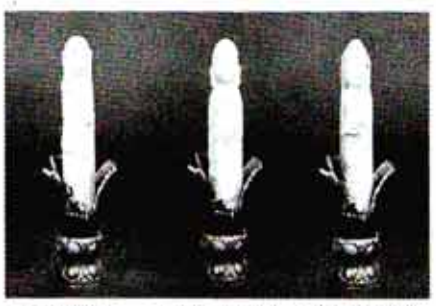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향이 원추형으로 금색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30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전부 타고 난 다음에는 향 연기도 소멸되고 타고난 재의 모습은 예술형상으로 남으며 법상은 매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점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고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각종 기념행사,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당향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Tel : 051) 466-3731~2 Fax : 051) 466-3733

※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기탁됩니다 ※

■ 구입 및 대리점 문의 바랍니다 ■

전국판매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경기/대전·충청남,북/ 광주·전라남,북/
부산·경남/대구·경북/강릉·강원/제주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자유롭게 살려면 마음공부 밖에 없어

우리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마음이 즉 불이다'라는 말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내가 부처라고 하면서 그대로 부처노릇을 하는 걸까요?

'마음이 즉 불이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삼학의 진의도 들어 있고, 두두물물

선업이든 악업이든
나를 다스려서
그릇을 비우고
업이 녹아져야
나 발견 할수 있어

이라고 하는 그 뜻도 거기 들어 있으며, 일체 생활하는 법이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악과 선도 거기에 다 들어 있고 말입니다.

마음,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부처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는 그 두 가지 중생과 부처, 즉 들이 아닌 그 도리가 얼마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생명들의 그 의식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색깔도 아니고 불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에 광대무변하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잘 아신다면 생활해 나가는데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은 집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시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것과 보는 데 따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의 진실한 그 참마음은 어디 가고 그저 나오는 대로 움직이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내고 누가 조금만 언짢은 말을 해도 화를 벌컥 내는 마음, 그 화내는 마음은 뭐며 '내가 이러면 안되지'하는 마음은 또 뭡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본다면,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 나도 부처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아만심을 가진다면 '나'라는 욕심이 들어가서 더 공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 있는 그 중생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모두가 뭉쳐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닦아라"하면 "닦을 게 뭐 있어서 닦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모두들 청산유수로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도 진짜 행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다스리면서 점차적으로 가다보면 "허허, 이게 닦을 것도 없고 다스릴 놈도 없구나. 다스리는 놈을 다스리는 그 자체를 받는 그 놈."

생각해 보십시오. 몸 속에 헤아릴 수 없이 악업·선업이 일어납니다. 그걸 한 번 되돌아 본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지은 바 그대로 입력이 돼서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대로 여러분은 속아요. 바깥으로 끄달려 물질세계에서 속고, 보고 듣는 대로 속아서 끄달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속아서 끄달리고….

그리고 그냥 마음이면 마음이지 왜 한 마음이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이 한몸을 봐도 한마음이요, 바깥에 모두를 봐도 한 마음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 뼈와 살을 빌어서 몸 하나를 받았지만 과거에 살던 그 인연·인과로 인해서 악업도 뭉치고 선업도 뭉쳐서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상한지 모릅니다. 참 묘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조잡하기도 하며, 어떤 때 보면 땅에 붙어 사는 진딧물과 같기도 해요. 우린 한 그릇에 붙어서 진딧물처럼 사는, 하찮은 벌레와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나무에 진딧물이 그냥 줄줄이 붙어 있듯이 말입니다. 예전 얘깁니다마는, 어떤 때 그걸 보면서 '아하, 우리 인간도 한 나무에 붙어서 저렇게 진딧물처럼 빨아먹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넓고 앞뒤가 막히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서 오로지 이 세상의 물질이 다 공했다는 그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에 살던 그 인과가, 예를 들어서 남을 이익하게 해서 선업을 받은 것도 있고, 남을 악하게 해서 악업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건 단순히 참회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보고 궤뚫어서 되는 것도 아니며, 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못났든지 잘났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면서 그릇을 비워야 업이 녹아져서 홀연히 밝게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수없이 오고 가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질문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서로 질문을 주고 받는 한마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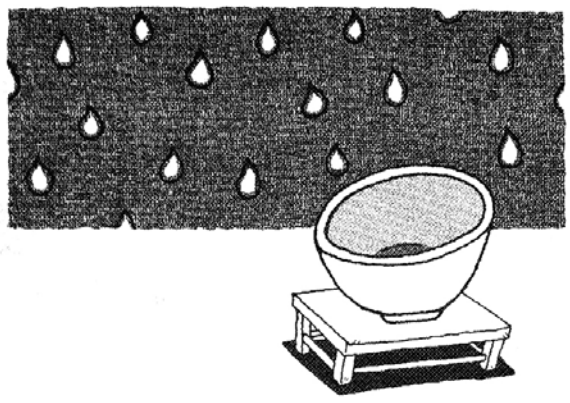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물질세계 모두 空해 보고들은 사이 없어
내가 물같은 마음 가질때 물과 한마음

한 마음, 꽃 한송이, 한자리, 다보탑의 반좌를 내준, 한발, 진딧물 발 하나도 빼놓지 않은 것이 한다발이다 이겁니다. 진딧물 발도 발은 발입니다. 그래서 평발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은 발. 평발이라고 해서 부처님 발이 반듯하게 생겨 평발이 아니라 수많은 분의 발이 한발로 이 자리를 같이 디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자기만이 위대하고 우뚝하게 선 것인 양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진리가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몸이 있고 움직일 때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도록 마음이 비어야 실오라기 하나 버리지 않는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차원에 따라서 대기 설법을 하셨지마는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동문서답처럼 여러분한테 던지기도 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산으로 산으로 다닐 때인데 어느날 하도 지쳐서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믐이어서 캄캄한 밤이었는데, 자성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날까지 10년동안을 다니면서 얼마나 봤느냐" 그러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왜 대답이 없습니까? 얼마나 봤느냐고 물었다는데요.

(신도: 본 것이 없습니다.)

무질서하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어리벙벙했죠. 나를 발견해서 채찍질을 받으면서도 어리벙벙했으니까요. 내가 어린애처럼 탄생이 됐다고 해서 다 지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벙벙하게 가만히 앉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10년 동안이나 봤어도 하루 본 것만도 못하고 한 찰나 본 것만도 못합니다." "이 육의 눈으로 아무리 봤던들 무엇을 봤다고 말하리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깜깜한 데를 또 일어서서 가는 데 또 "너는 깜깜한 데 다닐 때 보이더냐 안 보이더냐"하고 물으신단 말입니다. 이 소리는 참고적으로 하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정말 방망이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받아칠 겁니까, 맞을 겁니까?

그러니 이 마음도리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커져서 여러분 스스로 방망이를 들어야 나도 방망이를 들죠, 여러분이 방망이가 없으면 나도 방망이가 없어요. 낮에 본 건 얼마나 됐냐고 했는데 또 밤에 본 건 얼마나 봤느냐는 얘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낮에 본 것은 얼마나 되며 밤에 본 것은 얼마나 되느냐'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지껏 공부했으면서 뭐라고 대답도 못해요.

(신도: 순간순간 돌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사발에 담을 걸 조그만 종지에다 담고 그리고 접시에다 담고 있으니 그게 될 말인가요.

물은 어엿하게 컵에다 담아야 하고 밥 먹을 땐 숭늉을 대접에다 담아야죠, 밥은 주발에다 담든지 공기에다 담든지 그렇구요, 요샌 또 접시에다 다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접시에다 먹든지 주발에다 먹든지 그런 것은 홈잡지 않을테니까 대답을 좀 해보라구요. 대답할 수 있는 대로 해봐요.

(신도: 스님 질문에 답변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공부를 하면서 느낀 바를 스님 질문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제 마음을 보면 낮에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밤에도 역시 꿈에도 보고 제가 느낄 때는 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꿈에도 제가 제 몸을 중심으로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하고 상관없이 수없이 봅니다. 우선은 그렇게….)

그건 부처님의 가르친 그 뜻에 의해서 이 진리의 도를 모르는 소립니다.

(신도: 주야장창 다 봐도 눈 깜짝할 새 없다.)

… 뼈와 살이 다 합쳐져야 될텐데, 가죽밖에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 대답은 아직 모르는 단계예요.

(신도: 스님께서 공부가 되신 만큼 보입니다.)

그것도 아직 모르는 것이오. 또 대답할 사람?

(신도: (쪽지를 드리고 나서) 마음으로 자기가 베풀 줄 알아야지, 베풀 줄 모르면 뭐든지 불평이고, 생활에서 부딪쳐 봐야 알고…. 저는 말 못하는 짐승하고 부딪쳐 봤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인데도 내가 사납게 하면 짐승도 사납게 하더군요. 내 마음을 그 짐승한테 줘봤더니 그 짐승도 가만히 있습니다.

한 번은 소가 별안간 막 뛰고 그러더라구요. 소가 뛰면 소도 다치고 저도 다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줘 가면서 달래고 있는데 그 순간 내가 넘어졌습니다. 소에게 마구 짓밟히는데 그때 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소도 죽고 저도 죽게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너 그러면 안된다' 그러면서 흙구덩이에 쓰러져 순간 마음을 냈더니 소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에게 짓밟혀 멍이 들었지만, 소한테 치여서 논에 쓰러져 부딪쳐 봤더니 소도 그제서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법이란 것이 참 쉽고도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줄줄 모르면 말 못하는 짐승도 나한테 피해를 주더라구요.)

마음공부의 수행을 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도: 스님의 그 말씀은, 밤에 본 것이 얼마나 있으며 낮에 본 것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밤에 봤다는 것은 수천 수만의 별들을 보았어도 그 본 것이 없고 또 낮에 많이 보았다 해도 그 나름대로 지워나갔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했는데 마음이 있으면 좀 내놔 보세요.

(신도: 마음도 그 마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뿐입니다.)

잘 다듬어요, 그 뜻은 아주 갸륵한데, 다듬어야겠어요. 알았죠! 무우·배추를 갖다 놓고 양념해서 김치를 맛있게 담가서 먹게끔 하란 말입니다.

아까 거사님이 소와 함께 실천해 가고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 월정사에서 있었던 얘깁니다. 내가 20대 때의 얘긴데, 월정사에서 스님네들이 단식해가면서 참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식을 하면서 정진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01)

남이 준 씨, 내 씨를 함께 마음에 묻고.

내가 있기에 남한테 따귀도 맞고, 내가 있기에 불교를 찾고, 내가 있기에 우주가 있다. 내가 나오지 않았다면 '고'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고 세상도 없다. 내가 있기에 모든 게 있다. 일체 만법이 나로부터 벌어지고 나로 인해 생겼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그때가 태초이고 내 몸 난 것이 화두이다. 그러므로 나를 근본으로 잡아서 놓고 또 놓으면서 나투고 돌아가는 공의 이치를 공부해야 한다.

몸 자체가 화두다. 태어난 자체가 화두다. 일 자체가 화두다. 이 공적한 우주의 모습이 화두다. 여기에 다시 화두를 덧붙인다면 어느 때 저 무한으로 깊은 세계를 다 보겠는가.

참 나와 생각, 육신의 삼합이 이뤄져야 어긋남이 없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 이 삼합이 아니고는 사람 하나 태어날 수 없다.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라 할 참 나가 아니었더라면 태어날 수 없고, 업식이 아니었더라면 태어날 수 없고, 부모의 정혈이 아니었더라면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나온 소식을 알려면 '나온 자리로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따로 화두를 들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운전수가 없어도 안되고 차가 없어도 안되고 기름이 없어도 안된다. 생명이 없어도 안되고 분별이 없어도 안되고 마음내는 게 없어도 안된다. 그러니 어느 게 높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하겠는가. 통틀어 그냥 들고 나는 대로 일심이요 화두인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음으로써 생각을 낼 수 있고, 생각을 낼 수 있음으로써 움직인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명이 어디 있겠는가. 자신이 곧 화두임에도 화두에 화두를 거듭 든다면 껍데기에 껍데기를 덧씌우는 것과 다름없고 굵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된다.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는 것을 두고 이뭐꼬? 하지 말고 뛰어넘어라. 생활이 그대로 진리이고 도이고 여여함이고 심성의 과학이다.

흔히들 나를 찾는다고 한다. 그러나 본래 나로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것이지 따로 무엇이 있어 찾는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찾는다느니, 망상을 끊는다느니, 또는 이 놈이 무엇인고 하며 거기에 매인다면 몇 천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격이 되기 쉽다. 지금 그대로가 삼매이고, 그대로가 참선이고, 그대로 화두인 줄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 생활이 화두이자 참선이기에 누구에게서 화두를 받을 것도 줄 것도 없다. 자신의 존재가 바로 화두인데 따로 화두를 받아 가지고 들었다 놓았다 하다 보면 참 나를 생각해 볼 여지가 없게 된다. 남이 준 화두는 빈 맷돌 돌리는 것이요 헛바퀴 도는 것이다. 시대가 변천해 가는 대로 아는 것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따로 화두를 들고서는 급변하는 지금 세상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과학적으로 아는 게 너무 많아진 현대인에게 과거와 같은 화두 참선은 오히려 마음 공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천칠백 공안 중에 한두 가지 알았다고 대답을 해 보았자 벌 게 아니다. 다른 것 볼 것 없이 이 육신 뭉쳐진 것을 보아라. 공부하려면 그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한다.

석가세존 당시에 화두 주는 것 보았는가? 그대로 사방이 툭 터져 내가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고 나오는 데로 나오는 것이지 왜 남이 주는 화두를 들고서 들지도 나지도 못하는가.

통 밖으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 있고, 몸 밖으로 벗어나야 몸을 굴릴 수 있고, 지구 밖으로 벗어나야 지구를 굴릴 수 있다. 이 뭐꼬? 하면서 언제 자기를 생각해 보겠는가.

화두란 본래 모든 걸 거기에 넣어 다 돌리라는 뜻이다. 화해서 나투고 돌아가는 게 실상의 이치이거늘, 그렇기에 돌리라 했는데 돌리기는커녕 화두라는 것을 들고 놓지조차 못하니 맛을 볼 수가 없다. 이 뭐꼬?를 주었으되 사랑으로 고정관념을 짓지 말고 돌리라고 한 것인데 돌리지는 않고 들고 있으니 안되는 것이다.

돌과 돌이 부딪쳐야 불이 번쩍 난다. 그런데 돌을 양손에 들고 이 뭐꼬? 하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무엇에 쓰려는가. 번쩍! 하고 내려놓고 또 번쩍 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것을 '어느 큰스님이 주셨다'는 생각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 벌써 나와 화두가 둘이되었고 집착이 붙어서 잘못 들어가는 것이 된다.

남이 준 씨와 내 씨를 함께 마음속에 묻어라. 하나로 넣고 돌리면 인과 연이 계합되어 싹이 튼다.

협찬 : 한 마 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한생각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도리

☞ 15면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일어나더니만 "사람의 코는 내리 뚫렸는데 왜 소의 코는 치켜 뚫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소는 치켜 뚫려 있기에 빗물이 전부 들어가서 코가 막혔다 이겁니다.

그 중간을 내가 빼놨으니까 얘긴데, 그때 다른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무릎을 탁 치고 껄껄대고 웃으니까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뛰어 올라가서 스님들한테 얘기해 가지고는 법상을 턱 차려 놨습니다. 그래 앉혀 놓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코는 내리 뚫려서 비가 안들어 가고 먼지도 안들어 가서 막히질 않는데 소 콧구멍은 막혔으니 그것은 무슨 연고인 줄 아느냐고 악을 벽력같이 쓰더라 이 소립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모르면 나도 모르죠 뭐. 그렇게 설법을 했는데 알아야죠.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요, 어쩌면들 그러십니까?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발현되지 않고는 대답을 못허요. 이런 말을 해도 척척이고 저런 말을 해도 척척 갖다 붙이는 대로인

삼천대천세계를
씨앗 하나에 넣어도
큰 그릇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모자라지 않아요

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신도: 보았다고 하는 그 말에 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데에 있기 때문에 봤다고 말을 하면 본 것이 아니기에 그냥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은 빛이 없기 때문에 밤이지 낮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서 봤다 안봤다 하는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에 집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은 말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야 해요. 대신 내가 밥 먹어 줄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당신만이 알 수 있고,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안보고는 네가 알아서 다 증명할 수 있다' 하고 믿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채찍질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한 생각이 이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도리를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기에 그 진리의 진의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낮에 아무리 봐도 다 보지 못해요. 다 보기는 커녕 오히려 산란심만 일으키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것은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로 듣고 보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듣고 보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제일이다 해도 한데 모아서 한 생각이 두뇌로 올라가면 두뇌에서 결정을 짓는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팔이 이렇다, 다리가 이렇다, 눈이 이렇다, 귀가 이렇다, 이런 말할 것 없는 대답이라야 된다 이 소립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다니다 보니까 밤도 밤이 아니고 낮도 낮이 아니더라구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다 라는 뜻은 전부 공해버렸는데 밤이 아니다 낮이다, 낮이 아니다 밤이다 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까부터 얘기한 게 다 가버리고 없듯이, 한 사이가 없고, 우리가 지금 살아도 사는 사이가 없고, 가도 가는 사이가 없고, 와도 오는 사이가 없고, 봐도 본 사이가 없고, 들어도 들은 사이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라도 손바닥만한 나라가 반동강이로 찢렸을 뿐 아니라 전자에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중국 사람들한테 시달렸으며, 사글세 방에 세들어 가지고는 시달림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나 어려서만 해도 너무 비참해서 신발도 못 신고 반쪽이 다 달아나간 걸 앞에만 걸쳐 신고 다닌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뭘 먹고 어떻게 살았든, 지금은 좋은 것을 먹고 풍족하게 잘 살아서인지 귀한 줄을 모르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하면 다 내다버리고 그럽니다. 너무 흔하니까요.

흐르는 물소리 들어보고 흐르는 물을 보셨죠? 또는 물이 얼기도 하고, 파도 치기도 하며, 잔잔하기도 하죠. 온통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죠. 이 사계절을 다 볼 때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나 아님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숙연하게 잔잔해집니다. 반면 파도 치는 걸 보면 아주 산란해집니다.

그러니 이것도 스승이요, 저것도 스승이죠. 가을에 낙엽이 져서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구슬퍼지고 날이 추워도 아주 구슬퍼지죠. 요렇게 간사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의 변화가 간사한 게 아니라 철칙이란 말입니다. 저 나무들이 볼 때는 모두가 나같이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같이 살라 그러는데 나같이 살란다고 해서 내가 그냥 다 좇아가다 보면 안되죠. 그래서 그게 좋으면 그것대로도 같이 살면서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올 때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본 게 없습니다. 왜 본 게 없느냐? 그 눈 가지고는 금방 보고 금방 넘어가고 금방 보고 금방 넘어갔기 때문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담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심안의 눈으로 봐야만 전체를 보겠죠.

그런데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걸 보기는 하나 듣지 못하면 또 안되죠? 만약에 귀머거리가 보기만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화면에 그림만 나오고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격인데, 그럼 무슨 재미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들리긴 하나 보이질 않으면 이 또한 안되죠.

그래서 바로 천안통·천이통 이렇게 말한 것이죠.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남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네? 그런데 사람과 사람끼리만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을 소에게 주면 소가 내 마음과 똑같이 되는 거죠. 소 마음을 내 마음 속에다 넣으면 내 마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험



그림 · 최주현

이 그릇에 맞춰서 하나가 되고, 저걸 만나면 저 그릇에 맞춰서 하나가 되고 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보이는 것만 그러냐면 보이지 않은 중생 마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지옥에 아귀 축생도 그 그릇대로 맞추어 하나가 되어서 부처님 마음이 그 중생 마음 속에 드시니 마음이 그냥 밝아지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차디찬 물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그대로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는 반면 저항력을 느낄테니까 찬물에다 찬물을 부어서 뜨뜻하게 하는 겁니다. 뜨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통 그것을 다 스리면서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점점 녹아버리는 것이죠. 맡겨 놓는 자리는 속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오는 대로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 되놓는다면 그게 다 무너지면서 홀연히 밝아진다 이겁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 보세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묘한지. 금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토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면, '아, 일요일이 됐으니까 좀 늦게 자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나면서 그냥 푹 자버려

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 업보에서 다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방망이 때리면 아주 고통스럽겠지요. 물질을 가진 것은 다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우리가 물질에서 벗어나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얕잡아 보지 말고 저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 나 아님이 없고 내 가르침 아님이 없고 내 스승 아님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하지 말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하고, 내가 조금 밑지더라도 남을 이익되게 하면서 폭넓게 마음을 쓴다면 그대로 부처가 될 것 아니겠소.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듯이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아예 살아서 죽으라고요. 살아서 죽지 않으면 열반이라는 이름 그 자체도 없어요. 열반이라는 것도 이름이거든요.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니까요.

그 이름 아닌 그 속의 이름…. 그런데

나쁜건 나쁜대로 하지말고
좋은건 좋은것 대로 하며
밑지더라도 남이익되게 하고
폭넓게 마음쓰면 그대로 부처

더군다나 부처라는 소리, 보살이라는 소리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신도: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은 지가 3일이 됐고 본 지가 3일이 됐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옛날 선지식 같으면 벌써 죽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신도: 저는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좀 때려 주십시오. 최근에 우주인과 만난 독일 농부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지구인의 조상은 우주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초부터 인간의 씨로 만들어졌다는, 지금까지 알려진 진화론을 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멸망 운운하는 종교도 있고 하니 큰스님께서 지구의 생성과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봐요, 풀 한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고, 물·불·흙·바람만 있어도 불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풀 한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는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주인이라는 건 이름이에요. 안 그럴까요? 우주인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앉아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도 바로 우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에 우주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딧물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니 딴 데서 찾지 말고 '최초에 나온 것은 어떤 놈이며 지금 앞으로 미래에 갈 놈이 어떤 놈인지' 그것을 잘 보라구요.

(신도: 큰스님의 말씀을 제가 다 먹었다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처사님이 공했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나요? 또 먹을 것이 없는데 뱉을 것은 뭐 있나요? 먹었다면 먹은 걸 좀 내놔 보세요.

(신도: 내놓으라시면 전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도 옳아요. 옳고 말고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테고 대답을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이 몰라서 대답 안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처음 온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으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 잡순 바가 없고 생각한 예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체 만물, 만생, 무정물, 생각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보이는 거든 안보이는 거든 전부. 집어 먹었으면 토할 줄을 알아야지 집어 먹기만 하고 토할 줄 모르면 죽어요. 숨을 들이쉬고선 내쉴 수 없으면 죽지요.

(신도: 그걸 도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받으십시오.)

과학이 無 발견할 수 있을지요

문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더 알고 싶은 욕심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물질을 쪼개보는 기술도 자꾸 높아져 가서 이제는 더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질량이 거의 없고 수명이 지극히 짧은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인간은 유의 세계에 궁극에 이르러 무의 세계를 넘어가는 문을 발견할 수 있을는지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단군 할아버지도 그 법을 가르쳤고 사대 성인들도 다 가르쳤어요. 지금 내가 말하듯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와 같은 교차로에 죽음과 삶이 있듯이, 우리 지금 세상이 물질세계로서의 과학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문화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전이 됐지만 지금은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정신세계의 교차로를 넘어서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데 그 교차로를 넘어서듯, 들이고 내는 것이 한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물질세계로 지금 팽창되느냐 정신세계로 지금 진화돼서 우리가 발전을 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이지 우리가 한마당 한식구가 되죠. 세계 평화가 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한 것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계신데 뭐 걱정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내고도 못믿죠? 여러분이 하고 지켜보세요. 의심하지 말구요. 지금 물어보듯이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진짜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런다면 되겠소?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들고 이 물을 먹어야 할까 먹지 말아야 할까 이런다면 목마른 게 다 없어져요? 물을 먹을 수 있겠소? 그러니까 목 마를 땐 무조건 먹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리고 물을 먹기 싫을 때는 안 먹고 놓는 게 또 장땡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내지 말고 모든 걸 다 맡겨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한 생각을 내라 이겁니다. 그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모든 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것은 순리적으로 공해서 돌아가는 거요. 순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겠소. 생각하고 또 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자꾸 돌아가는데, 그게 망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내 몸 태어남, 살면서 보고 듣는 것을 몽땅 그놈이 하는 거지 딴 놈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공이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 거기다 맡겨요. 맡겨 놓고 그 놈이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방황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금방 죽는데도 방황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지금 시쳇말로 정신세계 한마당 한자리 만봉봉에 연꽃이 피어서 이 세상을 두루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도리다 이겁니다, 무심도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한마당이 있는데 왜 그걸 맘대로 못합니까, 안 그런가요? 올려 놓는 것도 법, 내려 놓는 것도 법인데 자유스럽게 삽시다. 이 자유스럽게 사는 방법을 배울려면 마음 공부밖에 없어요.

마음의 눈과 귀로 보고들어야 전체 알아
주인공 죽는법 없으니 거기 놓고 맡겨야

을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의 차원이 개구리 마음이라면 내가 개구리가 돼줘야 한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돼지라 하면 내가 돼지의 마음 그릇하고 똑같이 되어야만 돼지하고 한마음이 될 거라 이겁니다. 내가 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물과 한마음이 되듯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한마음 한마음이 아니라 사람 뿐만이 아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태양하고도 그렇고 금성이나 수성이나 태양, 달, 이 모두가 그렇죠. 우리 인간들도 다 그렇고, 무정물 또는 식물 할 것 없이 일체 생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왜 '심즉시불'이라고 하셨느냐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마음이 돼서 그 그릇에 딱 맞추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넣어도 그릇이 모자라지도 크지도 않더라. 삼천대천세계를 씨앗 하나에 넣어도 맞고 큰 그릇에다 넣어도 맞고, 그러니까 꺼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늘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꺼내도 줄지도 않는 것이요, 그릇이 비지도 않는 것이요, 또 아무리 넣어도 그릇이 모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소의 차원하고 똑같아야만이 한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 만나면 겁게 할 수도 없고 차게 할 수도 없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뜨겁게 할 수도 있고, 차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어서 마음대로 차원에 알맞게 들고 나니 어느 것 하나도 부처님이 아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마음을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하는데 숙명통은 고거에 어떻게 지내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뭘 어떻게 저질렀는 가를 한 순간에 알아내는 거죠. 두고 두고 심판을 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팩시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부처님의 그 뜻 가고 옴이 없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펼칠 수가 있느냐 하는 그것도 되고…, 어느 것 하나 건져주지 않은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싹 외면하고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서 이 마음으로 딱 가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부 부처님이 아닌 분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개구리도 바로 자기인 까닭에, 다 건져줬어도 건져주었다 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뜻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받았다 할 것도 없느니라 한 것이죠.

누가 죽는 걸 보면 슬퍼서 또 울어지듯이, 그렇게 몸 속의 의식들이 다 그렇게 작용을 해요. 어떤 때는 잘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등 그냥 매사 그렇게 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 먹는 대로 모든 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보고 듣는 걸로 속지 말고 안에서 그 놈들이 나와서는 화내게 하고 또 가게 하고 오게 하는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술을 늦도록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이 안 좋아할테죠. 또 여자들도 남편과 애들 밥도 안 해주고 저녁 늦도록 있다가 들어가면 식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양쪽이 다 좋지 않을 거라구요. 그러니 그건 악업이지 선업이 못돼요. 남의 마음을 그렇게 언짢고 괴롭게 만들어주고 그게 선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 다스리면 그냥 저절로 선지식이요, 그대로 훤히 밝아질 것이요, 그대로 중용을 하고 죽은 세상 산 세상을 한데 합쳐서 요리를 하니까 이 속에 들은 의식들도 전부 한마음으로 따라주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마음도 다 자동적으로 조절이 돼서 한마음으로 지배인의 말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주장자 아닌 주장자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치는 그런 일이 있죠. 꼭 때려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번 사람한테 맞은 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데서 부처님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건강•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당뇨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치료비 전액무료

의단요법·무료시술

TEL : 0552-585-8118·8128
H.P. : 011-559-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암, 중풍, 당뇨등

오랜세월 민초들의 삶속에 전해오던 치료의 비방을 연구 집약하여 최단시일내에 체질을 전환시켜 완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저 합니다.

다솔 민방 연구원
0431)292-9090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는

간 병 인 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환자 간병 - 산모 도우미
◇ 12시간 (주간, 야간)
◇ 24시간 (상주근무)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강좌•

자미두수교실

신령스러운 자미경의 저자 김석훈 선생의 자미두수 수강생 모집.
★자미두수란★ 동양의 점성학·북극성(자미)을 중심한 남북두의 별로 인간의 미래를 내다보는 학문

동서점성학 연구실
☎(02)3413-0232,1
※개인상담 문의도 전화 바랍니다.※

중국 정통 한방 입문 강좌 회원 모집

본 동우회는 원서 원문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가르침.
· 교재는 원문을 알기쉽게 풀이한 번역서 임
· 교재내용: 상한론(일명고방) 금궤요략(후세방)
· 기 간 : 상한론(6개월) 금궤요략(6개월)
· 대 상 : 1) 한방 기초를 터득하려는자
2) 한방을 체계있고 심도 있게 배우려는자
3) 정통 한방을 배우려는 자
· 자 격 : 1) 스님, 법사, 포교사 2) 불교 교양대학 수료자 3) 일반불자
* 지방에 계신분은 통신교재 강좌 후 월 1회 특강을 실시함.
·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1매
· 수강일 : 매주 월, 수, 금(오전, 오후, 야간)
· 특강 : 난치성 질환 처방 공개
· 강사 : 한방 20여년 연구 정진중인 현오스님
02)980-2177/02)987-2176

불교 수맥 강좌

1. 신비의 추 사용법
2. 현장실습
3. 기균형 전문
4. 수맥관련 상담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39번지)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구인•

구 직

사찰 운전
종무 입주원함
53세 충청도
박처사
02)444-9348
019)334-3388

작은 도시 변두리에 지대한 불심으로서 사찰불사를 합니다.

평생의 도반이 되어 수련탁마에 뜻이 있으시거나 물적이나 심적으로서 도움이 되어 주실 스님이나 불자님을 한분 모시고 싶습니다.

탄휴 합장
0563)335-0092

절 운영 맡겨 주실 분

기공치료 및 침술환자 치료에 아주 능통한 스님
MBC TV 에 기공시범이 방영된 스님
원각 011)871-9092

•수련원•

◆청학사 수양원◆

■ 수양·요양·기도·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이며 4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기적의 피라미트 파워

기공연구회
(代) 02)
455-6944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회향암
혜월당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 달마보급 선양회
죽림사 051)361-6662

벽지 ◑ 바닥재 버티칼·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줄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황토 찜질선방 개방

모은사 주지 현공 스님이 직접 황토벽돌을 만들고 신비스런 향토찜질 선방을 지어 불치병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72-1
0593)854-8551
주지실 0593)854-8555

서예 사군자 달마대사 그림

「한국불교예술문화원」에서는 1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서예 및 반야심경 사경 달마 그림을 운장법사의 특별지도로 가리킨다. 수강중 우수한자는 한국선묵가협회 회원으로 자격을 준다.
(02)2242-0331/2242-0255

현대자동차 신차판매 안내

스님과 불자님들의 차량문제
"믿고 맡겨 주시면 불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 : 원응 곽영순
대표전화 : (053)627-6616
휴 대 폰 : 011-509-9456
호 출 : 012-494-6181

사주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진로선택등
▶ 강의기간: 주2회
▶ 강의시간:
오전반, 저녁반도 있음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02)713-4852~3

행운결혼 상담소

※부모님 상담환영
02)
960-4564

•사찰안내•

사찰 운영안내

◇위치 : 노원구
◇법당 : 23평 ◇요사 : 26평
◇부지 : 52평
◇가액 : 2억 5천만원
◆지방사찰 교환가능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귀 달마사

◆사주 : 대운·행운·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예약 달마사 철학원(달마스님)
02)442-3545

사찰(급)안내

◇ 위 치: 충주지역
◇ 산세수려, 지장기도도량
◇ 대지: 약 1천평 ◇전: 850평 (총 1,850평)
◇ 법당: 주산포 목조건물 24평 (단청된 법당), 산신각(목조건물) 8평(단청됨), 종각(단청) : 1층 -스라브 10평 일주문, 2층 - 종각목조 4평
◇ 범종이 천관 ◇ 요사채-스라브건물 40평, 조립식 18평, ◇금액4억(상담후 조정가능)▶필요한 분만 전화요망
0561)746-3510/017)366-7905

포교당 임대

◆부산 최고요지: 약 50평
◆보증금: 1천만원(월40만원)
◆시설비: 2,300만원
◆방 3칸, 주방, 법당, 창고, 사무실, 금동삼존불, 에어컨
◆시설 A급
051) 441-6773
011)825-1662

사 찰 터

◇ 위 치: 경북 상주군 옥산면
◇ 대지: 261평
◇ 가액: 답사후 결정
◇ 특징: 계곡옆 대지,옥산-추풍령간 도로 공사중(도로인접)
※스님·포교사외 전화문의 사절
017)515-8959
0582)534-8950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대지: 430평
◆ 전 : 76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3동, 5층석탑
아왕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좋은 위치(잔디가 깔려 있음)
◆가액 :3억
0559)533-6321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 노원구
(전철역 2분거리 버스정류소 2분)
◆실평수: 대지 65평
(서울 APT내에 위치 건평 100평)
◆2층 -법당 / 1층 -요사채
◆가 액: 3억 5천(융자 1억 2천만원)
02)3391-4845
011)752-4842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 시내에서 차편 5분 (서울 약1시간대)
◇대지 : 438평
◇총건평 : 83평
- 법당, 사무실
- 요사채 방13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
※ 직접면담(급매) ※
0446)87-9051/0336)643-9051
012)925-6118

인연 있는 스님이나 불자님 한분 모십니다.

큰 스님의 다리불편으로 인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경주 토함산을 마주보고 있으며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솔 송림에 둘러 싸여 있는 등 자연의 미묵 불바위가 조화된 도량, 약사도량, 기도도량 좌선등, 기운도량. 입주 즉시 법회 가능
■사찰명:경주 무학산 성불암 토굴
■성불암 대지 : 200여평 (산신당+용왕당) 합1개
■건물 : 대웅전 내 방2개, 주방, 전체 기름보일러 목욕 샤워시설, 주차장 완비 전세금 200만원, 답사후 절충
017-558-3450

인연 있는 스님이나 불자 모십니다.

◇위치: 경남
◇부지: 1,180평(종교용지280평 포함)
◇법당: 25평 ◇요사: 25평 (94년 준공, 등기필)
■특징:수려한 산세와 청정지역이며 기도도량으로 맑은 기가 흐르는 곳임. 스님의 네팔 구도차 출국으로 인연있는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가액: 답사후 절충
경남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408
백우정사 주지 성 해 합장
0502)580-0108/012)1067-0108

사 찰 안 내

◆위 치 : 통영시
◆부 지 : 1,180평
◆법 당 : 25평
◆요 사 : 25평
◆가 액 : 답사후 절충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송림에 싸여있는 청정지역
012)1067-0108
0502)580-0108

사찰안내

■위치 : 경남
■법당 : 27평 ■요사채 : 27평
■부지 : 1,700평
■가액 : 1억 5천만원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大불사 가능지)

■위치:팔당댐옆(경관수려) 올림픽대로 4차선 예정 도로접
■학교 폐교건물 1동 외 건물1동
■대지:400평 잡종지:530평
■임야:1000평(내 건축허가 1동 대지 200평 가능)
■가액 : 17억(절충가능)
※토지 확보후 임야 50,000평 상당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 가능한 위치임
011)244-0433/0347)794-1141

포교원 안내 성 불 암

◇ 대지: 200여평 (산신당 용왕당 /합1개)
◇ 대웅전내 방2개, 주방, 전체 기름보일러, 샤워실, 주차장 완비
◇ 가액: 전세금 20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7)558-3450
052)252-8377

사 찰 안 내

◆지안 용담댐 상류
◆경치좋은 유원지내 도로변 사찰!!
◆종교용지 500여평, 석굴암 (법당) 15평, 요사 35평
◆양도가: 1억 2천만원
0655)433-2900
0652)282-1536

포교원 운영하실분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평수: 3층건물(3층) 50평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45만원,전세 5,000만원 가능함)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능)
◆특 징: 시설완벽함.
법및 행사 즉시 볼수 있음. 전철역 3분거리 교통편리 주변 APT 주택 밀집지역, 대나무으로 수작업한 나한님 216분 모셔져 있음
02)939-3647 / 02)720-5876
012-341-3647

포교원 안내

◆위치:강동구 길동 먹자 시장통
◆19년 역사 포교원
◆방·법당·부엌·화장실
◆가격: 3천2백만원, 월 60만원 (가격절충가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급매
011)201-2561
02)482-4550

◆ 토굴팝니다

◇ 위 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3천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594)862-6199
015)5962-696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점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2천 5백만원 (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사찰건축 및 목재 안내(전문)

·사찰 건축 ·사찰조경 ·단청 ·목조주택(한옥,황토집)

사찰 목재 안내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송)다량확보
♣ 대웅전:12평, 20평, 24평, 34평, 54평, 108평을 지을 목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대웅전 기둥: 1자, 1자 3치, 1자 5치, 1자 7치, 1자 8치, 2자 2치까지
♣ 대원목: 말구 1자 이상:24자, 30자, 36자, 42자 까지
♣ 서까래: (연목)12자, 15자, 18자, 20자, 24자
◈ 대웅전 설계, 조감도 그려드립니다.
⊙ 불사하실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0371)762-3938
011)735-4168
(주)천운 나강민 합장

포교원(급) 안내

◆소재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774번지(시내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조건: 대지 98평 내 목조 기와 단독 주택(등기 있음)
◆방4칸, 방법창 설치, 법당(임법당)1칸, 산존불 탱화4점, 보일러실 및 욕실 1칸, 현관 및 넓은 마루 있음. 창고 및 화장실 1동
◆급매특가:3천만원(법당시설 일체포함) 상기 동일 소재지내 775번지 대지 93평(법당부지) 등기 있음. 특별 매가 8백만원
-774,775, 2필지 총 3,800만원
0451) 641-7569/011)401-8529

포교원 안내

◇ 위 치: 부산 온천3동 수도포교원(최고위치)
◇ 건물: 30평
◇ 가액: 전세5천, 월세가능 (시설비 일체포함)
051)503-0177
011)320-9355/018)311-3744

포교원 안내

◆위치:총신대역 시장통 사거리
◆평수 : 15평
◆법당 : 지장보살님 1불, 약사여래불 1불,종합탱화, 산신1분, 살림가구 일체
◆가격 : 500만원(월 40만원 (전세도가능 - 2,500만원)
◆시설비 : 3백만원(절충가능)
02)592-8849/011)611-8849
(무속인 및 보살님 상담환영)

사찰 운영하실분

◆ 위치 : 경북 의성 ◆ 부지 : 1,800평
◆ 법당 : 10평 (반목조) 단청 필 ◆ 요사 : 25평(목조) 단청 필
◆ 시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 가격 : 1억 8천만원
◆ 특징 : 수려한 경관과 청정유려한 강을 끼고 있는 훌륭한 기도 및 포교 도량으로 포장 도로에서 200m 접한 교통환경과 주차장 완비되고 미륵바위와 석간수 생수가 솟는 거북 바위 및 150m 지하수 시설을 갖추고 있음. 유구한 전통의 영험있는 정법도량으로 입주 즉시 법회를 할 수 있음.
※ 전국에 소재한 사찰, 사찰부지,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 즉시 연결하여 드립니다.
해 동 불 사 담당:이처사 합장
직통 전화 상담 : 02)351-4448 / 019)390-6110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영어능력 검정시험 TEPS

(시사)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는 정부공인 어학능력 평가개발기관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실용 영어능력 검정 시험. 청해(50), 문법(50), 어휘(50), 독해(40) 등 총 2백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험시간은 1백55분. 연령, 직업, 자격 등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 99년 시험 일정은 ▲제1회 31일(일) ▲제2회 3월21일(일) ▲제3회 5월3)일(일) ▲제4회 9월12일(일) ▲제5회 11월21일(일) 순.

음식점 1회용품 못쓴다

(생활) 3월부터 시행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백화점·할인점·슈퍼 등 전국 9천3백여개의 유통점은 고객에게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는 나무 이쑤시개와 나무 젓가락, 종이컵, 합성수지 용기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문화상품권'으로 책 산다

(생활) 문화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주)한국문화진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업종별 영역을 구분해 오던 상품권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달말부터 전국 3천여개 서점에서 문화상품권으로 도서를 교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돈(錢) 돈(回) 돈(狂)' 전

(전시) 갤러리 사비나는 신년기획으로 4일부터 2월7일까지 '돈(錢) 돈(回) 돈(狂)' 전을 연다. (02)736-4371

생명 영원한 신비

(방송) KBS-1TV가 20일부터 9부작으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생명 영원한 신비'. 20일~30일까지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생명…'은 ▲20일 생명의 탄생 ▲21일 위대한 실험 ▲22일 어류의 상륙작전 ▲25일 꽃과 공룡 ▲26일 대담한 도전 ▲27일 성의 탄생 ▲28일 생존을 위한 통신 ▲29일 숲에서 나온 두 발 동물 ▲30일 신에 도전하는 피조물 방영.

잠 깨우는 '자명종 호르몬'

(건강)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에 잠을 깨워주는 '자명종'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독일 뤼베크대학 연구팀은 과학전문지 〈네이처〉 최신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몇 시에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을 자면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아드레노코르티코트로핀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청소년 무료 적성검진

충남 순천향천안병원은 2월 말까지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에서 중·고·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성 검사와 직업흥미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30분~5시.(0417)570-2285.

청소년 은어-속어 '난무'

"추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도 해쳐"

의사소통 단절-우리말 파괴등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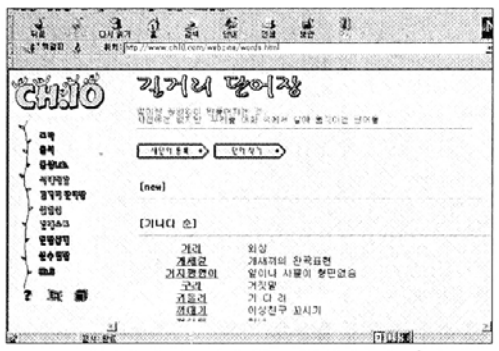
"뜻이 없거나 이익되지 않는 것 말하지 않고 언제나 법다운 말 그대로 쓰면 이는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잡아함 십선경〉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언어는 정신의 얼굴'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은어·속어 속에 비친 그들의 정신은 과연 어떠한가.

인기 청소년 웹진(인터넷 잡지) 채널텐 (www.ch10.com) 의 '길거리 단어장'엔 사전에 없는 '그들만의 단어'가 가득하다.

범생(모범생), 왕따(왕따돌림) 등 비교적 알려진 단어는 물론 십빠빠 울랄(진짜 못생겼다), 야리다(째려보다) 같은 출처불명·해독불능의 단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발음의 과장과 왜곡을 통한 변형도 두드러진다. '새끼'가 '쉐리, 쉐이'가 되고 '겨우'가 '제우', '꺼져'가 '버져'가 되는 식. 단어 뒤엔 다리깐다(돌이서 정당히 싸우는 것), 센터깐다(가방검사한다) '-까다'란 말이 자연스레 따라 붙는 것도 특징의 하나다.

40대 이상의 장년층은 물론 청년층에 속하는 30대들도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단어와 어법이 10~20대의 대화에 대거 등장하고 있다. 2~3년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젊은층의 언어 파괴 현상은 최근 급격히 확산돼 20대 이하와 그 이상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단절 현상이 나타날 정도다.



◇10대들이 만드는 인기 청소년웹진 '채널 10'이 최근 선보인 '길거리 단어장' 코너.

청소년들 사이에 '그들만의 언어'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 PC통신 인구가 크게 늘면서부터. 주로 10대들이 통신상에서 특유한 '통신 언어'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최근엔 PC통신, 인터넷 등의 활용이 일상화하면서 과거 사이버 공간에서만 사용되던 화법과 은어가 일상생활로 번지고 있다. 또 사이버 공간의 독특한 화법에 익숙한 10대들이 20대 청소년층으로 성장하면서 언어파괴 현상이 20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김희진 박사는 "급격한 정보화에 이은 세대간 문화단절에 따라 젊은층만의 독특한 언어 사용이 확산·정형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시정 노력이 없으면 세대간의 언어 괴리현상과 우리말 파괴 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언어에 이같이 어문법에 어긋나는 말이 많아진 데는 방송 등 대중매체의 영향도 적지않다.

보리방송모니터회 김재일회장은 "대중 연예인들이 청소년의 우상이 되다 보니 TV 오락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쓰는 튀는 은어나 비어, 말투까지 따라하는 청소년이 많다"며 "전국교사불자회나 청교련 등 교계단체들도 방송·PC통신 등에 대한 연구·감시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고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언어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국어교육의 정상화 노력은 물론 청소년-시민단체와 교육기관 등이 △대중매체 감시활동 △PC통신 등 청소년의 언어생활 계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한 말을 멀리 여의라. 추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무량수경〉

'말은 마음의 흔적'이다. 건전한 의식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바른 말 쓰기 운동이 절실한 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여성끼리 출산가능

美 MIT대 수년내 기술개발

유전공학을 이용해 여성과 여성 사이에 자식을 갖게 하는 기술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지가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팀이 세포핵 이전 방식을 이용해 수컷 없이 암컷으로부터 모든 염색체를 물려 받아 정상적인 생쥐 새끼를 출생시키는 실험에 2년 후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포유류는 파충류나 양서류와는 달리 단성생식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기술이 실현될 경우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 단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엄청난 윤리적·사회적 충격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직원 44% '사후화장'에 서명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국민들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화장 참여운동에 12월말까지 복지부 본부직원 4백50명중 1백99명이 서명함으로써 참여율이 44%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 화장률 23%의 2배에 가까운 것.

복지부 소속기관 단체 7백83명을 포함하면 4개월만에 1천명에 이를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성희롱' 개념·명문화

범위명시 법률2개 국회통과

직장내 성희롱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희롱의 해당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법이 규정한 성희롱 개념의 포인트는 성적인 표현(언어나 행동)이나 조건 등을 통해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고용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야 처벌로까지 연결할수 있다. 성적인 표현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했을 뿐 아니라 근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론

성도일 참 의미

예로부터 부처님의 삶의 궤적을 팔상(八相)으로 말하곤 했다. 팔상이란 부처님의 일생에 있었던 여덟가지 극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성취한 성도(成道)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팔상성도(八相成道)라 하였다. 성도일은 고타마 싯다르타가 고타마 붓다로 새로 태어난 날이요, 범부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성자가 되신 날이다. 무명의 껍질을 깨고 지혜를 성취한 날이며, 구속과 얽매임에서 해탈과 열반의 문을 활짝 여신 날이다.

깨달음의 종교로서 불교는 고타마 싯다르타의 태어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성 열
〈강남포교원장·본지 논설위원〉

그런데 고타마 싯다르타가 오신 날은 수없이 많은 등불을 밝혀 장엄하면서도 부처님으로 거듭나신 성도일은 어둠에 싸인 채 보내는 것이 불교계의 실정이다.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의 불교가 미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부처님 되신날 불자들은 예삿날과 달리 자기비움 있어야"

불자들에게 있어서 부처님의 성도일은 예삿날과 같을 수가 없다. 부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공양하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적어도 각자 나름대로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화려한 꽃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 아니라 나의 법을 통해 깨달음의 문을 여는 것이 최상의 공양"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최상의 공양이란 바로 온처계(蘊處界)에서 무아(無我)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역대의 조사들은 견성(見性)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최상의 공양이 된다는 것이다.

달마대사는 〈혈맥론〉에서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하면 반드시 견성해야 한다. 성품이 바로 부처이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염불하는 것, 경전을 독송하는 것, 계를 지키는 것들이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 염불은 인과를 얻을 뿐이고, 독경은 총명을 얻을 뿐이며, 계 지킴은 천상에 나게 할뿐이며, 보시는 복의 과보를 얻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나의 본 바탕이 무엇인가를 눈뜨지 못하면 성도일에 모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한낱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요, 깨달음이 없이 형식에만 바쁘게 좇아다녀 보았자 공연히 몸뚱이만 고달프게 할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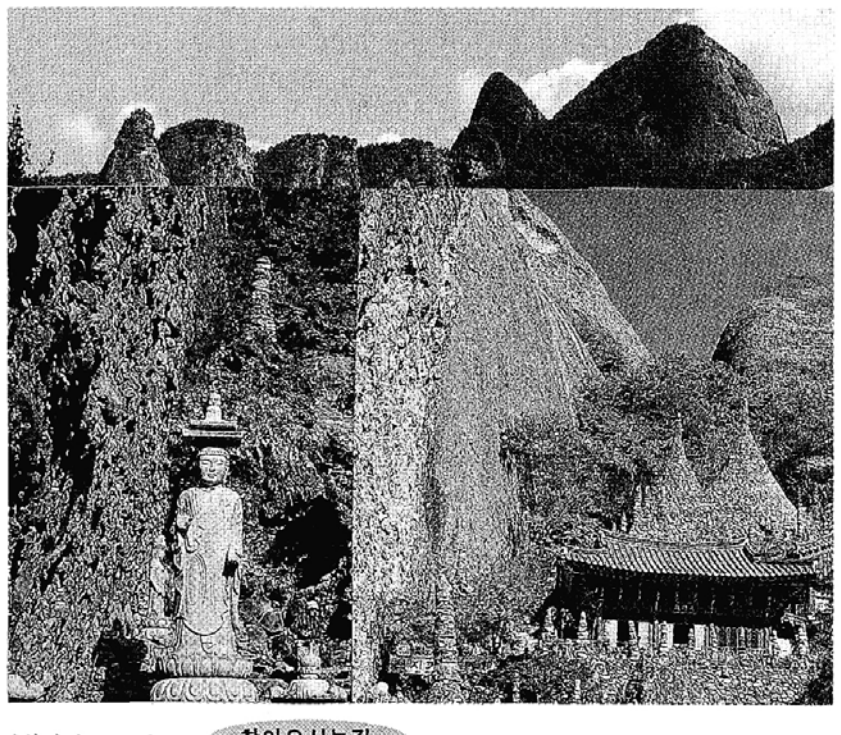
우리는 깨달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이 부족할 따름이라고 했다. 불자는 어떤 경우라도 나는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도 하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업장이 두텁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깨달음의 길에서 스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도일 하루만이라도 세상사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부처님 도량에 모여 나는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치닫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평소 자기 밖의 것들에 쏟았던 관심을 돌려 나의 참된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본 성품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마냥 무엇인가를 이끌어다 나를 채우려던 마음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들을 미련 없이 내던져 자기를 비워 볼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

불자가 불교를 우상화하고 미신화 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비워 부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밖의 것들을 이끌어다 마음을 채우려는 데서 비롯된다. 자기를 비우려 하지 않고 채우려고 애쓸 때 허상을 보게 되고 사견을 따르게 된다. 금세기의 마지막 성도일 만이라도 자기비움의 기회를 만들어 자기 속의 부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북한산 줄기

상운사 골짜기
千年의 푸르름
하늘을 이고 가는데

솔나무 한그루 위로
백로 한가로히 춤추며
백운대 峰 아래 큰바위

물길을 열고 흐르는 듯
그 자리 자취 장관이로다

흐르는 물줄기 작은 연못
솟아리 떼 노닐며
상운사 대웅전 뜨락 아래

피빛으로 물든 동백나무
관음보살의 미소로
삶의 고뇌 녹일 때

구름도 비켜가고
초겨울 바람
살갗 스친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주·야 (02)634-4910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011)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자비실천하고 점수도 따고…

불교복지관 중학생 자원봉사 기회제공

고입선발때 활동 성적 반영
노인 말벗 돼주기·청소등 다양
2월 중순까지 신청자 모집

교육부는 오는 2000학년도부터 각 시·도의 고입선발고사를 연차적으로 폐지하고, 중학교 생활기록부 교과성적과 봉사활동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제 자원봉사는 대충 넘길수 없는 수험과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학생들이 올 겨울방학을 자원봉사활동의 절호 찬스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기중에는 심적·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무적으로 규정한 자원봉사 시간은 3년간 15~20시간.

그러나 막상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을 두드려보자.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선착순 6명을 모집, 무의탁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말벗되어 드리기, 심부름하기, 청소 등을 한다. 또 2월 10일까지 매일 오후 5시 결식아동 밑반찬 배달봉사를 실시한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 교육 후 장애체험, 지역내 봉사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노인 목욕시켜드리기 등을 한다. 1월말 15명을 모집, 2월중 15시간 활동할 예정이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선착순 20명을 모집, 복지관 환경미화·홍보·전산입력 등을 비롯해 노인 말벗되어 드리기를 한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1월말까지 중·고교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아동놀이시설 청소, 도서관 책정리, 자동차 전면주차 계몽활동을 전개한다. 활동시간은 학생들과 협의 후 결정한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유해환경조사, 금연캠페인 등을 할 중·고교생 40여명을 모집, 1월 21일 1~4시 관내에서 활동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를 방문하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각 지역에 소재한 자원봉사센터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는 각 지역 양로원과 연계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알려주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동네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자원봉사 불교복지관

단체	연락처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6
길음종합사회복지관	(02)985-0161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2)817-8052
삼전종합사회복지관	(02)421-6077
옥수종합사회복지관	(02)282-110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02)578-4104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02)719-4666

◇지난해 여름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소속 중학생 50여명이 혜명양로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단 신

대불련 수행학교 회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한승희) 제8차 수행학교가 11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에서 회향됐다. '작은 변화에서 큰 깨달음으로'를 주제로 4박5일간 열린 수행학교에는 54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했다.

△마음나누기 △화해언덕 △명심문(銘心文)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번 수행학교는 대학생 불자 스스로 자신을 보고 느끼는 '관법(觀法)' 수행에 치중했다. 대불련은 지금까지 절·염불 등으로 수행학교를 운영해 왔다.

대불청지도자 연수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는 30·31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제38차 대의원총회 및 제16차 전국불교 청년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불청인의 자주적 사회참여'를 주제로 열리는 총회 및 지도자연수에는 전국 지구·지회장 등 1백50여명이 참여한다. 대의원총회에서는 99년도 대불청 예산 2억여원을 인준한다. (02)738-3385

"침체된 어린이법회 활성화"

어린이포교연합 초대회장 지원스님



"우수한 불교지도자를 양성, 침체되고 서울·경기지역 어린이법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30일 오후 4시 서울 은평구 삼보사에서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이하 어린이포교련)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지원스님(서울 삼보사 주지).

서울·경기지역 어린이지도법사와 스님들이 구랍 23일 어린이포교련을 창설한 것은 '어린이법회가 너무 침체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불교교육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50여개 사찰에서만 어린이법회 명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80년대 어린이법회 수 1백50여개와 크게 비교되는 수치다.

이를 위해 스님은 △어린이포교에 대한 관심 확산 △각 지역별 교사 전문화 교육 실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발간 △종단적 지원체제 확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어린이포교에 힘을 쏟아온 지원스님은 구랍 2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김대중) 주관으로 열린 '의장상 수여식'에서 불교문화 포교활성화로 대통령상을 수상해 더욱 빛났다.

30~31일 어린이지도자 연수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는 30~31일 서울 은평구 삼보사에서 제1회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실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21세기를 위한 불교아동교육의 반성과 방향모색(황학현원장·불교교육연구원) △법회를 겉도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임숙희교수·경상대) △어린이 종교교육 어디까지 가능한가(민영순교수·숙명여대) △왜 어린이법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법전스님·지장사 주지) 등 총 13개 강좌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접수 27일까지. (02)725-2201~2

컴퓨터·한문 무료로 배우세요

서울시 각 구청 강좌 개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위해 각 구청이 한문과 컴퓨터 무료강좌를 마련했다.

성북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0일간 무료 한문교실을 운영한다. 한문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02)920-3490

강북구도 21일부터 수유1동 강북노인회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기초상용한자 등을 가르치는 무료한문교실을 운영한다. (02)989-5243

동작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월28일까지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 등에서 영어, 수학을 무료로 가르쳐준다.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02)20-1310

동대문구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1일부터 29일까지 구청 전산실에서 무료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 (02)920-4315

명사들의 건강비결 ②



조 달 공
〈불일회장〉

새벽 예불후 요가운동 30년
농사 지으며 연기법 생활화

법련사 서울불일회 회장이며 성균관대 명예교수인 달공 조홍식 거사(79세)는 "건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자기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조거사는 30년 넘게 매일 밤 9시면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면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5시부터 1시간 동안 요가를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 왔다. 십대에 묘향산 법왕대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래 평생 동안 수행자적 삶을 살아온 조거사는 불자로서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바로 건강유지의 비결임을 보여준다.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오랫동안 불일회를 이끌며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재가선지식으로서 인정받는 이유는 생활수행 덕분이다.

조거사는 성균관대 정년후 고향인 하남시 춘궁동 농장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1천여평에 자급자족을 위한 채소, 콩, 고구마, 고추 등 밭작물을 자연농법으로 두공해 재배한다. 농약과 화학비료는 전혀 쓰지 않고, 자라는 만큼만 거둬서 먹는 자연농법으로 육신과 정신의 건강을 챙긴다. 농사짓는 틈틈이 글도 쓰고, 수행도 하고, 책도 읽고, 서울 법련사 법회도 빠짐없이 참석해 불심을 다진다.

흙에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고 확신하는 조거사는 농작물 사이에 자라는 잡풀들도 그대로 둔다. 여름 장마철에는 이 잡풀들이 땅을 지탱해 주고, 풀이 죽으면 그대로 땅의 거름이 되는 순리를 따리기 위해서다. 조거사는 "자연농법은 연기법에 따른 농작물 재배법입니다. 인간도 자연도 모두 이 위대한 연기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한다면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농사가 다 끝난 요즘 조거사는 참선과 산책, 가벼운 등산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일흔아홉이라는 나이에도 몸의 부자유를 모르고 걸림없이 생활하는 조거사는 불자들에게 말한다. "잠시라도 흙을 밟으며,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라"고. 이은지 기자
(ejlee@buddhapia.com)



◇자강학교에 참석한 고3학생들이 양주별산탈춤을 배우고 있다.

죽음체험 등 이색수련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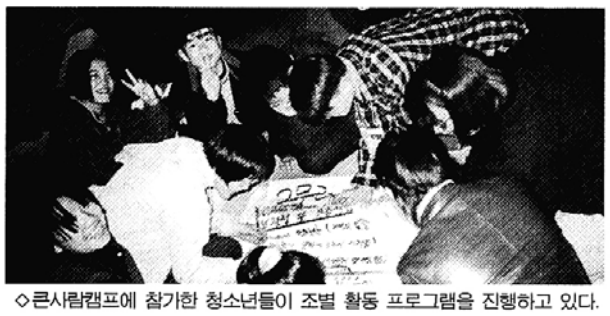
전주 송광사 청소년 자강학교

상복을 입은 한 청소년이 관을 향해 절을 하고 관속에 들어가자 6명이 관을 메고 선방을 돌며 경전을 독송한다. 졸업을 앞둔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색적인 동계수련대회가 열렸다.

7일부터 10일까지 완주 송광사에서 열린 '전북지역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불자들을 위한 동계 자강학교'가 바로 그것. 5회째를 맞는 이번 자강학교에는 전주 익산 등 전북 5개지역 고3학생 4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들이 실시한 프로그램은 윤회의식. 이 프로그램은 직접 죽은자의 입장 되어 삶에 대한 반성과 죽음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이번 자강학교에서는 6~7명이 선재동자가 되어 미리 정해둔 미륵·서방정토 등을 찾아가는 '불국정토를 찾아서', 배를 타고 가다 망망대해에서 난파됐을 때의 자신의 처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편지로 쓰는 '난파선', 결식아동들의 입장이 되보는 '오후불식' 등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참선, 탈춤배우기, 선체조, 촌극 발표회 등 모든 프로그램이 참회 체험 실천위주로 진행됐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큰사람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조별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신심있는 불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선우 큰사람캠프 성황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 '99년 선우 큰사람캠프가 11일 전북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스님)에서 3박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료됐다.

청소년들의 신심과 보살심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99년 선우 큰사람캠프'에는 중·고교생 70여명과 선우임원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캠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을 큰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선택-나는 큰사람과 〈반야심경〉, '예불문', '심묘장구다라니' 등을 암송하는 △3경 봉독대회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016 PCS 최저가격·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한화 G2-F21



절전기능
-세계최초의 광센서 착용
깨끗한 통화
자동 검색 기능
음성/문자 메시지 기능
17종의 다양한 전화 벨 소리
유해 전자파 방지 도료
(인체에 미치는 피해 제거)
전자 계산기 기능
자기번호 송출 기능
비상전화 다이얼 기능

크 기 125×44×26㎜
무 게 144g (소형 배터리 사용)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8분
배터리L 300분

사은 가격 50,000원
(가입비만)

한화 F31



현PCS중 최소형
한화의 새로운 PCS-F31
Sporty하고 세련된 디자인
초대형 화면 표시창
초경량 PCS
예절모드
일정관리

크 기 107×43×20㎜
무 게 77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0분
배터리L 210분

사은가격 75,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애니콜



SMS서비스
이어마이크 폰 접속기능
음성 다이얼 기능
자기지역 번호 자동 다이얼
예약 통화 기능
알람 기능

크 기 114×50×22㎜
무 게 105g
연속통화 최대 240분/75시간
통화 대기

사은가격 20,000원
(가입비분납)

LGP-6200F



작고 단단한 싸이언
자동응답기능
독특한 전화벨소리
길어진 배터리 사용시간
말로거는 음성인식은 기본
자동조명기능
지역번호 자동다이얼

크 기 107×45×25㎜
무 게 89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M 130~140분
배터리L 260~300분

사은 가격 60,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SPH-4700



최대 420분 연속통화/125시간
통화대기
매너기능
한글/영문 SMS서비스 기능
바로 전화걸기
전자계산기/스톱워치
대화형 문자정보서비스 지원

크 기 116×45×23㎜
무 게 105g
연속통화 배터리M 240분
배터리L 420분

사은 가격 65,000원
(가입비분납)

요금 납부 방법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재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결재 이외는 10,000원이 추가 됩니다.
※선물카드 2,000원 증점 증정
(부가서비스 자동연결 3개월 무료이용 요금)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불.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부다피아 쇼핑몰 선정
구정 선물 상품 특선

순금 경전 카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원력이 항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각 사찰이나 단체에 맞는 별도의 도안과 글씨도 가능 합니다.


S0090014


S0090019

순금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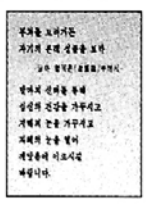
가격 : ₩ 15,000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순금 페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S0090003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붙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 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 7㎝

가 격 : ₩ 20,000

건강 옥 염주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발산하여 고혈압, 두통,소화불량,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버금가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종 류 청옥·백옥염주(小) ₩ 30,000
청옥·백옥염주(大) ₩ 40,000

생광석 108염주


S0010008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해져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해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S0090002

열쇠고리, 향로, 차걸이



단주 열쇠고리

S0010020(정청돌)
S0010021(밤색돌)
S0010022(투명돌)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S0010007



반야심경 종 차걸이

읽은 중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낱개 ₩ 9,000)

※ 금색종, 검정색종

서웅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웅 큰스님의 불(佛)자를 공예작가 범오선생이 동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맑은 기운을 느낄 실 수 있습니다.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 50,000
S0030004

법성게 걸망


S0010009
S0010010
S0010011

크기 500×460 (㎜)
색상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인터넷 불교 백화점 부다피아 쇼핑몰이
새로운 모습으로 99년 1월 6일
개점 했습니다. 싸고 다양한 불교 용품과 더불어 각종 정보란, 천불전 사이트 법당등 쇼핑을 하시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십시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골동품형 S0020001
개금형 S0020003
브론즈코팅형 S0020002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가격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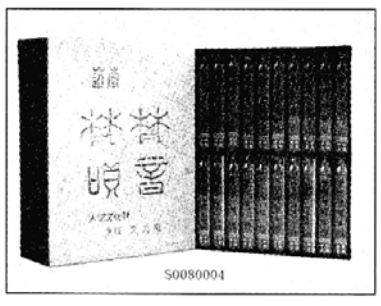
• 재질 100% 청동
•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

반야심경 자개 경판



크기 73 (가로)㎝ ×23 (세로)㎝
가격 : ₩ 700,0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S008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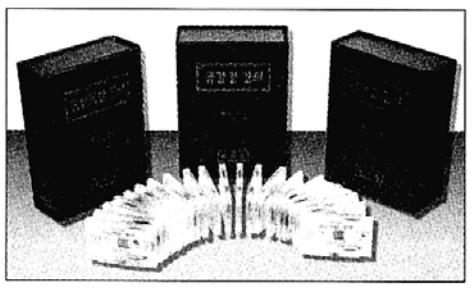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질

봉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이별로 녹음되었습니다.

1 봉공의식 2 삼신이운 3 신장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복청소리 · 대취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사이운 · 멍전점안 20 중성 · 친수작법 · 오집

가격 : ₩ 50,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정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비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촌잡힌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강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일까?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병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과일,해물,차 등
· 건강 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가격 ₩ 70,000 (가방 포함)
S0090012

재봉틀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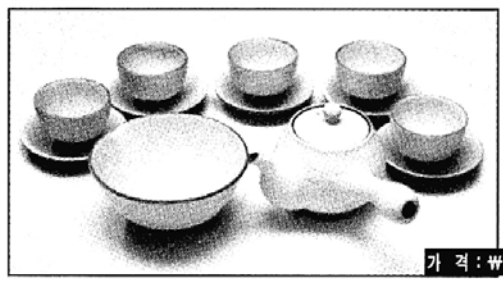
손봐야할 옷가지 아직도 세탁소에 맞기십니까? 이제부터 재봉틀 박사에 맞겨 주십시요!



재품규격
● 용도 간단한 옷수선, 양말 꿰메기, 커텐 만들기 외
● 정격전압 220v/60Hz ● 소비전력 10W
● 규 격 23.5㎝(가로) ×13.5㎝(세로) ×16.5㎝(세로)
● 색 상 화이트
● 구 성 본체 + 바늘 한개
● 보증기간 구입일로 부터 12개월 (Q보증 획득)
● 원 산 지 한국

가 격 : ₩ 39,000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거산죽염

선조들의 비전 비방

죽염은 우리 선조들이 애용한 健康鹽(건강염) 제조 비방에서 전래된 것으로 생명유지의 필수불가결한 鹽性(염성)을 강화시켜 주고 인체 내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천연미네랄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는 신비의 건강염입니다


S0090013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작설차

(지리산 야생 수제녹차) 지리산 화개동 칭정지역의 맑은 이슬을 머금고 자란 야생 찻잎을 정성껏 채취하여 수천년동안 이어온 전통 제다법 그대로 빚어낸 최고급 수제(手製) 녹차입니다



우전 : ₩ 80,000 중작 : ₩ 60,000 (2통 1세트)
세작 : ₩ 45,000 대작 : ₩ 40,000 (2통 1세트)

홍삼

세계적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는 우리의 홍삼 진귀한 홍삼의 효용성에 각종 한방 의료를 농축하여 만든 홍삼 대보정은 현대인의 건강에 활력을 드릴수 있는 홍삼 농축 액기스 제품입니다



가 격 : ₩ 98,000

원산지 국내산
제조원 개성인삼 협동조합
용 량 80ml/50포입

홍삼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먹어라" (중국 침학자 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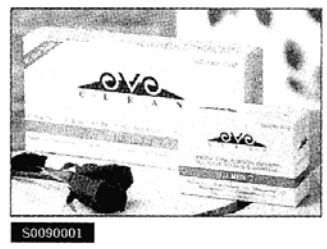


-폐풍에 3년 말린
사자발 약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S0090011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 담배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약으로 쑥탕의 느낌을 그대로 맡을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한의학 박사 한덕천 (한방기체생리연구))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S0090001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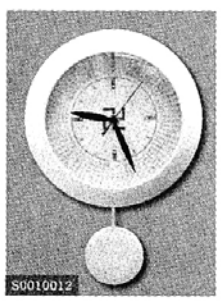
● 독특한 향 + 부드러운 촉감 + 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뿐만 아니라 중독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자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프라든"은 감마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무수한 항균작용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더기 및 실내에 산적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히 제거해 주는 "오프라든"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지킬수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균비부는 미용도구들이지만 "오프라든" 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 상품들과 피부노화지연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해서 첨가한 "건강기능식품"는 처세대 이이디어 상품이다

육바라밀 벽시계


S0010012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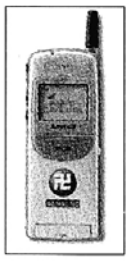
부처님의 말씀 육바라밀과 보왕삼대론을 시계에 접목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정에 두시고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수 있는 기회가 되실것입니다

· 육바라밀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라고 하는 여섯 가지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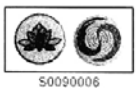
색상 백색칠판에 4도칼러
크기 200×260×60㎜
원판내용 육바라밀 보왕삼대론 가격 ₩ 15,000

강력한 신소재 전자파 제거장치




S0090004


S0090005


S0090006

인체의 뇌파는 미세한 미이크로 웨이브 이지만 핸드폰은 900메가 헤르츠의 전자파를 발신하며 뇌중앙 유신등의 병을 유발합니다. 본 제품을 끌이기만 하면 안심" 핸드폰을 들고, 붙이기 전에 오링테스트 해 보고 붙이고 나서 오링테스트 해 보시면 깜짝놀랄 정도로 달리짐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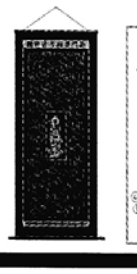
강력한 키릴리안(KIRILIAN)이 유해전자파를 흡수 용해합니다.

모든 전자기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응도 휴대폰, 헤어드리이기, 컴퓨터,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TV
믹서 등과 수액과
규격 2개 1세트

가 격 : ₩ 9,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내부그림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심독에서 벗어날 뿐만아니라 모든 소원이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색상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55㎝(가로) 140㎝(세로)
재질 후로킹
특징 변색이 없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법회안내



종범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27일 오후 2시 대한불교진흥원 1월 다보법회. (02)703-0108



법현스님 (천중사 부주지) 짝수달 세째주 토요일 오후 3시 중불동문법회. 매주 목, 토요일 오전 11시 상명대불교학생회법회.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어린이법회. (02)914-3358



지관스님 (길상사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가족법회. 매월 첫째, 세째 일요일 오후 1시 거사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어린이법회. (02)3672-5945



해성스님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장)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불교기초교리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수화교육법회. (02)202-5831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월20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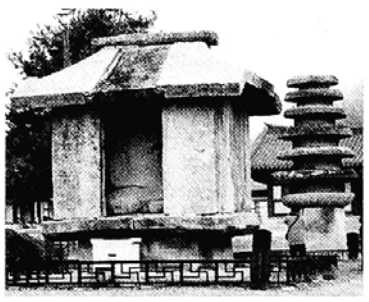
■강화보문사 초사흘 사시불공=용진신행회는 오전 6시 강화도 보문사로 초사흘 사시불공법회를 떠난다. (02)279-1191

■무량회 고령 대창양로원 방문=조계종복지재단 산하 자원봉사 단체인 무량회(회장 박윤희)는 경북 고령 대창양로원을 방문한다. 이발, 목욕, 빨래봉사와 건강진료 활동을 전개하며, 각종 의류도 전달한다. (02)723-4302

1월21일 (목)

■관음종 종정 대천대종사 49재=관음종 종정 대천대종사 49재가 논산 관음사에서 봉행된다. (02)763-3345

1월22일 (금)



◇ 삭막한 도시를 떠나 천년고찰 운주사에서 새 발심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능인선원 운주사 순례법회=능인선원은 오전 6시 전남 화순군 천불산 기슭의 운주사로 1월 순례법회를 떠난다. (02)577-5800

■바른법연구원 겨울수련회=바른법연구원은 25일까지 생활속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업장소멸, 소원성취, 깨달음을 위한 수련회를 연다. (0344)966-5877

■전국불교산악인연 신년하례법회=오후 2시 서울 장충동 대현실업 회의실에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신년하례법회가 열린다. (02)2232-6948

1월23일 (토)

■선암사·대원사 답사=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2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아름다운 승선교와 정감있는 해우소가 있는 선암사와 낙안읍성민속마을, 대원사 등지를 둘러보는 답사기행을 떠난다. (02)725-1284

■길상사 주말 선수련회=길상사는 일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99년도 제1차 1박2일 주말수련회를 실시한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입재하며, 참선과 발우공양 등을 진행한다. (02)3672-5945

1월24일 (일)



◇전통사찰 주변의 불교문화와 지연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생태기행에 동참해보자.

■맑고향기롭게 철새모이주기=맑고향기롭게는 오전 8시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 부근 철새 도래지로 철새 모이주기 생태기행을 떠난다. (02)741-4697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 삼대보궁 참배=용진신행회는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 등 3대 적멸보궁으로 참배법회를 떠난다. (02)279-1191

1월25일 (월)

■제14회 불이상 시상식=제14회 불이상 시상식이 오전 11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열린다. 연구분야에 동국대 최봉수교수, 실천분야에 대구능인고 고우익 교법사가 수상한다. (02)3411-6167

1월26일 (화)

■정토회 나눔의장 수련회=정토회 정토수련원은 31일까지 마음이 자유롭고 관계가평화로워지는 제74차 나눔의 장 수련회를 연다. (0581)571-6031

종단소식

조계종

해인사 본말사 회의

제12교구본사 해인사(주지 보광)는 27일 오후 2시 본말사주지회의를 열고, 98년 회계결산 및 99년 예산안을 처리한다. 또 해인사 약수암은 26일 비구니 원로 학연스님 49재를 봉행한다. (0599)931-1001

파라미타 경주지회 2돌

제11교구 불국사(주지 성타)는 21일 오후 2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파라미타 경주지회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

제7차 법계고시 실시



총무원(원장 인곡)은 제7차 법계고시를 13일 서울종무처와 선암사, 제주종무원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이번 법계고시에는 97명이 참여했다.

전북교구 새해사업 논의

전북교구지방종회(의장 보성)는 21일 정기 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회에서는 98년 결산 및 신년 예산, 새해 사업 계획, 종무원 현안문제 등을 논의한다.

불우이웃성금 전달

울산교구종무원(원장 법우)은 3일 대원사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당일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여만원을 울산 KBS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울산교구 종무원 및 교구 산하 망해사, 옥룡사가 참여했다.

천태종

대충대종사 탄신법요식

대충대종사 제74회 탄신봉축법요식을 22일 오전 11시 총본산 구인사에서 봉행한다.

도용 종정, 운덕 총무원장을 비롯 각 부 부·국장스님,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법요식은 대충대종사의 생애와 유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진각종

새해맞이 49일 불공

통리원을 비롯한 전국 각 심인당이 18일부터 '새해맞이 특별 49일 불공'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전국 각 심인당은 4일부터 10일까지 새해 대서원 불공을 봉행했다.

문사부장에 무외정사



그 동안 공석이던 통리원(원장 성초) 문화사회부장에 무외정사(선상균·사진)가 서리로 임명됐다.

무외정사는 1984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진선여중 정교, 진각대학 교무국장, 교육원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총화종

법경 경기북부종무원장 취임

경기북부종무원장 법경스님 취임법회가 7일 의정부 상원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부종정 인현스님과 총무원장 남정스님을 비롯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일승종

부산경남교구 신년하례

총무원(원장 혜정)은 12일 부산 국제신문사 크리스탈볼룸에서 1백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경남교구 신년하례법회를 가졌다.

일붕선교종

일붕문도회장 영명스님



일붕문도회 제9대 회장 영명스님〈사진〉 취임식이 12일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렸다. 제2대 문도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영명스님은 현재 대한불교종정협회의 부회장, 법상종 종정, 강남덕암사 회주로 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인사

〈전보〉
조계종 증무원 ■총무원
△사회과장 전형근 △문화과장 대우 이상규 △기획계장 박종학 △총무계장 김유신 △전산계장 양자원 △문화계장 인성호 △홍보주임 조한곤 △호법부주임 전인동
■포교원 △유지호 △이현숙 △윤남진
■교육원 △윤대혁 △장영욱
■호계원 △호계과장 고완수
■중앙종회사무처 △박재현
〈승진〉 △총무원 기획과장 대우 황찬익

♣ 강좌

△서예, 사군자, 달마그림=한국불교예술문화원에서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서예, 반야심경 사경, 달마그림 그리기 강좌를 실시한다. 수강중 우수한 회원에게는 한국선묵가협회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02)2242-0331

△청소년 겨울방학 특강=대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30일까지 청소년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한다. 진학대비, 자기계발, 전통문화, 스포츠 등 4분야 22개 강좌가 진행된다. (053)761-9400

△발반사요법 및 향기요법=대구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발반사건강요법 및 향기요법 강좌를 실시한다. 수강료는 10만원. (053)784-3669

△불교 기초교리=조계사는 제23기 불교기초교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예절과 기초상식, 근본교리, 수련법회 등으로 구성되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주·야간반으로 운영된다. (02)720-1390

△무료 전래놀이마당=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전래놀이마당을 실시한다. (02)282-1100

♣ 모집

△가빈문화원 제2기 수강생=대흥사부산포교원은 가빈문화원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통등만들기, 다도, 사군자, 수화, 불교미술, 서예, 국악교실 등을 지도한다. (051)636-5114

△수련회 자원봉사자=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수련회 기간중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활동 가능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다. (02)3672-5945

△인덕노인학교 회원=인덕노인복지회관은 99년 노인학교 회원을 모집한다. 60세이상 어르신이면 누나 참여 가능하다. (02)385-8205

△장애인 한글교육 수강생=강북장애인복지관은 학령기에 한글교육의 기회를 갖지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한다. (02)989-4215

△삼학원 동계 계절학기=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은 선전강독, 한국불교금석학, 불교논서 연찬 등 불교원전 연구과정과 범어연습초급1, 불교한문, 범어연습 증급1, 불교어학 연수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02)765-9602

△자비의전화 봉사자·후원자=인천 자비의전화는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활동해 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한다. (032)884-0118

△머리미용, 컴퓨터 자격증 취득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머리미용과 컴퓨터 자격증 취득반을 모집한다. (02)817-8054

△우리글 연구반 회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기초한글습득을 위한 우리글 연구반 회원을 모집한다. (02)852-0525

△동산불교대 신입생=동산불교대학은 99학년도 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2년과정으로 정규반과 통신반으로 나눠 실시된다. (02)732-1206

△결식아동돕기 자원봉사자=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결식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도시락 조리와 배달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구한다. (02)806-1376

△포교사과정, 경전연구반 신입생=부산불교교육대학은 포교사과정과 포교사통신반, 경전연구과정, 교리반, 수화반 등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051)818-8659

♣ 이전

△선우도량은 5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송빌딩 301호로 사무실을 옮겼다. (02)736-0386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는 1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6 정토회관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5878-996

♣ 화혼

△본사 고영배 사진기자가 24일 일요일 오후 1시 40분 전남 해남 남향예식장 3층 난실에서 김미숙씨와 화촉을 밝힌다. (0331)257-2658

애독자 사은
생활 기공지도

독자 여러분의 요청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수련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 기공 지도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내 용 ·

가. 변성의식 상태수련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한다」
도서출판 물병자리 박희준 옮김 참조
나. 공기공과 원극공
「고차원 치료 능력자들의 세계」
도서출판 단. 박희준 지음 참조
다. 정심조식법(正心調息法)
(소망성취에 도움이 되는 염력 개발 특수 호흡법·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임)
라. 오라 충전법 기타.

· 일시와 장소 ·

가. 일 시 : 1999년 1월부터 수시접수
나. 장 소 :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교실
(전화 02)720-5682/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809호
다. 지도자 :
번역저술가·레이키 마스터·티쳐 박희준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레이키법도 전수합니다.

1박 2일 출가생활
대원사 주말 수련회 안내

엄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죽음을 준비합시다."라는 수련주제로
아래와 같이 주말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배워서 삶의 길을 밝히고자 하는
대원사 정토수련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매주 토요일 5시 ~일요일 2시
▶수련내용 : 정토수행법, 선체조,명상음악, 육근참회, 관정기도, 운력등
▶수련주제 : 죽음을 준비합시다.
▶수련지도 : 현장스님 ◀회비없음<무료>
▶교 통 편 : 광주고속터미날에서 117번 시내버스 타고 <사평 종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
<군내버스 3회 운행 : 8시 40분, 12시 40분, 4시 30분>
▶연 락 처 : ☎ 0694)852-1755
FAX 0694)853-0009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주지 석 현장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15개월만 복용하면 20kg 이상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본사 생산제품 -
솔 선 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신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출장) (053) 655-3027

불자건강 회원모집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여러가지 요법으로 불자님의 건강을 관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성 근원요법 등 10여가지의 다양한 요법으로 각자 개인에 맞는 요법을 선택하여 드립니다.
동참하시는 불자님은 건강요법원이 설립된 후 평생동안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불자님의 동참금은 불자원 도량불사와 건강요법원 불사에 사용됩니다.

연락을 주시는 불자님께는 자세한 설명과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불사동참금 - 땅 1평 - 일만원
계좌번호: 농협 041-12-275861 (예금주 김영생)

상담전화
02)722-4213~4

주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B/D 401호
불자건강기도도량 불자원
원장 人 道 합장

뉴질랜드에 첫 한국사찰 세웠다



◇뉴질랜드 최초의 한국사찰 동명사가 건립됐다. 지난 해 11월 14일 준공법회에는 2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법당을 가득 메웠다.

동명사, 남섬 3천여평부지에 개원
2백여 불자 구심체…주지 성공스님

뉴질랜드에 최초의 한국사찰이 건립됐다. 뉴질랜드 남섬의 중심부인 크라이스처치에 위치한 동명사(東明寺). 지난 해 11월 14일 멀리 고국을 떠나와 이국에서 새 삶을 꾸리고 있는 2백여명의 불자들이 1백여평의 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준공식을 거행했다.

94년 12월 뉴질랜드 한국불교인회 크라이스처치지부를 설립하며 사찰 건립을 발원한 지 4년여만이었다. 그동안 신만법화보살 집에서 20여 불자가족이 모여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법당 갖기를 염원했다.

발원은 컸지만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 마련은 더디기만 했다. 이러던 중 서울 법련사 신도회장이었던 박명심월 보살이 사찰건립 발원 소식을 듣고 불사기금을 보시함으로써 급진전됐다. 크라이스처치 교외에 3천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98년 3월 시공에 들어갔다. 고국의 전통사찰 양식은 아니지만 건물 정면에는 삼보마크(원이삼점)가 선명하다.

현재 동명사에는 주지 겸 지도법사로 성공스님이 주석하면서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이끈다. 이날 준공법회에서 성공스님은 "동명사가 뉴질랜드 남섬의 한국불자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은 물론 뉴질랜드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전하는 소임이 주어졌다"며 의욕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동명사가 들어선 크라이스처치는 지명 그대로 기독교도들의 도시이다. 게다가 에덴동산이라는 뜻을 지닌 에덴데일(Edendale)에 한국 사찰이 들어선 것이다. 뉴질랜드인들이 가장 많이 신앙하고 있는 종교는 영국의 성공회로 전 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오클랜드에 있는 한국불교인회도 사찰 건립을 위한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전북불교회관이 마련한 동계수련대회에 참석한 1백30여명의 전주 송천중학교 학생들은 찬물가와 율동을 배우며 즐거워하고 있다.

"다시는 절망 않겠어요"

전주 송천중 갱생 수련대회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갱생보호를 받고 있는 전주 송천중학교(前 전주소년원). 11일부터 13일까지 '함께하는 세상만들기'를 주제로 전북불교회관(원장 화일)이 마련한 동계수련회가 열렸다.

12일 오전 10시, 1백30여 학생들의 예불소리가 높은 담과 굳게 닫힌 철창을 넘어 시방세계로 울려 퍼졌다. 김민숙 지도교사의 지도로 진행된 율동과 함께하는 찬불가 배우기 첫 시간에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한 분위기 였지만 곧 자신감에 넘쳤다. 김교사가 "한번 자신있게 할 수 있는 학생 있어요"하고 묻자 여기저기서 "저요, 저요…"하며 손을 뻔쩍 번쩍 든다. 결국 각 반별 대항에 들어갔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도교사는 장기자랑을 제안했다. 학생들의 분위기를 살려주기 위한 긴급 처방. 학생들은 최신 유행가를 멋드러지게 부르고 경청하는 또래들은 박수를 쳐가며 흥을 돋웠다.

참선 · 수계 통해 참회
찬불가 부르며 부처님 품에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노래가락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이 시간만큼은 청진동자가 됐다. 오후에는 '도전 50곡' '신나게 춤추자' 등의 프로그램으로 심신을 맑게하고, 맛있는 떡복기로 간식도 했다. 송천중학교 학생들은 13일 수계식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부처님의 품안에서 따스함을 만끽했다. 수계식에서 이모군은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하지 않을 거예요"라며 사회에 나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했다.

불자학생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 수련회는 딱딱한 강연이나 교리공부보다는 함께 노래하며 발랄한 심성함양을, 참선, 독경, 수계식을 통해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는 시간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지도교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불자 학생들은 수련대회를 계기로 지도법사스님과 교사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다. 수련회 첫날 지도법사스님이 5통의 편지를 받을 정도. 이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각오와 고민 등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스님들은 꼬박 꼬박 답장을 해주는 등 자애로운 불성도 싹트고 있다. 지도법사 회일스님은 "불교적 인생관을 심어줘 재범을 하지 않토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종교인 평화회의 지도자 신년하례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스님)는 7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부산 종교지도자 신년 하례식를 가졌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의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이날 김혜신 원불교 공동대표는 기원문을 통해 "종교간의 화합과 인류공동체를 위해 종교를 뛰어넘어 함께 할 수 있길 기원하다"고 말했다. 또 김우신 유교 공동대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사소한 차이를 뛰어넘어 연대와 관계를 통해 문화를 형성해 가자"는 내용의 세계종교회의 지구윤리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하례식에는 새로 공동대표로 추대된 덕수 삼광사 주지스님을 비롯 안상수 부산시장, 상임대표 정영문 목사, 천주교의 김성수 신부 등 종교지도자 2백여명이 함께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천원으로 청소년 도와 전주 '천천클럽' 발족

우리는선우 전주지회(지회장 오종근 · 호원대학교 교수)가 지역내 불우청소년을 돕기 위한 '천천클럽(千千 club)'을 운영한다.

우리는선우 전주지회는 23일 정진법회에서 천천클럽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천천클럽은 한명이 한달에 1천원씩을 1년 단위로 보시하는 사회사업이다.

후원금은 전주소년원,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지원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중근 기자

충주 청룡사지 복원 추진

고려말 중원 대표사찰…국보 · 보물 많아

여말선초 중원지방의 대표적 사찰이었던 충주 청룡사지 복원이 추진된다.

청룡사지는 유적발굴조사가 끝난데 이어 진입로 1.5km 포장공사와 5백평규모의 주차장이 완공된 상태로 국유림 불하신청과 건물복원공사가 진행중이다.

청룡사복원추진위원장인 현우스님(대한법화종 재무부장)은 청룡사가 도재양성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룡사지 복원불사에는 국유림불하금과 대웅전 건립에 총 4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태여서 뜻을 같이하거나 원력있는 불자들의 불사동참을 바라고 있다. 문의 (0441) 42-8856

청룡사지는 전통사찰 658호로 지정돼 있으며 보각국사 정혜원융탑이 국보 197호로, 사자석등이 보물 656호, 보각국사탑비가 보물 658호로 각각 지정돼 있다.

이밖에도 청룡사위전비와 적운당사리탑이 현존한다. 태조 1년 보각국사가 입적하자 태조는 명복을 빌기위해 청룡사를 크게 중창했다. 보각국사(1320~1392)는 고려말 선사로 나옹선사의 신프를 받았으며, 고려말 공민왕 우왕 공양왕은 스님을 왕사와 국사로 책봉하고 원찰등에 주석케 했으나 보각국사는 이모든 것을 거부하며 전국사찰을 편력, 선회(禪會)를 크게 여는등 불교발전에 진력했다.

현재의 청룡사는 조선말 관서 민대룡이 소실 묘를 쓰려고 절을 불살라 사지로 내려오던 것을 현우스님이 옛암자의 자리에 법당건물을 짓고 복원불사에 주력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고려말 중원지방의 대표적 사찰인 청룡사지의 보각국사 정혜원융탑과 탑비, 사자석등은 빼어난 조형미를 보이며 국보와 보물로 지정돼 있다.

전주 의사불자회 결성

장학사업 · 무료 의료봉사 활동등 전개

전북 전주에 의사불자회가 결성된다. (가칭)전주의사불자회는 22일 첫 모임을 갖고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주의사불자회는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주요사업으로 꼽고 있다.

전주의사불자회 준비위원회는 "교계가 그동안 인재불사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현재 어린이법회 지도자에서부터 각종 법회지도자까지 인재부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학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전주의사불자회 회원을 중심으로 매월 회비를 적립해 장학기금을 마련, 전주지역내 예비 불교지도자들에게 지원, 인재양성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의사불자회는 정기법회, 무료의료봉사 등의 신행및 사회복지사업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

현재 전주의사불자회에는 남궁정형외과, 이동호내과, 선덕원, 조정호산부인과, 곽만춘내과 등 10여 개인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주의사불자회 창립을 추진해온 남궁정형외과 남궁 선 원장은 "전주지역내 의사불자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사불자들이 지역내에서 인지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불자회가 창립되면 전주불교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중근 기자

동학사 승가대 학인 50명 졸업

83년만에 최다인원 배출



한국불교 최초의 강원이자 최초의 비구니전문강원인 동학사 승가대학(학장 일연 · 사진)이 개원83주년만에 가장 많은 50명의 학인들이 졸업한다.

22일 오전 11시 동학사 승가대학 강설전에서 치러지는 36회 졸업식은 강원사에 뜻깊은 졸업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졸업하는 화엄반은 특히 신심이 강하고 화합을 잘하기로 교계 정평이 나있다.

학장 일연스님은 "직접 지도했던 학인들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졸업하니 더욱 보람이 있다"고 전제하고, "학인들이 남이 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기 보다는 어디서 살더라도 겉모습 보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엄반 반장 묘관 · 명오스님은 "63년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가장 많은 학인들이 함께 탁마했다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동학사승가대학은 1816년 금강산 유점사 당시에 율봉문인이던 만화스님이 대웅전과 큰방을 건립해 강원을 설립한 이래 초대 강주로 금봉스님이 추대됐고, 1963년 경봉스님 강주시절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27일, 선원사 복원기도 700일 기념법회

인천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27일 선원사 복원을 위한 천일 지장기도 700일을 맞아 큰스님 초청대법회 및 선원사 예술제를 봉행한다.

오전 10시 30분 선원사에서 열리는 큰스님 초청대법회에는 일본 고려사 관장 태연스님이 국난극복을 위한 설법을 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강화문예회관 소강당에서 '마음을 나누어요'란 주제로 예술제를 개최한다. 예술제에서는 사물놀이, 임춘희씨 등의 지전춤, 꽁트 등이 진행된다.

김중근 기자

정화양로원 위문 기장사암연합회

부산 기장군사암연합회(회장 정암 · 해동용궁사 주지)는 구랍 16일 북구 화명동 정화양로원을 방문 노인들을 위로했다. 연합회 회원스님들은 정화양로원을 찾아 쌀 4가마, 라면 18박스, 과일, 빵 등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불교계 유일의 정보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겨울 호 제8호(통권 제28호)

지상중계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1
묵조선(默照禪)과 함께하는 참선여행

문화시평 일본 대중문화 개방
불교 문화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불교계진단 ❼ 불교계 장례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 위한 무덤의 나라
불교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불교계 주요 납골시설 및 이용방법

특집 현대인의 수행법 ·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비교한다
간화선(看話禪)이란 무엇인가
현대인에게 선이 주는 교훈
선은 더이상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왜 위빠사나 수행법을 찾는가
「위빠사나를 돕는 아홉요인」으로 본 위빠사나 참선수행법
현장탐방 생활 속의 선을 찾아서

특별기획 세계의 사상가와 불교 ❻
동서양 사상의 융합을 꾀한 옥따비오 빠스
옥따비오 빠스의 불교사상
옥따비오 빠스의 작품세계 및 주요작품

山寺古談 ④ 한글경전번역을 위한 화신보살, 운허 큰스님

인터넷불교 불교계 정보화 이렇게 해야 한다
한국 불교계의 인터넷 숙제

불교문화의 현장 책으로 만나는 불화
불교미술의 정수, 한국의 불화(佛畵)

갤러리화보 사진으로보는 성보기행 ❽ / 99년 '건축문화의 해' 기념
건축미를 통해 본 가람건축의 미학

생태탐사기 남한산성과 아홉 절 주변의 자연생태

고전산책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❸
백파 스님에게 주다 - 편지 ①②③ • 김정희

발굴 홍인표 거사의 염불왕생법(완결편)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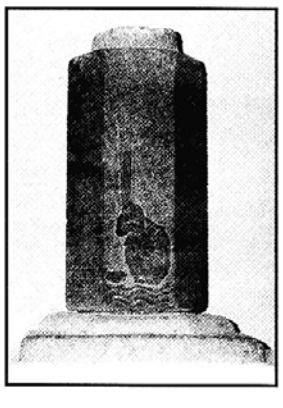
불교계 주요일지(1998.9 - 1998.12)

독자의 창 인간의 사유방식은 연기(緣起)에서 비롯된다

좋은책 읽기

불교와 문화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편집실(02)719-2606, 정기구독 신청 문의 Tel. 02 - 719 - 1855, Fax. 02 - 719 - 5052

募 緣 文



서기 817년 이차돈 성사 추모비 〈경주박물관소장〉

서기 527년 신라땅 경주에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성스러운 종교적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순교자이신 이차돈 성사님의 진리를 찾으시며, 진리를 지키시며, 진리가 되는 생활을 보여주신 이 역사적인 순교가 밑받침이 되지 못하였다면 어찌 세계의 자랑거리인 신라불교가 태어날 수 있었으며 신라 불교가 찬란한 빛을 발하지 못하였던들, 어찌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었으리오!

이러한 거룩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기 817년 신라시대에 추모비가 건립되어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차돈 성사님께서 순교하신지 어언 1470년이 흘러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 경내에 이제 다시 그 순교정신을 이어 받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부대중들이 뜻을 모아 기념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하오니 인연(因緣)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정성을 보내주실 곳 (동참금은 각자 정성으로)
우체국 700047-0333069 박 성 일(흥륜사 주지)
농 협 721015-52-239100 박 성 일(흥륜사 주지)

■ 비문 : 일타큰스님 찬 ■ 글 : 덕봉선생

흥륜사 이차돈 성사 추모비 건립위원회
경주시 사정동 281번지 흥륜사내
TEL 0561)772-4834, 43-3776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주지 혜해 합장

"성도절을 이웃과 함께"

사암련 중심 자비의 등 밝히기-장학금전달 등 다양

'IMF시대=이웃과 함께하는 시대.' 교계가 계속되는 불황속에 맞는 성도절을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국의 사암연합회와 사찰은 성도절인 25일(음력 12월 8일)을 전후해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밝히기, 결식아동돕기 자비의 쌀모으기, 장학금전달식 등을 갖는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천운)는 25일 무각사에서 성도절 봉축대법회 및 문화예술제를 펼친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광주불교승보회와 광주불교장학회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이웃과 함께 하는 점등식, 광주불교 어린이 예술단 공연, 극단 '반야' 공연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 등이 열린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25일 오후2시 능인고등학교 강당에서 성도절 기념대법회와 함께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자비의 쌀모으기 행사를 실시한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성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도절 기념법회를 비롯 노숙자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5천여개의 등불을 밝힌다. 도선사(주지 동광)는 '1등 밝히기'로 모금된 보시금을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는 25일 오후7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성도절 기념대법회를, 직지사(주지 녹원)는 18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후8시 설법전에서 법사를 초청, 성도절 대설법회,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은 24일부터 정진법회와 탑돌이 만등점등식을 각각 개최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영주시 6개 중·고교 종교편향교육 '물의'

경북 영주시에 소재한 영광중학교 등 6개 중·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강요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영광중학교와 영광여자중학교를 비롯 동산 중·고등학교 등 6개 학교는 1주일에 두시간씩 정규수업시간을 이용해 종교교육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광여자중학교에서는 지난 해 영어시간에 기독교 간증을 내용으로 하는 비디오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영어시간인데 기도원에서 안수기도 받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선생님이 보라고 해서 받는데 가슴이 떨렸다"고 격분했다.

영주지역 기독교 종교교육 강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0년부터 종교교육 강요에 대해 지역 스님들은 교육청에 중지를 요청해 해당 학교장들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았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영주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선택적으로 실시하되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개학과 동시에 이들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근 기자

청각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습

광림사, 송파구청에 차량·강사 지원

청각장애인의 자동차운전 면허 무료취득이 서울송파구 광림사(주지 해성스님) 연화복지학원의 노력으로 본격화됐다.

5년 전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법회 활동을 펼쳐온 광림사는 지난 9월부터 법회에 참석하던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전이론 교습을 실시한데 이어, 8일 송파구 탄천운전연습장에 수화강사와 교습용 특수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이 운전교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성스님은 "청각장애인들도 운전을 배워서 사회에 보탬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불자들이 뒷받침 해주는게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이 운전교습장에는 현재 필기시험을 통과한 5명의 청각장애인들이 기능시험을 위한 교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운전교육은 이론교육이 매주 일요일 광림사 법당에서 열린다. 이론시험에 통과하면 송파구 가락동에 마련된 연습장에서 월~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토요일에는 4시간씩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02)423-8150 김재경 기자

불자들 올력으로 「정토회관」 세웠다



◇정토회가 서울 서초3동에 세운 정토회관 전경.

회원들 자재운반등 봉사 자청 입주 '한창'…3월14일 개원법회

교계 신행단체가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4백여평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 회관 건립 공사에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서초동 정토회관이 그 현장.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 회원들인 정토행자들이 공사현장에 나선 것은 지난 해 8월 16일, 회관 기공식이 열린 날부터다. 이때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12월 8일까지 하루 평균 20~30여명의 정토행자들이 스스로 참여했다.

현장에서 정토행자에게 주어진 일은 속칭 '데모도' 역할. 시멘트와 목재 같은 건자재 운반, 현장 청소, 기능공 심부름 등 잡부 그 자체였다.

공사 현장에서 잡부의 일당은 6~7만원선. 공사 기간을 어리잡아도 1백50여일, 대략 1억여원의 공사비를 절약한 셈이다.

당시 업자들은 어떤 일이든 묵묵히 해내는 정토행자들을 가리켜 '개미군단'으로 불렀다.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서 일했던 도우미들도 있었다. 부산, 대구, 문경, 홍제법당 소속 회원 1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1백50여일 동안 매일 15시간의 노력봉사를 했다.

설성봉씨(44·부산정토법당)는 "노력봉사라니 가당치 않습니다. 새벽에 기상해 108배를 하고 울력하는 마음으로 공사장을 찾았죠. 신행 그 자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1층 법당, 2층 사무실, 3층 숙소, 지하1층에 식당이 들어선 정토회관에는 불교환경교육원,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월간 정토, JTS 등이 최근 셋방살이를 마감하고 입주했다. 정토회는 3월 14일 개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 02)5878-992.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공사 중단

공사비 지급 늦어져

교계 최대 교육불사인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신축공사가 10일부터 잠정 중단돼 6월 완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대학본부, 강의동, 수행관, 교수회관 등 전체공정의 65%에 달하는 공사진척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사태로 지난해 말까지 종단에서 지급키로 했던 69억원의 대금을 공사업체인 풍림산업에 제때에 지급하지 못해 이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승가대 법인사무처장 해관스님은 "늦어도 2월 중순 전에 지급돼야만 공기내에 완공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종단의 지원만이 원만히 성취하는 길"이라고 조계종 총무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금강산관광객 신계사터 예불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금강산관광 길에 나선 3백여명의 불자들이 4일 이례적으로 신계사터를 찾아 예불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금강산새해 첫 관광에 참여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회원들이 현대측에 요청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법타스님 태경스님(제석사 주지) 지산스님(은해사 영천포교당 주지)을 비롯 김도현 전 문화처육부 차관, 김동현 전 문화재연구소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장지현 진각복지회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평불협은 금강산관광 코스에 신계사지가 포함되도록 현대측과 협의키로 했다.

"교도소내 종교활동 부자유" 36.5%

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 230명 설문

교도소내 종교생활은 여전히 부자유스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출소자 2백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도소 인권실태 설문조사 자료집〉에 따르면 응답자의 36.5%가 교도소내 종교생활이 부자유스런 편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매우 자유스럽다'는 4.4%, '대체로 자유롭다'는 26.1%, 무응답은 33%로 나타났다.

교도소 당국에 의한 종교활동의 보장과 권장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40.9%), '좋은 영향을 준다'(10.4%), 무응답(42.2%) 등으로 응답했다. 이중 일부 응답자들은 "교도관 다수가 개신교인이고 이들에 의한 선교가 많으며 특정종교가 장려된다"고 답변했다.

'교도소내에 종교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48.2%), 아니다(30.3%), 무응답(21.3%) 순으로 답했으며, '신자 대표가 있느냐'는 문항에는 있었다(44.8%), 모른다(26.5%), 없었다(15.7%) 등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출소자들은 교도소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특정종교의 강요와 차별금지(9명) △미결수 및 공안사범의 종교활동 보장(8명) △종교방 및 종교사동의 설치(2명)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말 교도소 과밀현상 해소와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앞으로 2~3년간 검토작업을 거쳐 종교단체 및 비영리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설립방침을 밝힌 바 있어 빠르면 2001년께 종교교도소가 문을 열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日불교 포교원 건립추진 효창공원 인근 주민 반대

일본불교인 세계창가학회(SGI) 한국불교회(이사장 박재일)가 김구·윤봉길선생 등 항일독립운동가 7명의 묘역이 있는 서울용산구 효창공원 부근에 포교원 건립을 또다시 추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청파2가동 주민들과 숙명여대 교직원 및 학생, 백범기념사업회 등은 12일 '민족성역에 왜색 종교시설 건립 추진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대운동에 나섰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제3기 '불교 귀농학교' 개강

조계종총무원 사회부와 전국귀농운동본부, 실상사, 영화사, 우리는선우, 대불련총동문회는 공동으로 2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매주 토·일요일 오후 3~7시)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제3기 불교귀농학교를 연다.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스님)가 주관하는 이번 이론교육이 끝나면 3월 19~22일 실상사에서 현장교육도 실시한다. (02)723-1884 김재경 기자

총지종 홈페이지 개설

총지종(통리원장 총지화)이 9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ongji.or.kr)를 개설했다.

종단사와 종조인 원정 대성사의 생정 설법 전문, 역대 종령의 사진과 약력, 종단 산하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밀교경전과 불서 목록도 수록했다. 도필선 기자

청주BBS 사장에 도공스님

청주불교방송은 14일 제12차 운영위원회(위원장 혜광·법주사 주지)를 열고 현암사 주지 도공스님을 제3대 사장으로 추대했다. 이번 사장추대는 전임사장 각현스님이 개인적의 사유로 지난해 9월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다. 취임법회는 21일 거행된다. 김중근 기자

불교인권위 10주년특위 구성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12일 서울안국동 인권법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출소장기수의 집 마련, 불교인권 세미나 개최 등을 기념사업으로 전개키로 했다. 특별위원회 준비위원장엔 인권위 사무처장 도관스님을 임명했다.

인권위는 빠르면 2월중에 인권전문 변호사를 영입해 3인 공동대표체제를 구축, 인권단체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도 확정했다. 도필선 기자

"12·23 구속자 석방" 농성

중앙승가대 학인 도견스님 등 4명의 스님은 13일 12·23 조계사 공권력 투입 규탄 및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며 조계종사태 구속자석방대책위 사무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4명의 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구속자 석방촉구와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조계사 운영권 넘겨달라"

12·23 조계사 사태로 결성된 조계사신도대책위원회가 조계사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조계사 발전에 동참 기여한 신도자치회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도대책위원회는 매일 오후 1시 "조계사를 자치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조계사 일대에서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도필선 기자

금강불교대학 2543(1999)학년도 신입생 모집

본교는 불교적 신심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천태종 종립교육기관으로서 불기 2543년(1999)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구분 및 인원 : 서울, 부산 1)불교학과 120명 2)교법사과정 50명
◆교 육 년 한 : 가.불교학과-2년 나.교법사과정-1년(야간)
◆교수진 소개 : 이재창교수 김영태교수 리영자교수 권기종교수 원의범교수 서윤길교수 조용길교수 김상현교수 정병조교수 강동균교수 곽만연교수 최봉수교수 이봉춘교수 권탄준교수 김용표교수 장충식교수 허경구교수 지창규교수 장휘옥교수 김사업교수 최종석교수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
◆원서접수 : 1) 기간: 불기2542(1998)년 12월 1일(화) - 불기2543(1999)년 2월 4일(목) 오후 5시까지
2) 접수처 : 1.서울교무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내)
2.부산교무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삼광사 내)
◆특 전 : 가. 재학중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면제
나. 본 종단 신도가 아니라도 불교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음
다. 교법사과정 수료후 본 종단 교법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02)576-6401-2 또는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051)808-0730, 808-711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교수진, 가장 알찬 교육과정 운영, 가장 철저한 교육

불기 2543년 1월
대한불교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55㎝』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나를 일깨워 주신 부처님 ②

원만심 〈본명 채희주·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남 아픈곳 어루만져 주는 것도 기도라며 불우한 노인·이웃 부모형제처럼 여기던 어머니의 훈훈한 향기가 언제나 곁에…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가 94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항상 건강하셨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부처님 법당에 참배하셨던 어머니는 육신은 죄가 많다며 화장을 고집하셨다. 49재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광명시 소하동 노인들을 모시고 대중공양을 했다. 심우회 회원들의 도움 속에 총무보살의 회심곡으로 회향을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보시행을 배웠다. 모든 자식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 자랑스런 어머니셨다. 법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남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곧 기도라고 강조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노인을 부모로 삼고 불우한 이웃을 형제로 삼는 어머니의 훈훈한 향기가 언제까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믿는다. 지금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다. 어머니는 유난히 바다를 좋아하셨기에 유골도 바다에 뿌렸다. 온 세계 바다를 유람하시여 아미타부처님 나라에 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원한다.

본래 어머니께서는 기독교신자로 집사까지 지내셨다. 나 역시 어린 시절 교회를 나갔다. 그래도 어느 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기에 좋은 법을 만나 그토록 부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내가 불교를 알기 전에도 어머니께서는 항상 자비를 실천으로 옮기셨다. 어떻게 그렇게도 남 주기를 좋아했을까. 그러나 당시 나는 너무 지나치다면서 속상해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내가 불교를 알게 되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되돌아보니 떠나가신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메인다. 나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나를 생각해 본다. 그러다가 마음에 변화가 온 적도 많았다. '구경이나 다니며 즐겁게 살지 왜 고생스럽게 봉사야' 하는 갈등도 많았다.

3년 전의 일이다. 어머니 증손자(필자 오빠의 손자)가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지하축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흙더미에 깔려 온 얼굴이 피투성이로, 팔그대로 생사가 걸렸던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다. 아예 환자 어머니는 면회도 못할 정도의 비참한 사고였다. 눈은 실명상태였고, 뇌도 확실한 진단이 안 나와 죽지 않으면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초조해했고 말조차 못하는 상태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지나 이웃들은 모두 "증조할머니께서 열심히 부처님에게 기도했으니 살아날 거다"는 말로 위로했다. 그 후 증손자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어 모든 사람의 탐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금은 건강한 청년으로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때 병문안을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다. 바로 증손자를 빠른 속도로 쾌유케 한 것은 할머니가 그동안 닦아온 기도와 보시정신이었다는 것을.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 기도에 감응하신 것이다. 나는 그때 부처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극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봉사의 정신을 활성화시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봉사할 것을 권한다. 대부분의 보살들은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없는 시간 중에서 시간을 빼고 천원 쓸 때 백원을 뺴 놓으면 봉사는 가능하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을 때는 진정한 봉사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봉사란 신심으로 하는 일이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희생없이는 할 수 없다. 언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게될 지 누구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법이다.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이미 늦는다. 남이 권할 때 받아들이는 것도 큰 보시라고 생각한다.

장마철이면 내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일이 있다. 27연대 병사들 생각이다. 참담한 꿈도 피어 보지 못한채 족우로 21명이 꽃다운 목숨을 잃게 됐다. 우리 심우회 봉사단들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가슴아픈 일이었다. 모두가 내 자식 같았다.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던 대가를 기대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병사들은 다 내 자식들이라는 생각으로 정성껏 한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왜 심우회는 사람이 많이 죽는데만 가느냐고.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 나 역시 과거에는 상가 가기를 두려워했었다.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남들이 아픔을 당해도 구경만 했을 것이다.

늦게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서 이제는 상가에 가서 염불도 두려움없이 한다.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면 불교인이라 말할 수 없다.



그림 · 문병성

그때 나는 5사단 이종인법사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래서 군포교에 배력을 느꼈다. 내 아들들이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랴. 군인들이 있기에 나는 부처님 법당에도 마음놓고 찾아갈 수 있으며 자유롭다. 군인들이야말로 수호신장이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다. 함장주 하나로 훈련소부터 포교를 시작한다. 훈련소 수계법회에 참석하게 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다 돌아볼 수 없는 아픔이다. 봉사는 자신이 문을 열어야 한다. 봉사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며 보시라고 생각하며 재가불자로서 이 각박한 세상에 자비를 펼쳐 밝고 향기로운 포교를 하여 점차 불국정토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불가사의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 어느날 철원 쪽을 지나던 중 군법당이 눈에 띄어 참배하게 되었다. 법당을 나오다 군종병을 만났다. 군종병이 간절히 말하길 비용부대 군법당이 마무리되지 못해 담당 법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하여 우리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날따라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이 법당을 수리하기 위해 철거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곳 저곳에서 주워다 놓은 관자문짝 등 그 공경을 보고 우리 일행들은 눈물을 흘렸다. 법을 펼치기 위해 자그마한 법당이라도 마련했다고 나선 군불자들에게 고맙고 감사했다. 〈계속〉



◇〈서유기〉에 사천왕의 캐릭터를 결합시킨 디지털 애니메이션 '철인 사천왕'. 왼쪽부터 철인 광목천왕, 철인 지국천왕, 철인 다문천왕, 철인 증장천왕의 모습.

"로봇 사천왕 지구 구한다"

불교 애니메이션 '철인 사천왕' 2월13일 개봉
디지셀기법 최초 제작… 화려한 영상 볼거리

사찰을 지키는 사천왕이 로봇으로 변신해 지구의 위기를 구한다.

100%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된 디지털 애니메이션 '철인 사천왕'. B29엔터프라이즈(대표 김혁)에서 제작된 이 만화영화는 〈서유기〉에 사대천왕의 캐릭터를 결합시킨 공상과학물.

'철인…' 은 과학 기술의 진보로 기아와 질병 등 일반적인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 정신적인 혼돈속에 빠져 있는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삼장법사가 세계 방위점에 봉인해 둔 여덟 요괴들이 봉인을 풀고 지구 곳곳을 파괴하면서 부터 시작된다.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삼장법사의 법의(法衣)에 그려진 그림에서 태어난 4기의 거대 변신 로봇.

이들은 동쪽을 지키며 인간을 고루 보살피고 국토를 수호하는 지국천왕, 죄인에게 벌을 내려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도심(道心)을 일으키게 하는 서방의 수호신 광목천왕, 남쪽을 지키며 만물이 태어날 수 있는 덕을 베푸는 증장천왕, 북쪽을 지키며 부처님의 도량을 살피고 설법을 듣는 다문천왕 등 사천왕의 각 특징을 지니고 있는 로봇들. 처음에는 요괴들의 계략에 빠져 로봇 조종사들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위기에 봉착하지만 지혜롭게 힘을 합쳐 수렁에 빠진 지구와 태양계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이 영화에서 박진감 넘치는 오토바이 경주 장면, 철인사천왕과 요괴의 결투장면 등은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만끽할 수 있어 첨단 영상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영화는 디지털과 한 장의 셀을 합성한 신기법인 디지-셀(Digi-Cell) 방식과 첨단기법인 HDVS 프린터 방식을 도입해 관객들에게 선명한 화면을 선사해 준다.

기획자인 김혁감독이 '2.5차원 애니메이션' '디지셀'이라 부르듯 이 영화는 디지털의 금속성을 제거하고 광택 만화영화의 따뜻한 느낌을 살린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 15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철인사천왕'의 특징은 컴퓨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역동성과 만화적 앵글을 다양하게 구사한 것. 이외에도 이 작품에는 록과 댄스 리듬을 합성한 생동감 있는 음악 등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재미를 한층 돋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철인사천왕'은 1월말 시사회를 거쳐 2월13일 개봉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인터뷰 철인사천왕 제작 김 혁 감독

어릴때 본 사천왕서 착안



"사천왕은 불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지킨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어요. 어릴때 할머니를 따라 사찰에서 본 사천왕을 모델로 '철인 사천왕'을 만들었습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철인 사천왕'을 제작한 B29엔터테인먼트 김혁감독(36). 불자인 김감독이 '철인 사천왕'을 애니메이션 소재로 삼은 또다른 이유는 서양의 희랍신화를 주로 다룬 미국과 일본 만화영화 시장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우리 불교 둔화를 만화 영화로 가공해 보여주자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96년 만화영화 '아마게돈'에 이어 두 번째 작품인 '철인 사천왕'이 100%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감독은 또 "애니메이션이 발달된 미국, 일본 등에서도 디지셀방식은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제작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동국대 연극영화과 출신인 김감독은 앞으로 성인 애니메이션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301 - 선 (禪)

참선요지(參禪要旨)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성(大晟)스님 옮김
86변형 278쪽/ 값5,500원
여시아문 펴냄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소멸해 버린 자리(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것인가?

스님의 일생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법(法)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째로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안일과 나태, 그리고 온갖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통렬한 질타이기도 하다. 결국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 자신의 이러한 치열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결정화된, 요간한 말씀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옮긴이의 말 중에서)

허운화상

허운 화상(1840~1959)은 1840년 중국 복건 천주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처음 관음보살의 일대기 등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19세 때 출가, 고산 용천사의 묘련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는 모든 소임을 놓고 3년간 일념으로 관조와 염불을 하였으며 31세에는 천태산 용천암 융경 노화상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불법을 구했으며, 갖은 병고와 액난에도 굴하지 않고 계율을 엄수하고 근고정진한 끝에, 종문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단절되다시피 한 5종 가풍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하에서도 승도를 수호하고 사찰, 불당의 파괴를 막았으며 대소 수십개소의 가람을 복원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를 주고 불문에 귀의시켰다. 그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계한 재가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전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